

---

2013년 추계 국제학술대회

# 동아시아 근대 국제질서의 형성과 만주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nchuria**  
and Formation of Modern World Order in East Asian

공동개최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만주학회

일 시 2013. 10. 26(토)

장 소 강원대학교 인문2호관 210호(인문공간)

후 원 동북아역사재단 · 강원대산학협력단 · 강원대신문방송사



---

## 학술대회 일정 | Program

---

- 09:00~09:40 **등록** Registration
- 09:40~10:00 **개회식** Opening Ceremony 사회 | 남의현 (강원대)  
개회사 |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장  
축사 | 만주학회 회장
- 10:00~11:40 **오전 발표** 사회 | 윤휘탁(한경대)  
**동아시아와 만주** East Asia and Manchuria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  
- 청일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발표 | 崔峰龍(대련대학)      토론 | 이흥권(강원대)  
滿洲はどう教えられたか — 学校教育・滿洲修学旅行を中心に  
발표 | 長谷川恰(학습원대학)      토론 | 임성모(연세대)
- 11:50~13:00 **중식** Lunch
- 13:00~15:50 **오후 발표 I** 사회 | 박선영(경북대)  
**구미와 만주** Manchuria and the West  
论义和团运动时期维特的满洲政策  
발표 | 張麗(요녕사범대학)      토론 | 홍웅호(동국대)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 - 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발표 | 김원수(서울교대)      토론 | 최병욱(강원대)  
러시아의 滿蒙정책과 발칸문제(1907-1912)  
- 러일의 내몽골분할협정(1912)체결을 중심으로  
발표 |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토론 | 김종헌(건국대)  
미국의 만주정책과 국제조약 체제  
발표 | 최정수(한양대)      토론 | 김용태(강원대)

15:50~18:00 **오후 발표 II** 사회 | 김재용(원광대)

**근대 만주 인식** Perceptions on Modern Manchuria

일제 창가와 군가에 표상된 만주 제패의 의미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발표 | 최현식(인하대) 토론 | 박슬기(한림대)

재만주(국) 작가 안수길과 '얼퇴놈'의 자리

- 이념과잉 공간에서의 글쓰기와 작가의 윤리

발표 | 정주아(서울대) 토론 | 서재길(국민대)

중국동북문학에 투영된 근대 만주의 화이관

발표 | 김창호(강원대) 토론 | 유수정(가천대)

18:00~19:00 **종합토론** General Discussion 사회 | 김기훈(육사)

19:00~20:00 **만찬** Banquet

---

## 목 차 | Contents

---

### 오전 발표 | 동아시아와 만주 East Asia and Manchuria

-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  
- 청일·러일전쟁을 중심으로 ..... 7  
崔峰龍(대련대학)
- 満洲はどう教えられたか — 学校教育・満洲修学旅行を中心に ..... 23  
長谷川怜(학습원대학)

### 오후 발표 I | 구미와 만주 Manchuria and the West

- 论义和团运动时期维特的满洲政策 ..... 39  
張麗(요녕사범대학)
-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 - 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 51  
김원수(서울교대)
- 러시아의 滿蒙정책과 발칸문제(1907-1912)  
- 러일의 내몽골분할협정(1912)체결을 중심으로 ..... 65  
최덕규(동북아역사재단)
- 미국의 만주정책과 국제조약 체제 ..... 93  
최정수(한양대)

### 오후 발표 II | 근대 만주 인식 Perceptions on Modern Manchuria

- 일제 창가와 군가에 표상된 만주 제패의 의미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 109  
최현식(인하대)
- 재만주(국) 작가 안수길과 ‘얼되놈’의 자리  
- 이념과잉 공간에서의 글쓰기와 작가의 윤리 ..... 133  
정주아(서울대)
- 중국동북문학에 투영된 근대 만주의 화이관 ..... 147  
김창호(강원대)



#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

- 청일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崔 峰 龍 (대련대학)

I. 들어가는 말	IV. 청·일전쟁과 청나라의 만주정책
II. 근대 만주의 개방과 청나라의 이민실변정책	V. 러·일전쟁과 청나라의 만주정책
III. 근대 만주의 위기와 청나라의 군사방위정책	VI. 나오는 말

## I. 들어가는 말

모든 역사는 당대사이고 또한 역사는 단절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역사의 기억이란 당대 사학자들에 의해 다시 해석되고 조명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역사적 해석은 후세에 전승되기 때문이다.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천과 형성과정을 통해 우리들은 과연 어떠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섭취할 것이며, 또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남긴 아픈 역사는 오늘날 동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기억되고 어떠한 역사적 계시를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해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거의 정치는 곧 역사로 기록되고 또한 그러한 역사는 흔히 오늘날의 정치로 표출된다. 요즘 동아시아의 정치기후는 여러 가지 역사문제로 인해 중일 및 한일 관계는 초유의 냉각기를 맞고 있다. 예컨대 영토분쟁과 역사교과서문제 및 위안부문제 등 근대 역사사실(歷史事實)에 대한 왜곡과 망언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형성과정에서 남긴 역사적 상흔은 현재 동아시아공동체(혹은 동북아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근대 국제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마디로 ‘서세동점’이라고 개관할 수 있다. 이러한 근대 국제질서의 지각변동 속에서 동아시아의 중일·한 3국은 선후로 서구열강들의 강요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다양한 정치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중·한 양국은 타율적인 근대화 개혁에서 실패했으나 오

직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자율적인 근대화를 실현함과 더불어 대외침략의 야망으로 ‘대륙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패러다임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즉 청일전쟁을 계기로 중세기의 ‘화이질서’가 깨지고 점차 일본제국이 동아시아 맹주로 급격하게 부상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제국의 대륙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은 결국 만주<sup>1)</sup>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러일전쟁의 발발로 이어졌다. 이러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과정에서 만주는 지정학적인 독특한 전략위치로 말미암아 줄곧 제국주의열강들이 패권을 다투는 각축장으로 변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목적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편변동과정에서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을 고찰하려는 데 있다. 즉 청나라의 만주에 대한 봉금제도 폐지, 개방개척과 이민실변정책, 그리고 만주의 변방위기와 군사방위정책 및 청일-러일전쟁에서 나타난 청나라의 만주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한다. 이 글을 통해 필자는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개편과정에서 만주가 제국주의열강들의 각축장으로 부각하게 된 역사적 원인과 더불어 이에 대응한 청나라의 만주정책에서 드러난 특성과 그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 II. 근대 만주의 개방과 청나라의 이민실변정책

주지하다시피 만주지역의 고대 토착민족으로서 숙신(肅慎)·예맥(濊貊)·동호(東胡) 등 세 갈래 종족<sup>2)</sup>이 그 계보를 이루었는데 이들은 통그스 몽골인종에 속하였다.<sup>3)</sup> 그러나 오랜 역사적 변천과정에서 만주지역의 고대민족들이 부여(夫餘), 고구려(高句麗), 발해(渤海), 요(遼), 금(金) 등 고대·중세의 국가문명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 중원지역의 역대 왕조들과 번속관계를 유지함과 더불어 민족이동과 융합 및 소실 등 복잡한 현상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서 숙신(肅慎)은 만주의 토착민족으로서 오랜 역사적 변천 속에서 물길(勿吉)·읍루(挹婁)·말갈(靺鞨)·여진(女眞)등으로 지칭되면서 그

- 
- 1) ‘만주’라는 역사지리명칭은 대체적으로 현재 중국의 요녕성, 길림성 및 흑룡강성을 포함하는 동북지방을 지칭하는데 흔히 ‘동북3성’ ‘동3성’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곳은 ‘요동’ ‘관동’ ‘관외’ ‘만주’ 등으로 다양하게 불려왔고 또한 일본과 한국에서는 현재에도 습관적으로 만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해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주라는 용어를 사용함을 부연해둔다.
  - 2) 일부 중국학자들은 동호계 후예인 몽고족, 숙신계 후예인 만주족, 예맥 후예인 조선족, 그리고 한족(漢族)을 포함하여 고대 동북지역 4대 종족의 계보를 이룬다고 주장하고 있다(王禹浪, 『神秘的東北歷史與文化』, 黑龍江人民出版社, 2011. 127쪽.)
  - 3) 孫進己, 『東北民族原流』, 黑龍江人民出版社, 1993. 276쪽.



명맥을 유지해왔다.

1616년에 누르하치(奴兒哈赤)는 건주여진을 중심으로 여진족을 통일한 후 허투알라(赫圖阿拉)를 도읍으로 삼고 금나라(역사에서 '後金'이라고 칭함)를 건립하였다. 1926년에 누르하치가 죽은 뒤에 칸으로 즉위한 황태극은 조선에 대한 두 차례 정벌(이른바 1627 '정묘효란'과 1636년 '병자호란')을 통해 군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명나라를 공격하는데 있어서 후방 위협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몽고 각 부락과 흑룡강지역을 통일함으로써 관내로 진입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1936년 황태극은 국호를 청(淸)으로, 여진을 만주(滿洲)로 개칭하였으며, 1644년에는 명나라 말기 이자성(李自成)이 이끄는 농민기의 군이 북경을 점령한 틈을 이용하여 관내로 진입하여 중원대지를 지배하는 최후 소수민족 봉건왕조의 기틀을 다져갔다.

청나라 초기, 만주는 명청(明清)간의 전란으로 인해 크게 황폐해졌는데, 『청태종실록』에 따르면 당시 “여러 성읍의 군민이 모두 도망가고 수 백리에 사람의 흔적이 없다”<sup>5)</sup>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수 십 만명 팔기병(八旗兵)들이 가축을 데리고 관내로 이주함으로써 만주의 인구는 급격히 감소했다. 그리하여 일부 청나라 지성인들은 “나라 근심을 약해지게 하려면 반드시 근본을 충실해야 한다”<sup>6)</sup>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치(順治)황제는 “산해관 밖에 황무지가 극이 많아서 백성들이 출관하여 개간하기를 원하는 산해관도에 지령을 내려 문서를 만들어 관부에 알리고 땅을 나눠서 거주토록 하라”<sup>7)</sup>는 칙서를 내렸고, 따라서 청나라는 1653년에 「요동초민개간령(遼東招民開墾令)」<sup>8)</sup>을 반포하였다.

이 ‘개간령’은 요동지역의 개간을 장려하기 위해 개간자를 모집하는 숫자에 따라 문무관제를 임명하는 제도로서 비록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관리제도의 문란을 조성한다는 비난과 더불어 만족들의 불만을 초래했기 때문에 점차 한족들의 유입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 청나라는 1668년에 「요동초민개간령」을 폐지함과 동시에 만주를 조상의 발상지(興龍之地)로 규정하고 백두산과 압록강·두만강 이북 약 1천여 리에 달하는 지역을 봉금지대(封禁地帶)로 선포하였다. 이것은 만족의 조상 발상지를 보호하

4) 후금의 첫 도읍지인 허투알라(赫圖阿拉)는 오늘날 요녕성 신빈현 노성(老城)이며, 누르하치는 1621년에 도읍을 요양성(遼陽城-東京城이라고도 칭함)으로 이전했다가 1625년에 다시 도읍을 성경(盛京-심양)에 옮겼는데 흔히 ‘관외 3경’(關外三京)이라고 불렀고 1644년에 입관하고 북경성을 도읍으로 삼았다.(王禹浪, 『神秘的東北歷史與文化』, 黑龍江人民出版社, 2011, 116-120쪽 참조.)

5) “諸城軍民盡隳, 數百里無人迹”『清太祖實錄』卷六十一.

6) “欲消內憂必當充實根本”(徐世昌, 『東三省政略』卷六.)

7) “以山海關外荒地甚多 民人愿出關墾地者 令山海關道造冊報部分地居住”(『清朝文獻通考』卷一.)

8) 李樹田,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1991, 404쪽.

고 또한 만주의 자연특산물을 황실에서 독점하고 그곳을 사냥터로 만들어 만족의 무예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청나라는 봉금지역의 계선을 표시하기 위한 조치로서 ‘유조변’(柳條邊)을 설치하고 한족과 몽고인들의 유입을 금지시켰지만 장군제도를 실시하면서 선후로 성경장군, 길림장군 및 흑룡강장군을 두어 기민(旗民)관리, 변방 순시 및 공물제공 등 업무를 주관했다. 약 200년 간 지속된 청나라의 봉금지책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만주의 개항과 더불어 점차 해제되었다.

19세기 초엽 세계적인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지각변동은 서구열강들의 ‘서세동점’에서 작동되었으며, 또한 그것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의 발상지인 영국이 ‘동방제국’으로 불리던 청나라에 대한 무력침략으로 개시되었다. 즉 제1차 아편전쟁(1840-1842)에서 실패한 청나라는 내외외환의 사면초가에 휩싸이면서 ‘백년 치욕’의 기로에 들어섰고 중국은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되었다. 아편전쟁 때 영국 군함은 요동반도 해면에 잠입하여 재물을 약탈했지만 전체 만주지역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았고, 또한 「남경조약」에는 만주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 근대사의 서막으로 볼 수 없다.<sup>9)</sup> 그러나 영-프 연합군이 발동한 제2차 아편전쟁(1856-1858)에서 주요 전장은 광둥과 경진(京津)일대였지만 만주지역은 큰 충격과 영향을 받았다. 특히 「천진조약」에 따라 1861년 4월 3일 우장(牛庄-현재 요녕성 영구)이 개항됨으로써 만주사회는 점차 반식민지·반봉건사회로 전락되었다. 이른바 반식민지는 근대 국가로서의 주권 상실을 뜻한다면, 반봉건사회는 자연경제의 해체와 함께 자본경제를 의미한다.

이처럼 청나라가 내외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짜리러시아는 동진정책을 펼치면서 흑룡유역을 침략하였는데, 그들은 먼저 무력점령을 강행한 후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기편수단으로서 만주에 대한 영토 확장을 실현했다. 1848년 4월 니콜라 1세는 동시베리아총독에게 사하린을 점령할 것을 명령함과 동시에 1856년 동시베리아총독은 흑룡강 북안과 우수리강 우안에 군인을 이주시켜 개간함으로써 비법적인 군사점령을 감행했다. 청나라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과 무장이민에 대하여 소위 “예속정책(羈縻政策)”을 취하였다. 즉 청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오랑캐가 화목한지 이미 백여 년이 또한 의심할 틈이 없고 영-프 등 오랑캐와 다르므로…웅당 예의로 상대하면서 고삐를 잡는 것이 응당하다”<sup>10)</sup>라고 인식하였다. 함풍 황제는 흑룡강장군 경순(景淳)에게 “만약 그 나라 함

9) 위의 책, 454쪽.

10) 여기서 말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화목’이란 강희 27년(1689년) 9월 7일 청나라와 짜리 러시아가 체결한 첫 번째조약인 「니부추조약」을 말한다. 17세기 중엽에 청나라는 러시아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적극적인 군사적 대응정책을 취했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以夷制夷’ ‘安內攘外’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羈縻政策’을 실시함으로써 만주의 광활한 영토를 러시아에 빼앗겼다.

대가 지방을 경유하면서 실제로 피해와 요구사정이 없다면 역시 그들을 난감하게 할 가치가 없다”면서 “오직 대의를 보여주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 것”<sup>11)</sup>을 지시했다. 당시 청나라는 영-프 연합군이 발동한 제2차 아편전쟁에 대응하고 또한 태평천국운동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농민봉기를 탄압하기 위해 만주의 대부분 팔기병을 관내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흑룡강일대에 침입한 러시아군대를 방어할 수 없었다.

러시아는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외교적 수단으로 1856년 2월 28일 흑룡강장군 헝산(奕山)을 피박하여 「애훈조약」을 체결하고 흑룡강 이북과 외흥안령 이남의 약 60만 평방키로 영토를 점령하였다. 잇따라 1860년 10월 영-프 연합군이 「북경조약」을 맺을 때, 이른바 ‘조정자(調停者)’의 ‘보상’으로 중러 「북경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애훈조약」의 비준과 함께 우수리강 동쪽의 약 40만 평방키로 영토를 강점했다.

이러한 만주의 변방위기와 함께 직예(오늘의 하북, 산둥)지역의 자연재해로 관내유민들이 만주에로 끊임없이 흘러들어 황무지를 개간했다. 청정부는 재정수입을 늘이고 러시아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점차 봉금정책을 폐지하고 ‘이민실변정책’(移民實邊政策)을 실시했다. 1862년 봉천성 대릉하 동안의 목창(木廠)의 개방을 효시로, 잇따라 성경동변도산장(盛京東邊山場-금현 일대) 성경선위장(盛京鮮圍場-동변도 일대) 및 길림성의 서위장(西圍場-이통, 쌍양 일대) 남황위장(南荒圍場-연변일대)를 개방하고 부창주현(府廳州縣) 등 행정기구를 설치했다. 그리고 1860년 흑룡강장군 특보흠(特普欽)은 조정에 네 차례나 상주를 올려 초민개간을 요청했는데, 청정부의 비준을 거쳐 호란(呼蘭)지역의 봉금해제를 효시로 목단강지구를 포함하여 점차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금되었다.

여기서 만주에 대한 청나라 이민실변정책의 전형적인 사례로서 연변지역의 봉금제도의 해체와 “이이제이(以夷制夷)”의 일환으로서 조선유민을 이용하여 변강위기에 대처한 것이었다. 짜리 러시아가 「북경조약」를 통해 우수리강 이동을 점령함으로써 연변지역은 러시아와 접경하면서 변강요새로 급격히 부상되었고, 청정부는 변강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하였다. 1881년 길림장군 명안(銘安)과 변무독판 오대징(吳大澂)은 청정부에 이미 연변지역으로 대량 이주한 “월간한민을 모두 입적시킬 것”에 관한 상서를 올렸고, 그 이듬해 1월에 광서황제는 한민들로 하여금 “지조(地照)를 받고 조세를 바치게 하여 그들이 우리 판도에 예속되도록 하라”<sup>12)</sup>고 지시했다. 황제의 지시

11) 『清代中俄關係當案史料選編』第一編, 114쪽,(李樹田,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1991, 459쪽 재응용.)

12) “請將越墾韓民 概令入籍之奏”, “或於領照納租外 令其隸我版圖”, (徐世昌, 『東三省政略』邊務, 延吉附件三.)

에 따라 월간한민은 돈화현과 훈춘현에 귀속시켰다.

당시 조선정부는 월간한민을 1년 내 쇠환(刷還)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많은 황무지를 개척하고 정착한 한인들은 쇠환을 거부했다. 1883년 11월 청나라와 조선정부는 회령에서 그 전해에 체결한 「중국조선상민수륙통상장정(中國朝鮮商民水陸貿易章程)」에 근거하여 「길림조선상민지방장정(吉林朝鮮商民地方章程)」 16조를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중세의 ‘북관호시’에 종지부를 찍고 근대 자유무역의 효시였다.<sup>13)</sup> 이 조약에 따라 1885년에 화룡육(和龍峪-용정시 지신향 소재지)에 통상국을 설치하고 광제육(光霽峪-용정시 광개항 광개촌과 서보강(西步江-훈춘시 삼가자향 고성촌)에 분국(局卡)을 설치하였는데, 사실상 조선유민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 이듬해에 화룡육에 월간국(越墾局)을 설치하고 두만강 이북의 길이 700리, 너비 40-50리 지역을 ‘한민전간구(韓民專墾區)’<sup>14)</sup>로 확정하였는데, 한인들의 촌락은 26개, 1,560여 호, 약 7,800명에 달하였다.

이때부터 연변지역의 한인들은 거주권과 개간권(토지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연변지역 한인사회형성의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1888년 통상대신 이홍장은 연변지역에 통상국을 설치하고 한인들을 고삐에 얽매어 이용하는 이른바 “기미한민(羈縻韓民)” 정책에 대하여 “현재 이 통상국은 시험적인 기간이 끝났지만 세금 숫자는 이처럼 적어서 목전에는 재정을 유족케 하는 길이 아닌 것 같지만 멀리론 논한다면 실로 역시 변강을 다스리는데 한인의 정책에 달려있다. (중략)신이 조사하건대 길림 화룡육 일대에 통상국과 분국을 설치함은 본래 한민은 얽매려는 것이었고 세금을 많이 거두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 통상국을 갑자기 철폐하면 시국에 방해될까 두렵다”<sup>15)</sup>는 상주를 올리기도 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듯이 당시 청정부가 연변지역에 이주한 조선유민들을 이용하는 이민실변정책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이 밖으로 향하지 않게 하려는” 데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유민의 유입으로 말미암아 청정부와 조성정부 사이에 소위 ‘토문강변계설’이 대두되었고 두 나라는 1885년과 1887년 두 차례 담판에서 ‘토문강 원류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일본이 이른바 ‘간도문제’를 빌미로 침략의 마수를 연변으로 뻗치게 되었다.

13) 金春善, 『延邊地區朝鮮族社會的形成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1, 76쪽.

14) 吳祿貞, 『延吉邊務報告』, (李樹田, 『長白叢書初集』, 吉林文史出版社, 1986, 62쪽.)

15) “現值該局試辦屆滿 所收稅數如此細微 就目前而論似非裕財之道. 就遠而論 實亦扶治邊垂 維系韓人文策(中略) 臣查吉林和龍峪一帶分設局卡 本欲羈縻韓民非爲多收稅項 若遽裁撤恐于時局有碍.” (徐世昌, 『東三省政略』卷一, 邊務, 延吉附件三.)

### Ⅲ. 근대 만주의 위기와 청나라의 군사방위정책

위에서 필자는 이미 짜리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따른 만주의 변방위기에 대하여 언급했고 또한 그에 대응하기 위한 청나라의 봉급폐지와 이민실변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상술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19세기 70년대부터 청정부는 내외외환에 시달리면서도 만주에 대한 통치와 변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군사적 개혁을 시도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 주요하게 「변통봉천리치장정(變通奉天吏治章程)」을 시행하면서 지방관원은 만족과 한족을 겸용(“滿漢兼用”)하면서 동북 3성에 보편적으로 부(府)·청(廳)·주(州)·현(縣) 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지배집단 내부의 민족갈등 및 계급모순을 완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주요하게 연군(練軍)을 정돈하고 양창대(洋槍隊)를 훈련시키고 동시에 변강지역에 대한 수비를 강화했다. 예컨대 1880년에 길림장군 명안(銘安)과 변모독판 오대징은 조정에 상주를 올려 짜리러시아를 방어하는 계책으로 마병·보병으로 조직된 ‘정변군(靖邊軍)’ 7천여 명을 영고탑과 훈춘 및 삼성(三姓-지금 흑룡강 의란현)에 주둔시켰는데, 이것은 두만강 이북에서 방영(防營)이 주둔한 시작이었다.<sup>16)</sup> 그리고 이듬해 청정부는 훈춘협령(琿春協領)을 부도통(副都統)으로 격상시켜 연변지역 변방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근대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군사방위정책에서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길림의 군사공업기지-길림기기국과 여순의 근대 해군기지-북양함대를 손꼽을 수 있다. 1881년 5월, 흠차대신 오대징과 길림장군 명안은 청정부에 상주를 올려 길림에 무기탄약공장을 설립한 것을 제기했는데, 그해 6월 청정부는 호부(戶部)에서 매년 백은 10만 냥을 조달하여 무기탄약공장을 설립하도록 비준하였다. 그리하여 이듬해 3월부터 약 1년 반에 길림 동국자(東局子)에 길림기기국(吉林機器局)을 건설하였는데, 미국·독일에서 수입한 기계설비가 88개 종류에 165대에 달하였다. 1883년 10월에 무기공장이 정식으로 가동되어 매년 화약 500근, 탄약 1천 여발을 생산했고, 1885년에 이르러 대포와 여러 가지 총기를 제조하였다.<sup>17)</sup> 길림기기국의 창설은 만주지역 근대공업의 발단으로서 그 규모와 설비 및 경영관리는 당시 중국에서 선진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또한 양무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이었다.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 ‘서세동점’의 국가위기 속에서 군사체계에 있어서 청나라는

16) 위와 같음.

17) 李樹田, 『中國東北通史』, 吉林文史出版社, 1991, 473쪽.

해양방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1875년 5월 청정부는 북양대신 이홍장(李鴻章)과 남양대신(潘葆楨)에게 각각 북양과 남양의 방비를 주관하도록 했다. 해양방위를 위한 근대적인 신식해군과 군항건설은 양무운동 과정에서 ‘강병정책(強兵政策)’의 중대한 조치로서 추진되었다. 당시 청나라의 해양방위의 중심은 점차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 옮겨 발해만을 둘러싼 북방의 대고(大沽)·여순구(旅順口)<sup>18)</sup>·위해(威海)를 거점으로 하는 근대 중국의 해양방위체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81년 북양대신 이홍장은 북방의 해양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조정에 상주를 올려 북양해군기지로서 요동반도의 여순구를 선택하였다. 그해 가을, 이홍장은 직접 여순구에 대한 현지답사를 진행한 후 “여순구는 북양의 요새에 있고 북경(京畿)의 문호”로서 “봉천과 하북 두 성의 해양방어의 관건”이며 “긴요한 요새는 필연코 다룰 기세”<sup>19)</sup>라고 판단하였다. 그해 11월에 이홍장이 여순구에 군항을 건설하려는 계획은 정식으로 조정에 보고됨과 동시에 비준되었다. 따라서 곧 여순공정국(旅順工程局)을 성립하고 직예후보도원(直隸候補道員) 원보령(袁保齡)을 총판으로 임명하여 군항기지 건설을 지휘했다. 1890년 9월, 약 8년의 시간을 거쳐 백은 139.35만 냥을 지출하여 군항을 수축함과 동시에 독일로부터 많은 대포를 수입하여 황금산포대(黃金山炮臺)·모울취포대(岬嶺嘴砲臺)·노호미포대(老虎尾砲臺)·성두산포대(城頭山砲臺)·의자산포대(椅子山砲臺)·백옥산포대(白玉山砲臺)·남자탄고(南子彈庫) 등 몇 십 개의 보루와 탄약고를 세움으로써 북양함대의 기지로 거듭났다.

여순 군항은 북방에서 겨울에 얼지 않는 항구이고 또한 천연적인 요새로서 동쪽은 황금산(黃金山), 서쪽은 노호미반도(老虎尾半島), 서남쪽은 높은 노철산(老鐵山)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은폐성과 방풍성이 양호하여 전략적으로 역수난공의 군항으로서 당시 ‘북양 제1군항’으로 불렸다. 하지만 청나라의 북양함대는 청일전쟁<sup>20)</sup>에서 일본연합함대에 완전히 참패하는 치욕을 당함으로써 청나라가 10여 년간 구축한 북방해군방위 체계는 기본상 붕괴되었다. 그렇다면 아래에 청일전쟁에서 나타난 청나라의 만주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8) 여순구(旅順口)란 지명에 대한 고증에 의하면 漢나라 때는 ‘沓渚’ ‘沓津’; 晉나라 때는 ‘馬石津’; 隋唐 때는 ‘都里鎮’; 遼金元에는 ‘獅子口’라고 칭하다가 1371년에 明나라에서 파견한 遼東都指揮使가 군대를 이곳을 통해 등록한 후 ‘旅途平順’의 뜻으로 ‘旅順口’라고 불렀고 흔히 여순으로 약칭한다.

19) 潘研 王維, 『旅順景觀史話』, 2004, 大連出版社, 1-3쪽.

20) 청일전쟁(淸日戰爭)에 대해 중국에서는 1894년 갑오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흔히 ‘중일갑오전쟁’ 혹은 ‘갑오중일전쟁’으로 칭하고 일본에서는 ‘일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약칭한다.

#### IV. 청일전쟁과 청나라의 만주정책

청나라는 아편전쟁을 계기로 점차 몰락되었지만 과거의 ‘중주국’이라는 중세적인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 했다. 그러나 근대에 ‘메이지유신’을 통해 부국강번과 더불어 봉건적 군국주의 길에 들어선 일본은 탈아론에 바탕을 둔 ‘대륙정책’을 펼치면서 조선과 만주를 발판으로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아울러 짜리러시아를 포함한 서구열강들의 만주에 대한 침략확장의 야욕도 커갔다. 때문에 근대에 만주지역은 제국주의들의 각축장으로 변하면서 전쟁의 불길이 잇따라 이어졌다.

1894년 7월, 조선의 동학당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진출한 청·일 양국은 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일전쟁(1894.7-1895.4)<sup>21)</sup>이 발발했다. 청일전쟁은 7월 25일 일본연합함대가 풍도(豊島)에서 청나라 북양함대를 돌연적으로 공격하고, 잇따라 일본육군이 아산(牙山)에 주둔한 청나라 군대를 습격했다. 8월 1일, 메이지천황은 청나라에 대한 선전조서를 반포했고 청나라도 일본에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근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첫 국제전쟁이 시작되었다. 청일전쟁은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줄곧 추진해오던 ‘대륙정책’의 일환이었고 점차 중국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변했다.

8월 26일, 일본은 조선정부를 강박하여 「일조동맹조약(日朝同盟條約)」을 맺고 청나라에 대하여 일·조 양국 정부는 ‘공수상조(攻守相助)’함과 동시에 조선정부가 일본에 “청나라 군대를 조선의 국경 밖으로 철퇴시켜 줄 것”<sup>22)</sup>을 위탁하도록 했다. 9월 15일 평양 전투에 패한 청나라 군대는 압록강 서쪽으로 철퇴했고, 황해해전에서 청나라 북양함대는 큰 손실을 보았다. 따라서 이홍장은 북양함대를 위해위(威海衛)군항 내에 정박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해상공제권은 일본연합함대가 장악하게 되었다.<sup>23)</sup>

10월 24일, 일본군 제1군은 압록강을 넘어 중국 영토에 침입했고, 같은 날에 제2군 2만 5천명이 요동반도 동쪽의 화원구(花園口-현재 遼寧省庄河市明阳镇)에 등록함으로써 청일전쟁의 성격은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을 전환하였다. 11월 7일, 일본군 제2군 제1사단은 대련만 포대를 점령했고, 11월 21일 여순을 점령했다.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군은 2만 명에 달하는 중국인을 학살하는 이른바 ‘여순대학살’<sup>24)</sup>을 자행했다. 당시 일본 외상이었던 陸奥宗光은 회고록에서 “이번 학살에서 재난을 면할 수 있

21) 청·일전쟁에 대해 중국에서는 흔히 ‘중일갑오전쟁’ 혹은 ‘갑오중일전쟁’으로 칭하고 일본에서는 ‘일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청일전쟁’으로 약칭한다.

22) 戚其章 主編, 『中國近代史資料叢刊續編·中日戰爭』第7册, 中華書局, 1982, 127-128쪽.

23) 沈子, 『日本大陸政策史(1868-194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92-93쪽.

24) 현재 여순구의 만충묘기념관에 있는 1896년에 세운 비문에 따르면 당시 ‘여순대학살’에서 피살된 중국인은 1.83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關捷, 『旅順大屠殺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1, 215쪽.)

있던 중국인은 전체 도시 속에서 36명만 남았다”<sup>25)</sup>라고 서술했다. 청나라 군대는 석문자(石門子-대련시金州二十里堡鍾家村夏家店) 전투와 토성자(土城子-대련시旅順口三洞堡鎮營城子) 전투에서 미미한 전과를 올렸지만 일본군을 공격을 막지 못했다. 1895년 2월, 위해위(威海衛) 해전에서 북양함대는 일본연합함대에 참패를 당하고 「위해항약(威海降約)」에 조인함으로써 청나라는 결국 청일전쟁에서 실패했다.

청정부는 일찍부터 영국, 미국이 청일전쟁을 조해하여 주길 바랐지만, 일본정부의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청일전쟁의 전략적 방침으로 “군사전략과 정책략의 일치”<sup>26)</sup>를 내세웠다. 즉 그것은 청나라 대한 군사적 승리로서 외교적 주동권을 확보함으로써 최후 침략전쟁의 목적에 도달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반대로 청정부의 북양대신 이홍장은 소극적인 피전(避戰) 방침을 취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일본이 제출한 치욕적인 정전조건과 야만적인 담판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1895년 4월 17일, 청나라 전권대신 이홍장과 일본의 전권대신 이토 히로부미는 「마관조약(馬關條約)」(일본은 「日清講和條約」이라고 칭함)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1) 청나라는 조선의 “완전무결한 근대 독립자주국가”임을 승인하고 조선이 청나라에 대한 “공헌전례(貢獻典禮-조공제도를 말함-필자주)체제를 완전히 폐절한다, 2) 청나라는 요동반도, 대만 및 모든 부속도서(島嶼), 팽호열도를 일본에 할양한다, 3) 청나라는 일본군 비로 백은 2만 냥을 배상하고 8차로 나눠서 바칠 것 등이었다.<sup>27)</sup>

상술한 「조약」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청나라는 중-프전쟁에서 월남의 독립을 승인한 이후 중세기 이래 지속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에 대한 ‘번속관계’의 종식을 승인했다. 이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던 이른바 전근대 동아시아의 ‘화의체제’(華夷體制)가 붕괴되었음을 표징한다. 일본은 ‘동양평화’와 ‘조선의 자주’를 위해 개전한다고 했지만, 결국 청나라로부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고 점차 ‘동양의 맹주’로 부상하면서 조선반도와 요동반도를 발판으로 만주를 독점하려는 침략적 야욕이 여실이 드러났다. 때문에 요동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의 모순이 더욱 격화되었고, 특히 일본의 ‘대륙정책’과 짜리러시아의 ‘남진정책’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 쟁탈로 이어지면서 결국 러일전쟁<sup>28)</sup>이 발발했다.

25) 陸奥宗光著·中冢明校註, 『新編蹇蹇錄-日清戰爭外交秘錄』, 巖波書店, 1983, 126-127쪽.

26) 伊藤博文, 「內閣總理大臣奏議」(戚其章 主編, 『中國近代史資料叢刊續編·中日戰爭』第7冊, 中華書局, 1982, 127-128쪽 재인용.)

27) 王鐵崖, 『中外舊約章匯編』第一冊, 三聯書店, 1962, 614-619쪽.

28) 러일전쟁에 대해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日俄戰爭’이라고 칭하고 일본에서는 ‘日露戰爭’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당시 일본은 러시아를 ‘露國’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본 글에서는 ‘러일전쟁’으로 표기한다.



## V. 러일전쟁과 청나라의 만주정책

위에서 이미 서술하다시피 청일전쟁의 평화담판으로 체결된 「마관조약」은 요동반도를 일본에 할양하기로 규정했는데, 이것은 만주에서의 짜리러시아의 특권을 위협했다. 짜리러시아 외교 대신 노바로프는 “만약 일본이 요동반도에서 양호한 균형을 갖는다면 그 세력은 반도 내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조선의 전국과 전체 만주북부의 풍요한 지구에 일본이 많은 식민을 이입하면 최후 일본판도가 될 것이고 또한 러시아 해륙영토를 위협할 것이다”<sup>29)</sup>라고 인식했다. 때문에 이 조약이 체결된 소식을 접한 짜리러시아 정부는 즉시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하고 직접 출면하여 간섭하기로 결정했다.

1895년 4월 23일 짜리러시아는 중국에서의 상호 이익을 보장할 것을 조건으로 독일과 프랑스와 결탁하여 3국 공사가 일본외무성에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할 데 관한 조서를 보내 15일 안에 회답할 것을 요구했다. 짜리러시아의 조회문에서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점유한다면 “중국의 수도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시 조선으로 하여금 독립시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니, 이는 장래 원동의 영구한 평화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러·독·프 3국의 압박적인 간섭에 의해 일본은 부득불 요동반도를 청정부에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 이해 11월 8일 이홍장과 일본 주화공사 하야시(林董)는 북경에서 「요남조약(遼南條約)」 및 「이정전조(議定專條)」를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따라 청나라는 일본이 요동반도를 반환하는 대가로 은 3천만 냥을 지불하며, 일본군대는 3개월 내에 요동반도에서 철퇴하기로 했다.

청일전쟁 이후, 청나라는 일본의 만주침략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써 러시아로서 일본을 견제하는 이른바 ‘이아제일(以俄制日)’의 방책을 실시했고 또한 러시아는 요동반환의 ‘공로’로 만주에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1896년 4월, 러시아는 이홍장을 협박하여 「중아어적호상원조조약(中俄御敵互相援助條約)」(“중아밀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본에 대한 공동방어를 조건으로 동청철도<sup>30)</sup>, 즉 북만주를 횡단하여 씨리리아 철도와 블라디보

29) 日本外務省, 『日本外交文書』(卷28)第2册, 62쪽(沈 子, 『日本大陸政策史(1868-194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106쪽 재인용.)

30) 동청철도는 1896년 「러청밀약」에 의해 러시아가 북만주를 횡단하여 시베리아 철도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부설권을 획득했고 또한 1898년 하얼빈으로부터 대련 여순사이 남부지선 부설권을 획득했다. 1900년 의화단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1901년 전선(全線) 개통하고 1903년 영업을 개시했다. 러일전쟁 후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남부지선의 장춘 이남을 일본에 할양해주었다. 신해혁명 이후 ‘중동철로’ 혹은 ‘북만주철로’로 개칭되었으며, 만주사변 이후 소일교섭 끝에 1935년에 만주국에 매각했다. 1945년 일본 패전 때 소련이 점령했다가 1950년 체결된 「중·소우호동맹조약」에 근거하여 1952년 중국에 무상으로 반환했다.

스토크를 잇는 부설권을 획득했다. 이 '조약'은 청러 양국이 일본을 상대로 맺은 공수동맹으로서 이를 통해 러시아는 북만주의 땅을 빌려 철도를 부설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사실상 청나라의 준보호국이 되었다.<sup>31)</sup> 1897년 12월, 러시아는 출범하여 여순과 대련만을 점령하였으며, 그 이듬해 3월 27일 청정부를 강박하여 「여대조계조약(旅大租界條約)」 및 「여대조지속약(旅大租地條約)」을 체결하고 여순, 대련만 및 이북 육지에 대한 25년 조차권을 획득했다. 그해 5월 러시아는 「속정동성철로지선합동(續訂東省鐵路支線合同)」을 통해 동청철도 남만지선(하얼빈-대련) 부설권을 획득했다. 1898년 7월, 러시아는 여순에 관동성총독부를 설치하고 4개 시(市)와 5개 구(區)에 대한 식민통치를 실시했다.

또한 러시아는 '남하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시도했는데, 그것은 1896년 2월 10일 고종황제가 왕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에 약 1년 간 피신하는 이른바 '아관파천'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에 대한 지배 경쟁은 점차 균형을 이루었지만 서로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러일 양국 간의 모순은 점차 격화되었다. 즉 일본은 조선을 독점함과 동시에 만주에서 발을 붙이려고 했고, 러시아는 만주를 독점함과 동시에 조선에서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1900년 의화단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8국 연합군의 일원으로 중국 남부에 진출한 일본과 만주에 진출한 러시아는 철군문제를 둘러싼 담판이 결렬되면서 한 차례 대규모 전쟁이 만주 땅에서 온양되었다.

1904년 2월 8일 밤, 히카시 후로(東郷平八郎)이 지휘하는 일본연합함대는 여순항에 정박한 러시아함대를 돌연적으로 습격함으로써 제국주의 간에 식민지를 쟁탈하기 위한 '제국전쟁'-러일전쟁이 발발했다. 2월 10일 일본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하였다. 2월 10일 인천으로 등록된 일본군 제1군은 4월말에 압록강하구로부터 만주에 침입했고, 제2군과 제4군은 요동반도에 등록하여 요양으로 진격하면서 남북으로 협공태세를 취했다. 6월에 오야마(大山巖)를 총사령으로 하는 '만주군'은 요양전역, 사하전역, 봉천회전에서 승리했다. 특히 일본군은 약 13만 명의 병력을 투입시켜 군사요충지인 여순 요새를 공격했는데, 약 반년동안 5만 9천명이 살상되는 큰 대가로 1905년 1월 1일에 여순을 점령하고 러시아군대는 투항했다.

러일전쟁은 봉천성을 중심으로 하는 만주를 무대로 전개되었지만 청정부는 1904년 2월 12일 광서황제의 명의로 사유(上諭)문을 반포하여 중국의 '국외중립(國外中立)'을 선포하였다. 또한 봉천성에서는 「양국전지급중립지조장(兩國戰地及中立地條章)」을 제

31) 沈子, 『日本大陸政策史(1868-1945)』,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114쪽.

정하여 “양국 개전 및 주둔한 군대는 오직 전쟁지역 내에 제한하며 지정된 전쟁지역계선을 벗어나지 못한다”<sup>32)</sup>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러·일 양국 군대는 이러한 청나라 지방정부의 공문에 대하여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 백성들이 전쟁의 피해를 받았다. 예컨대 봉천회전에서 러·일 양군은 60만이 투입되었는데, 일본군은 1.7만 명, 러시아군 2.4만 명이 살상되었지만 중국인의 피해는 수십만에 달했다.<sup>33)</sup>

1905년 8월 10일 러·일 양국은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중재로 포츠머스에서 강화회의가 열렸는데 배상금과 할양지 문제로 난항을 겪었지만 일본이 제출한 초안에 따라 9월 5일 일본 전권외상 고무라(小村壽太郎)와 러시아 전권 재무상 비테는 「포츠머스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중국(만주)과 조선에 관한 주요내용은 ①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이른바 일본의 지도·보호·감리권의 승인, ②러시아는 여순(旅順)·여대(旅大)의 조차권 및 장춘(長春) 이남의 철도지선, 부속광광을 일본에 할양, ③일본이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러시아는 북위 50도 이남의 남사할린섬 할양, ④동해·오호츠크해·베링해의 러시아령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 양도 등 내용들이 담겼다.<sup>34)</sup> 이것은 서구열강들의 묵인하에 러·일 양국이 만주와 조선에 대한 세력범위를 분할하는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러나 「포츠머스조약」에는 러시아가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남만철도를 일본에 양도하는 것은 “반드시 중국정부가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해 12월 22일 일본정부 전권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郎)와 청나라 전권대신 원세개(袁世凱)는 북경에서 「동삼성사의조약(東三省事宜條約)」을 체결하였는데, 청정부는 「포츠머스조약」에서 규정된 일본이 만주에서의 세력범위를 승인함과 동시에 16개 곳에 상부지 개방, 호로군 주둔 및 안동-봉천철로 부설권, 그리고 압록강 우안의 산림채벌 등 이권을 획득했다.

일본은 이러한 ‘이권’을 이용하여 ‘만주경영’에서 지속적으로 그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1905년 9월, 일본은 요양에 관동총독부(이듬해 5월에 관동도독부로 개칭하고 여순으로 이전함)를 설치하고 여순, 대련조차지·‘관동주’에 대한 식민통치를 실시하였다. 1906년 11월 26일, 일본정부는 동경에서 청정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책회사인 ‘남만주철도주식회사’를 성립하고 그 이듬해 3월 다시 대련에 옮겨 ‘만주경영’의 첩병으로 삼았다. 이와 동시에 러일전쟁 이후 일본은 조선에 대한 보호국화를 가속화했다. 1905년 11월 27일, 일본은 대한제국을 강요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고 ‘통감통치’를 실시했다. 또한 일본은 두 차례의 「일러밀약」을 통한 러시아의

32) 王彦威 編, 『清季外交史料』光緒朝卷181, 台北: 1962, 20-26쪽.

33) 『東方雜誌』第9期, 1904.

34) [http://terms.naver.com/entry.nhn.

묵인하에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대한제국은 완전히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다.

이처럼 러일 양국이 만주에 대한 침투가 날로 가심화될 때, 동삼성총독 서세창(徐世昌)<sup>35)</sup>을 비롯한 중국의 애국적 관원들은 만주의 주권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거듭하면서 “내력을 충실하게 하여 외력을 저지하러”<sup>36)</sup>는 목적으로 다양한 ‘신정개혁(新政改革)’을 시도하였지만 무너져가는 청나라의 국운을 개탄할 수밖에 없었다. ‘신해혁명’이후 만몽에 대한 일본의 침략야욕은 ‘만주사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만주국’이라는 국가형태의 식민통치를 14년간 지속했다.

## VI.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 필자는 19세기 초엽부터 시작된 ‘서세동점’이라는 세계적인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을 살펴보았다.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은 대체적으로 1840년 ‘아편전쟁’부터 약 한 세기의 시간을 거쳐 1931년 ‘만주사변’에 이르기까지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실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명제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생산될 수 있는 소지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동아시아의 지리적 개념과 더불어 그에 포함되는 국가 및 지역 그리고 각 국가마다 역사시대 구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을 전제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청나라의 만주정책을 고찰해보았다.

17세기 중엽, 청나라 초기에 만주에 대한 봉금정책은 근대에 이르러 러시아의 동진정책으로 변강위기를 초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청나라는 근대 만주의 개항개발과 더불어 봉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민실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변강방위를 공고히 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적극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무운동의 일환으로 만주에서 실시된 군사방위정책으로 길림기계국 설립과 여순군항 건설은 만주의 군사전략적 위상을 더욱 격상시켜주었다. 청나라는 비록 아편전쟁 이후부터 줄곧 내외외환의 위기에 휩싸였지만 과거 조선에 대한 중세기적인 ‘종주국’의 지위를 보존하려고 했고 일본은

35) 서세창(徐世昌:1855-1939)은 하남성 급현(汲縣)에서 출생했으며, 호는 국인(菊人)이고 청나라 말기에 동삼성총독을 비롯하여 국무대신, 내각협리대신 등 관직을 맡았다.民国초기에는 북양정부 제3임 대총통이 추대되었으며 1939년에 천진에서 병사했다.

36) 徐世昌, 『東三省政略』序言.

대륙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에 대한 지배를 시도했기 때문에 결국 청일전쟁이 발발했고 청나라는 결국 실패했다.

그리하여 청일전쟁 이후 근대 동아시아의 국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첫째는 일본이 청나라를 전승함으로서 점차 ‘동양의 맹주’로 부상하였고 중국의 중세기 전통적인 ‘화외질서’는 붕괴되었다. 둘째는 청나라는 ‘이아제일’의 방략을 실시하면서 점차 러시아의 ‘준보호국’이 되었다. 셋째 러시아가 ‘동진남하’ 정책으로 만주와 조선에 대한 세력이 확장되면서 러일 양국 간의 모순은 더욱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러시아의 동진남하정책과 일본의 대륙정책은 만주와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러일전쟁이 발발했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승전하고 서구열강들의 대열에 끼어든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고 또한 요동반도를 거점으로 점차 침략적인 야망을 만몽으로 확대해나갔다. 러일전쟁에서 청나라는 ‘국외중립(局外中立)’을 선포했지만 「포스모스 조약」에 의해 러일 양국에 더 많은 주권을 상실했다. 청나라는 ‘신정개혁’을 통해 무너져가는 국운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신해혁명’이 일어남으로써 동삼성총독 서세창이 만주에서 주도한 ‘신정개혁’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굴절되었다. ‘신해혁명’ 이후 만몽에 대한 일본의 침략야욕은 ‘만주사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만주국’이라는 국가형태의 식민통치를 수립했다.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 만주에 대한 청나라의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사적 교훈을 귀감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첫째, 서구열강들의 ‘서세동점’의 수단이 곧 힘의 논리를 원칙으로 하였다면 일본이 ‘동양의 맹주’로서 자리매김함에 있어서도 역시 전쟁도발을 통해 점차 ‘탈아입구’의 꿈을 이루려고 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약소한 민족이나 국가에게 있어서 외교라는 것이 곧 강자인 타자에게 합리적인 형식을 제공해줄 뿐이라는 점이다. 특히 외면적으로는 ‘동양평화’ 혹은 ‘원동안전’이란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내면적으로 자국의 권익과 세력을 확장하였던 것이다. 셋째는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동과정에서 파생된 역사문제는 당대 동아시아 국제정치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의 사실은 기억되어야 하고 절대 망각할 수 없다.



# 満洲はどう教えられたか

## —学校教育・満洲修学旅行を中心に

長谷川 怜 (학습원대학)

- |                                 |                        |
|---------------------------------|------------------------|
| 1. 満洲旅行 草創期                     | 6. 白鳥庫吉の満洲修学旅行参加と学習院教育 |
| 2. 満洲修学旅行の誕生                    | 7. 支那満鮮修学旅行のはじまり       |
| 3. 比較対象としての東亜同文書院 大旅行           | 8. その後の学生たち            |
| 4. 学習院学生と満洲教員視察旅行 ①概要           | 9. おわりに                |
| 5. 学習院学生と満洲教員視察旅行 ②学生たちの見た満洲・韓国 | 10. 今後の課題              |

### 報告概要

満洲・朝鮮半島中国という地域への勢力伸長は、日露戦後の日本にとって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しかし満洲経営には莫大な予算を必要としたため、国民からの賛同は不可欠であった。満洲を宣伝するために新聞や雑誌などメディアが利用され、また満洲に関する書籍の出版や講演会の開催なども数多く行われた。そして、さらには満洲を身近に感じさせ、政策への理解を国民の間に醸成させるために、全国の学校で満洲および朝鮮を訪問する修学旅行が実施されていた。学生たちが現地を見学し、日本の対外的進出の「成功」を感じれば、政策に対する将来的な賛成者となるからであった。

本報告では、日本が本格的な満洲への進出を開始した日露戦後期に焦点を当て、特に教育現場において新たな「勢力範囲」となった満洲がどのように教えられていたのかを検討する。その際、旧制学習院を分析対象としたい。

学習院は、1877年に創立された皇族・華族のための教育機関である。近衛篤磨が院長を務めていたことから東洋学（東洋史）の教育に力が入られ、学内にはアジアを中心とする様々な実物資料を収めた歴史地理標本室が置かれていた。また、白鳥庫吉や鈴木大拙といった東洋学の先駆者たちが教鞭を取っており、同時期の他の学校と比較すれば水準の高い教育が生徒達には施されていたといえよう。

さらに、学習院では満洲や朝鮮半島をめぐる海外修学旅行も実施し、学生たちに現地を見せることで日常の授業で得た知識を更に深めさせるようにしていたのである。海外修学旅行に参加した学生たちは、現地の歴史や習俗に驚き、またかつて日本軍の兵士が戦った日露戦争の戦跡で日本の「栄光」を感じた。日露戦争の戦勝により、一等国になったという意識が当時の日本

では一般的であったことから、満洲中には満洲や朝鮮半島の人々に対し蔑視のまなざしを注ぐ学生もいた。

このような学生たちの感想は、同時期に満洲への修学旅行を行った他の学校の学生たちとも共通するが、学習院の場合、卒業後に外交官や官僚・軍人などになる者たちが多く、学生たちは旅行先で日本の政策について批評したり、もし自分が満洲経営に携わるとすればどうするだろうか、という観点で様々に観察を行ったりした点が特徴的である。中には、満洲修学旅行をきっかけとして中国へ強い関心を持ち、外務省の中国研究員となった人物もいた。こうした人物がいたことは、修学旅行が満洲経営（大陸政策）の一部として有効に機能していたことを裏付け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

## 1. 満洲旅行 草創期

### ● 日露戦争の勝利＝満洲の勢力範囲化

・満鉄、その他企業の職員、満鉄附属地内の写真館や洗濯屋、貸し座席屋などが日本人の満洲進出のさきがけになったが大きな日本人コミュニティの形成は行われなかった

⇒ 満洲経営に対する国民の関心を涵養する必要性が生まれ、満洲旅行が利用された

・最初の満洲旅行（ツアー）は1904年に日本政府が開催した観戦旅行

⇒ ロシアから鹵獲した満洲丸（Маньчжурия）<sup>1)</sup>に新聞記者や作家、議員などを乗せ、国内の海軍施設や俘虜収容所、朝鮮半島、遼東半島近海を巡り、国内には参加者によって満洲・朝鮮の情報が伝えられた<sup>2)</sup>。

・メディア・イベントとしての満洲旅行

⇒ 1906年には朝日新聞が「満韓巡遊船」を主催<sup>3)</sup>。募集開始から3日で早くも定員以上の申込みが殺到した。軍や満鉄といった満洲経営に関わる組織は全面的な支援を実施。

## 2. 満洲修学旅行の誕生

### ● 契機…満韓巡遊船

⇒ 盛況振りを実感した陸軍は1906年6月、中学以上の生徒の満韓旅行には御用船の無

---

1) 1901年建造の旧ロシア帝国汽船。東清鉄道所属で大連～上海間などに就航しており、1904年2月の日露戦争勃発時に長崎で修理中だったことから、日本に鹵獲され満洲丸と改称された。大阪商船が運航を委託された。1906年より「満洲」と改称、日本海軍の通報艦として就航、1932年に撃沈処分。

2) 志賀重昂による『大役小志』(博文館、1909年)には満洲丸による観戦旅行の日記が収録されている。

3) 『東京朝日新聞』(1906年6月22日)において募集。



償乗船を認めると発表

- ・全国の学校で満韓修学旅行が実施されるように。同年中に約7000名が大陸へ<sup>4)</sup>。
- 1906年7月：文部省・陸軍省共同主催の「満洲教員視察旅行」  
⇒ 中等教育機関以上の学生・教員および小学校教員を対象、3,694名が参加。教育に大きな効果を発揮したと評価 【史料①】

### 3. 比較対象としての東亜同文書院 大旅行

- 一般の学校における修学旅行  
⇒ あくまでも現地を見る——日露戦争の戦跡や日本が経営する機関等を見学することによって「戦勝の偉大さ」や「日本の発展」を実感することに主眼  
⇒ 満洲経営という多額の予算を要する政策に対する将来的な賛成者を生むことが、満洲修学旅行の目的であったからであろう。それゆえ、満洲という地域へ対する学問的見地からの分析や研究は、修学旅行においては行われなかった。
- 本格的な調査・研究を目的とした満洲や中国での学生による旅行  
⇒ 東亜同文書院の学生たちが実施した「大旅行」
  - ・東亜同文書院は1890年に荒尾精が設立した日清貿易研究所のルーツを持ち、1901年に上海で設立された中国研究のための学校（院長根津一）
  - ・設立の翌年、外務省が学校に対して中国西北部でのロシアの南下政策の調査を依頼、OBによる調査団派遣が行われた。
  - ・以後、最終学年の学生たちが中国各地への調査旅行「大旅行」を実施
  - ・調査報告は卒業論文として提出、さらに『支那省別全誌』として出版（全18巻）
  - ・1920年代までは上海市の公安局から許可証を発行、各地でそれを提示することによって調査活動の保護が保障された。
  - ・治安の悪い地域では県長などの指揮下にある軍隊が護衛として付いた
  - ・1930年代以降、満洲国の「建国」をめぐる国民政府と日本の関係が悪化、上海公安局も当時は国民政府の隷下であったため許可証の交付が受けられず、大旅行の実施地域は満洲国内がメインとなっていった。

---

4) 「学校職員生徒満韓旅行ノ件」(1907年3月16日、「式大日記 明治四十年乾」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所蔵)。

#### 4. 学習院学生と満洲教員視察旅行 ①概要

- 最初の満洲旅行=1906年7月17日～8月11日「満洲教員視察旅行」
  - ・学習院中等学科・高等科から14名が参加<sup>5)</sup>
- 旅行ルート
  - ⇒ 東京～神戸～大連～旅順～奉天～撫順～安東県～京城～釜山～神戸～東京
  - 【参考地図参照】
- 旅行の様子
  - ・学生らしいセンチメンタリズム 【史料②】
  - ・日露戦争の戦勝の余韻に浸りながら満洲へ
  - ⇒ 航海の途中、日本海海戦が行われた海域を通過、船はその場所で「海上最大の祝賀法として行はるゝ円形廻転」
    - ・宿泊地「満州(ママ)館」…ロシア時代の建築を日本が引継いだ
    - ・旅順=学生に鮮烈な印象を与える日露戦争の「聖地」 【史料③】
    - ・気軽に戦跡巡りが出来るようになった「観光地」としての旅順ではなく、未だ戦禍の生々しさを体感する旅順探訪 \*危険性よりも「修学ニ裨益アル」ことが優先
  - 現地における学習院学生へのサービス
    - ・学習院を卒業した陸軍士官たちからの食事の招待（ビール、煙草）、本来は参観できない施設見学等 【史料④】

#### 5. 学習院学生と満洲教員視察旅行 ②学生たちの見た満洲・韓国

- 学生たちの感想、満洲・韓国へのまなざし
  - ・戦勝国であり外地を持つ帝国の国民意識
  - ⇒ “日本の発展の偉大さ”とでもいふべき優越感、中国・朝鮮に対する蔑視のまなざし
  - 我領土否居留地 愈新領土の土を踏む
  - 軒は傾き瓦落ちて清朝の現状に頗る似たる所あり（うらぶれた寺院を見た感想）

---

5) 高等科：加納久郎、酒井春雄、三島弥彦、華園真淳、柳生基夫、瓜生剛、板倉勝則、森訥郎。中等学科：松平定晴、酒井四郎、山本八十吉、小泉徳次郎、岡田忠一、原亮九郎。監督及学術指導職員：真崎誠(教授)、伊奈紋吉(武課嘱託：後備陸軍歩兵少尉)。学術指導職員：原田稔甫(教授)、大室兵馬(教授)、山田倉左郎(武課嘱託)。\*なお、白鳥庫吉(教授)は満洲における歴史的文物の蒐集を行うことを学習院より委嘱され、東京師範学校に同行して満洲へ赴いている。そのため、学習院枠での参加者名簿に白鳥の名前は無いが、道中のほとんどを学習院学生と共にし、帰国後の文集編纂の代表を務めている。

・満洲経営に携わるという意識

未来の外交家を以て任ずるの士は須く之れが研究を要さん（安東県における経営について）

・満洲経営への冷静な分析と観察

殆ど凡ての内地商品を網羅したれば能き広告所なれど、余等素人の眼より見るも、陳列の不整頓、意匠の支那向ならざる等、不備の点を発見するに難からず。されば士人の入場するもの多からざる模様なり（大連における商品陳列所見学の感想）

・日本式「オリエンタリズム」

動物の如き苦力は、所々に立ち列びて甜瓜を皮をも取らずして丸食しつゝ、馬食の快を貪り…

朝鮮市場に入れり…支那街に比すれば不潔の程度、道路の泥濘なるは清国の方甚しと雖も、其の店舗商業の規模等に至ては論ずるの価値なく、彼は生き之は死したり。…又韓人は清人の如く恥を忍び忍苦に堪ゆるの力に欠けたり。是れ清国が国家として貧弱なるも人種的に勢力あり、又有望なる所以なり

●1906年の旅行における学習院学生の意識の特徴

⇒ ①帝国意識・優越感、②将来の満洲経営に関わる者という自覚

・①は同時期の学生・教員と同じだが、②は学習院学生において顕著

## 6. 白鳥庫吉の満洲修学旅行参加と学習院教育

●白鳥庫吉と学習院の東洋学

・1888年に全国に先駆けて東洋史教育（時限名は東洋諸国歴史）を開始

・担当は東洋史学者・白鳥庫吉<sup>6)</sup>（担当時期：1890年～1921年）

・明治期に「歴史地理標本室」を設置 **【参考写真参照】**

⇒ 広開土王碑の拓本や古代中国の俑、近代に撮影された写真など多くの実物資料など<sup>7)</sup>

・標本室は関東大震災で被害を受け、ほとんどの資料が焼失したが、その後も精力的な

6) 東洋史学者の白鳥庫吉(1865-1942)は、帝国大学文科大学史学科を卒業し、1921年まで学習院教授を務めた(1904年より帝大教授を兼任)。東洋学の始祖として知られ、研究分野は歴史の範疇を遥かに超えて地理・民族・民俗・神話・伝説・言語・宗教・考古など、きわめて広い。東洋文庫設立に尽力したことも知られる。

7) 歴史地理標本室に関しては、長佐古美奈子「学習院における歴史教育の始まりと標本室」(『学習院大学史料館紀要』第19号、2013年)を参照。

収集と、関係者からの寄贈が行われ、再び層の厚いコレクションを形成、今日に至る<sup>8)</sup>

・学習院初等科に保管される「満洲物産標本」【参考写真参照】

⇒ 目で見る「大陸政策」

●白鳥庫吉の旅行参加

・教材収集という任務【史料⑤】

⇒ 東洋学の最先端の研究を行う白鳥に対する学習院の期待の大きさを示す

・白鳥は旅行の全行程を学生と共にしていない

鴨緑江の一支流冬佳江の上流地方に有る高麗の広開土王の事蹟を刻める石碑を発掘運搬するの計画熟したりとて、此に一行と別れ単独入韓の途…

⇒ この際に採取したと思われる拓本が現存

・奉天附近での瓦等発掘【史料⑥】

⇒ 旧制学習院における東洋学教育の質の高さは、白鳥に代表される著名な教授陣を迎えていたことに由来するが、こうした現地からもたらされた貴重な資料が教材として用いられていたことも、東洋学の水準を向上させる一要因となった

## 7. 支那満鮮修学旅行のはじまり

●正規の修学旅行のはじまり

・1918年、学習院主催の修学旅行が開始【参考写真参照】

・青島、済南、曲阜、北京、張家口、南口、天津、大連、旅順、奉天、平壤、京城、釜山

⇒ 青島は当時日本の占領下であり、新たな「領土」「外地」を見せるという意味

・参加者は、教員3名、医官1名、学生は5班に分割した35名、総数39名

・旅費は143円<sup>9)</sup>

・中国や満洲、朝鮮という日本と関係が深い地域の「地理風俗文物等ヲ視察調査」することが旅行の目的とされた<sup>10)</sup>

8) これらの資料は現在、学習院大学史料館に所蔵されている。実物資料に関しては、学習院大学史料館編『百聞ハ一見ニ如カズ—旧制学習院歴史地理標本室移管資料』（2013年）としてカラー写真入りの詳細な目録が刊行されている。

9) 1918年段階における143円の価値は、企業物価指数を用いた計算によれば(674.3 (2012年) ÷1.246 (1906年) ≒ 542)、現行価格で10万円前後となる。ただし、これは食事や宿泊など実費のみであり、船や鉄道の運賃は陸軍が負担したため含まれていない。

10) 「宮内大臣へ上申書」(1918年7月10日「大正七年雑件録」、学習院アーカイブズ所蔵)

● 鈴木大拙<sup>11)</sup>の参加

⇒ 白鳥庫吉が同行したように、東洋学を専門とする教授が学生の監督を務めるのがこれ以降も通例に

・学生への便宜供与<sup>12)</sup>

⇒ 旅行中は中国軍の軍人から招かれて食事を共にしたり、日本の領事館・公使館など関係施設を訪問したりと、単なる観光旅行ではなかった

● 学生たちの感想、満洲・韓国へのまなざし

⇒ ①中国・満洲・朝鮮に対する蔑視、②歴史的・文化的な興味・関心と親近感、③日本の施政に対する批評、に分類

①…1906年段階と同様に、現地の不潔さを嫌悪したり、現地の人々に蔑視を含むまなざしを注いだりしたことが分かる感想

②…学生の中には現地の人々と同じ目線を保ち、現地の雰囲気を感じようとする者が多数現れた。例えば松方義三郎<sup>13)</sup>、岩村英武の感想など **【史料⑦】**

③…いたずらに日本の満洲経営を称揚したり、優越感を持ったりはしていない。満鉄の運営や職員に対する意見などは辛辣。建て付けが悪く開きにくい車輛の窓の改善を指摘、列車運行の遅れとそれに対する社員の対応の悪さに批判を加えるなど **【史料⑧】**

⇒ 中国や満洲、朝鮮に対し、蔑視のまなざしを注いだ学生もいたが、現地の風俗や文化に関心を高めると同時に、中国・満洲への親近感を持つ者が多くなった

⇒ 満洲における日本人の傲慢さを批判的に捉えた

---

11) 鈴木大拙(1870～1966)。本名は鈴木貞太郎。主要著作に『禪の研究』があり、西田幾多郎と交流した。学習院では1909年(明治42年)から1921年(大正10年)まで教鞭を執り、その後、大谷大学へ赴任

12) 各組織には「御管内見学、視察ノ順序方法ノ御指示」、「宿舍ノ選定(可成御指定願度)」を共通して依頼し、またそれぞれ以下のように便宜供与を願い出ている。

青島民政署：「山東鉄道乗車ノ件」。済南総領事：「曲阜、泰安府見学旅行ノ御手配」、「支那銀兩替ノ件」、「津浦鉄道乗車ノ件」。北京公使館：「支那宮殿又ハ離宮等見学ノ手続」、「南口宿泊ノ件」。天津総領事：「大連渡航乗船ノ件」。満鉄理事：「撫順見学ノ件」。関東都督府：「御管内視察、戦跡見学ノ順序方法ノ御指示」。奉天総領事：「旧宮殿又ハ北陵見学ニ関スル御手配」。朝鮮総督府：「総督府、景福宮等拝観ノ御手配」。三井物産(張家口出張所・天津支店)：「張家口、南口間鉄道乗車ノ件」。支那駐屯軍：「可然便宜(具体的内容は記述なし)。

13) 松方義三郎〈三郎〉(1899～1973)は、松方正義の息子で登山家、日本ボーイスカウト第六代総長として知られる。1928年に満鉄に入社し、東亜経済調査局に勤務している。

## 8. その後の学生たち

### ● 修学旅行の「効果」

・海外修学旅行は参加した学生たちの思想や将来にいかなる影響を与えたのか  
⇒ 学生たちは、将来自らが満洲経営や中国政策に関わるであろうことを意識していた

### ● 水野勝邦<sup>14)</sup>の中国研究

・1925年の旅行に参加、旅行を契機として中国研究の道へ【史料⑨】  
・「支那哲学」を専攻、学習院と帝大での恩師である塩谷温<sup>15)</sup>の世話で外務省派遣員  
・1932年からは北京の西城屯絹胡同に居住、外務省留学生の身分を経て、北支那開發会社調査局、天津の化学工業会社に属す。現地では、語学の習得のほか、「支那全般予備知識」、「支那上代史蹟」、「国際都市トシテノ上海」、「支那思想問題」、「香港ニ於ケル支那勢力」などのテーマに取り組み、日中の往復回数は48回に上った。1938年に外務省在支特別研究員に選定された際の研究テーマは「現代支那文化ト社会経済思想」であり、研究員として蒙古地方をはじめ、各地に調査旅行を実施。戦後は私立大学で中国経済を講義するなど、終生中国研究に携わった<sup>16)</sup>

⇒ 水野のように、修学旅行を契機として中国研究や日本の政策に関与した例は特殊だが、人材育成や日本の大陸政策への理解を深めるといふ海外修学旅行の本来の目的を体現した人物を学習院が輩出した。

## 9. おわりに

満洲へ出かけた旧制学習院の学生たちは、1906年の段階では、同時期に満洲旅行へ出かけた教員や他学校の学生たちと同様、露骨な帝国意識を露わにし、満洲（中国）や朝鮮の人々へ蔑視のまなざしを注いだ。一方、将来の外交官・政治家、議員あるい

---

14) 水野氏は知多半島を中心に戦国時代に領地を拡大し、織田・徳川と結び幕末には下総結城藩、出羽山形藩などの藩主を輩出した家柄で、勝邦は水野宗家19代当主。1928年学習院より東京帝国大学文学部へ。外務省より中国派遣、専修大学教授、拓務省・大東亜省委員、外務省在支特別研究員。父親は水野直(貴族院研究会所属)。1904～1988。

15) 塩谷温(1878～1962)は漢学者、東京帝大漢学科を卒業後、母校で教授を務め、ドイツや中国で研究活動を展開した。1904～1906、1923～1941に学習院で漢文や作文を教授した。

16) 「水野勝邦」(在華本邦特別研究員関係雑件 外交史料館所蔵B-H-05-07-00-06-02-00-03)、水野勝邦「私と中国(旅の思い出)」(1973年 上田和子氏蔵)。

は軍人になるでことを自覚する彼らは、将来的に満洲経営に携わるという意識を持ちながら冷静に現地を観察することも忘れなかった。こうした点は、学習院の学生に特徴的なものである。

ところで、明治期の事例から確認することのできた帝国意識や蔑視は、大正期の修学旅行の際にはそれほど濃厚ではなくなっていく。むしろ、現地の風物や歴史（「支那劇」への関心や宗教に対する興味など）に対する知的好奇心が学生の中でそれ以前より強くなっていった。日露戦後に開始された満洲経営が徐々に安定し、また韓国併合を経て、露骨な帝国意識というものが日本人の間で普遍性を持つようになるに従い、日本の発展・拡大をいたずらに煽る言説が、国内のメディアなどでも減少していくことに比例しているといえるだろう（現在の勢力範囲・植民地の経営安定が議論の中心へとシフトする）。

1906年の旅行に限らず、参加する学生は数名～十数名とごく僅かであるが、報告書（校友会雑誌『輔仁会雑誌』）の出版や、学内における講演会（報告会）・展覧会の開催によって経験や知識は共有されていた。この点において、海外修学旅行は学習院の学生のほとんどに影響力のある行事だったといえる。ただし、現在の高校生にあたる学生たちが行った旅行であり、正確な研究成果が旅行後に提示されるものではなかった。その点で、外務省への情報提供を行ったり、調査内容が刊行されたりした東亜同文書院の大旅行とは影響力の点では比較するべくもない。

しかしながら、修学旅行を契機として中国研究の道を選択し、日本の外交政策にも関与した人物がいたことは、修学旅行が満洲経営（大陸政策）の一部として有効に機能していたことを裏付けているといえよう。こうした人材を育むことこそが、満洲修学旅行を奨励して援助を行った政府や陸軍などが目指したものであったからである。

満洲・朝鮮・中国という地域への勢力伸長は、日露戦後の日本にとって最も重要な課題であった。これら地域に対する各種の政策―大陸政策―は日本のいわば国是となったが、いかにして国民に理解させるか、は重要な課題であった。遠く離れた満洲・朝鮮を身近に感じさせ、政策への理解を国民の間に醸成させるために、修学旅行は大きな役割を果たした。

## 10. 今後の課題

修学旅行に際して各種の便宜を与えた陸軍や外務省など、関係機関が、修学旅行そ

のものにどのような効果を期待していたのか、またおそらく多額の予算を要してまで無償輸送を提供したり、現地での歓待を行ったりした意図はどこにあるのか、といった点は史料からの裏づけが必要である。

また学習院に関していえば、白鳥庫吉や鈴木大拙といった学者・教育者による東洋史や歴史・地理教育の具体的内容についてもより詳しく調査すべきであろう。同様に水野と塩谷との関係、水野と同期生だった張燕卿との関係など、学習院の在學生でありかつ大陸政策や日本の満洲経営に携わった人物の関係性（人脈）を明らかにすることも必要とされる。【参考写真参照】

本報告に当たり、尚友倶楽部・上田和子氏、学習院大学史料館・長佐古美奈子氏、学習院アーカイブズ・桑尾光太郎氏にお世話になりました。

---

1) 一般的な修学旅行でありながらも、満洲経営にかかわる人材を多く輩出した学校として旧制学習院を挙げることができる。この事例については、拙稿「学生たちの見た満洲——旧制学習院の満洲修学旅行」(2014年記載予定)を参照。



## 史料編

\* 史料引用に際しては旧漢字を常用漢字に改めた他は原文ママとした

### 【史料①】

牧野伸顕（文部大臣）より寺内正毅（陸軍大臣）宛「諸学校職員及生徒等満韓地方旅行ニ関シ挨拶ノ件」（1906年9月12日、「明治三十九 満大日記 九月上」、防衛省防衛研究所図書館所蔵）

多大ノ便宜ヲ与ヘラレ御厚誼ニ抛リ右旅行ノ目的ヲ達成シ、教育ニ不尠裨益ヲ得候段、感謝ノ至ニ不堪候。

### 【史料②】

『満韓旅行紀念号』（『輔仁会雑誌』別冊1907年）55ページ

出征軍人に似て勇ましき事限なし。然れども、彼は満洲の野に死せんとして行き、我は生きんとして今満洲の空に赴くなり

### 【史料③】

『満韓旅行紀念号』、69ページ

砲弾雨注の下に此の上を登り、肉と血とを以て此の地を占領せる同胞の功や只偉大の二字を以てするの外言ふ所を知らず…

…毛髪の付きし頭蓋又は手足の白骨など累々として草に埋れ…（203高地）

### 【史料】

文部省「旅行心得」「学習院重要雑録 明治三十九年」所収 学習院アーカイブズ所蔵

不発弾、鉄葉(ママ)製手投弾（罐詰ノ空罐ヲ利用シタルモノアリ）等ヲ発見シタル場合アルモ、之ニ手ヲ触レシムヘカラス

### 【史料④】

長谷川男爵（韓国駐劄軍司令官）へ礼状案」（1906年8月16日、「学習院重要雑録 明治三十九年」所収 学習院アーカイブズ所蔵）

当院学生満韓地方へ修学旅行ノ際、京城滞留中、学生ニ多数ノ麦酒及巻煙草ヲ贈与被下一同感謝仕候

【史料⑤】

1906年7月11日 学習院長山口銳之助より宮内大臣宛稟申案（自明治廿八年 至同四二年 重要雜録 学習院アーカイブズ所蔵）

学習院教授白鳥庫吉

右ハ今回滿韓地方へ旅行ノ儀、御聽許相成候ニ付テハ、此機ヲ以テ本院教課上ノ必要ヲ充テン為滿韓地方歴史上参考品ノ蒐集ヲ囑託致度、就テハ其手当トシテ金百五拾円給与致候儀、御認可相成度此段稟申候也。

【史料⑥】

1906年10月25日 院長より白鳥宛文書「明治卅九年 同四十年 教務録」（学習院アーカイブズ所蔵）

古瓦壺枚漢時代製奉天附近ニ於テ発掘

右ノ品本院ニ御寄附被下辱ク領収致候。永ク保存シテ参考ニ供スヘク候。此段御挨拶候也。

【史料⑦】

『輔仁会雑誌』（第106号、1918年12月）

真の蔽はれない支那…（中国を）親はしい

北京で喇嘛寺を見てから、ひどくそれが好きになった…喇嘛寺の濃厚なのに反して、回教寺の極めて単純に清粗なもの自分は好きになった。…アラビア文字が実に気に入った。

僕がもし未だ小さい子供であつたら、きつと支那からは帰らない。満洲に自分は残るのだと云つて駄々を捏ねるでもあらう。…自分はたまらなく支那を去るのが厭だつた

【史料⑧】

同上

一体満鉄の経営は半官であり、且つ満洲には全く満鉄のお陰で食べてゐる者多く、加ふるに、殖民地に多い下等な人間相手が多いためでもあらう、どうも従業員の末輩までが内地では既に腐つてしまつた御役人風を吹かし勝ちである

【史料⑨】

水野勝邦「私と中国（旅の思い出）」（回想録、1973年 上田和子氏所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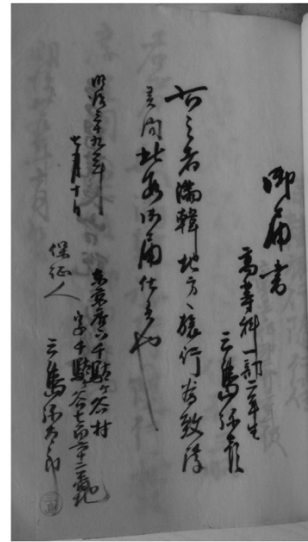
大正十四年夏、学生の身分で満蒙旅行をいたしました。その時は別に目的もなく、たゞ何故にロシアとこゝで戦ったのであろうか、戦後日本はどんな住営をしているのかの二点と、中国を身をもって触れてみたかったのです。…強い感銘をうけたのです。…この旅行から中国と取り組む決意を持ちました。それからは、事に臨み、考えるのに常に中国研究を前提とし…

参考写真・地図



旧制学習院の海外修学旅行関係地図

学生たちの訪問した都市を示した。 \*一部便宜的に記入した都市名も含む



三島弥彦の旅行願(三島弥太郎筆 1906年)  
1906年の旅行参加にあたり学生の親(保証人)が学校宛に提出した書類



歴史地理標本室(満洲関連の標本:大正初期)  
満洲族の服や生活道具など様々な標本が集められていたことが分かる。これらのほとんどは関東大震災で灰燼に帰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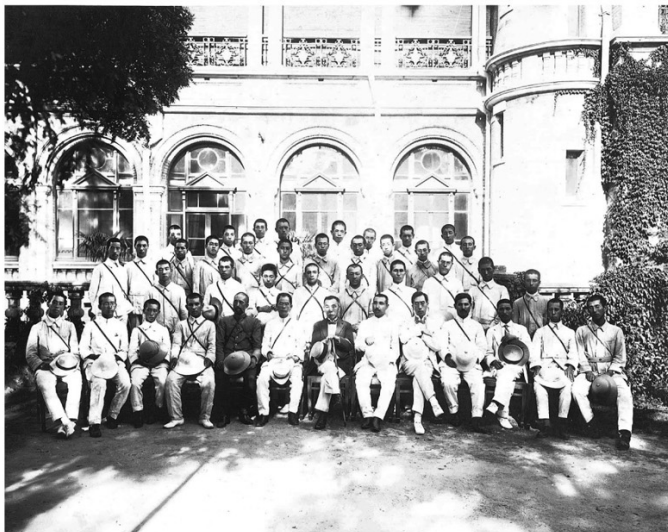
学習院女子部における東洋史の授業風景(大正初期)  
掛図を用いて授業が展開されている。ちなみに最前列には皇族(梨本宮方子)が座っている。

年	行き先	参加者数
1918年	青島、済南、曲阜、北京、張家口、南口、天津、大連、旅順、奉天、平壤、京城	教員3、医官1、学生35
1919年	ウララフストク、ニコリスク、ハバロフスク、哈爾濱、長春、敦化、奉天、安東、新義州、平壤、開城、京城、釜山	不明
1920年	基隆、嘉義、台北、淡水港、台南、角板山	教員1、学生3
1921年	不明	不明
1922年	青島、済南、曲阜、泰安、北京、大同、石仏寺、天津、大連、旅順、奉天、新義州、京城	教員1名、学生6名
1923年	不明	不明
1924年	アレクサンドルポ、ルイコス、真岡、多摩谷、曹原、川上旗山、小沼、大沼、柳井、堀川、柳広、札幌、苫小牧、支那城、白登、寧羅	教員1、学生13
1925年	大連、旅順、鞍山、奉天、舞陽、沈陽、鄭家屯、公主嶺、長春、哈爾濱、安東、平壤、京城、釜山	教員1、学生6、OB1
1926年	基隆、台北、桃園、角板山、台中、二水、嘉義、阿婆山、台南、高雄、屏東、屏東、屏東	教員1、学生3、OB1
1929年	釜山、京城、元山、長野、温井里、平壤、奉天、撫順、長春、哈爾濱、大連、旅順	教員1、学生14
1942年	釜山、京城、平壤、奉天、大連、旅順、撫順、公主嶺、新京、哈爾濱、北京、孫良、牡丹江、図們、龍津(張鼓峰)	不明
1906年	大連、旅順、奉天、京城 [満洲教員視察旅行]	教員6、学生14

旧制学習院の海外修学旅行一覧



満洲物産標本(学習院初等科蔵)  
大豆や高粱、塩、小麦粉、セメントなど満洲(関東州)の物産が収められている。大正後期頃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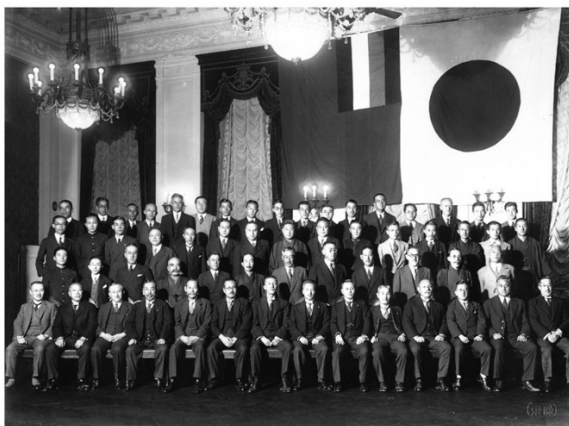
第1回海外修学旅行記念写真  
1918年の修学旅行において北京公使の林権助に招待され、公使館で撮影したもの。前列中央のステッキを持つのが林。その左が鈴木大拙。撮影者は山本謙七郎。



華北校友会（上田和子氏蔵）  
1941年に北京で開かれた華北校友会（学習院の同窓会）の写真。後列左から2人目が水野勝邦。また、前列右端には張燕卿（満洲国実業部大臣、新民会副会長）が写るなど、満洲・中国政策と密接に関わった人物が多く学習院にいたことが分かる。



北京水野公館（尚友倶楽部蔵）  
1941年に行われた貴族院議員華北視察皇軍慰問の際、北京の水野公館で撮影されたもの。左より、水野勝邦、丸山鶴吉、柴田兵一郎、宍戸功男。



張燕卿歓迎晩餐会（尚友倶楽部蔵）  
1933年に華族会館で開かれた張燕卿の来日歓迎晩餐会。水野勝邦や塩谷温も写っている。



# 论义和团运动时期维特的满洲政策

張 麗 (요녕사범대학)

- |            |                  |
|------------|------------------|
| 一、反对出兵护路   | 三、寻求经济补偿解决满洲善后问题 |
| 二、敦促沙皇出兵东北 | 四、维特满洲善后政策的外交实践  |

## 内容摘要

在义和团运动时期，俄国远东政策的缔造者维特先是反对出兵护路，后随着东北局势的演变又敦促沙皇出兵东北。义和团运动被扑灭后，维特反对占据北满部分领土，反对在满洲留兵护路，提出了以寻求经济补偿为主的满洲善后政策，并亲自参与了中俄第一次交收东三省谈判。但由于杨儒最终拒绝在俄方修改后的协议上签字，中俄第一次交收东三省谈判失败，维特的满洲善后政策也遇到了严重挫折。

**关键词：**义和团运动时期、维特、满洲、东北亚国际政局

19世纪末20世纪初中国爆发了一场声势浩大的义和团反帝爱国运动，严重威胁了帝国主义的侵华权益。1900年6月中下旬英、法、俄、美、德、日、意、奥八国以保护使馆、代为剿匪为借口联合侵略中国。帝俄不仅参加了列强在京津地区的共同侵略行动，而且还以保路护侨为借口于7月下旬兵分五路，大举入侵东北。在义和团运动时期，帝俄远东外交政策的缔造者、财政大臣维特的满洲政策对中俄关系产生了重大影响，也对东北亚国际政局产生了深远的影响。本文拟对义和团运动时期维特的满洲政策作一些探讨，以便客观地考量俄国满洲政策的历史渊源及其对日韩日俄四国关系的历史影响。

## 一、反对出兵护路

1900年6月中旬以后义和团在奉天出现并迅速起来，此时正是中东铁路及其南满支线紧锣密鼓的建设时期。愤怒的团民在奉天省城及铁路沿线烧教堂、扒铁路、拆桥梁，严重威胁了俄国在满洲的权益。

中东铁路是维特远东外交政策的最重大成果，也是俄国最重要的利益之所在，所以义和团在铁路沿线的出现引起了他的极大关注。如何应对满洲的局势呢？军方分别于6月

20日和22日请求在关东州和阿穆尔边区宣布军事动员。而维特在7月9日之前，则试图利用中东铁路护路队并压迫东三省地方当局自行镇压义和团来保护正在建设中的铁路，还不打算出动正规军来保卫铁路。

他于6月14日通知旅顺口海军上将阿列克谢耶夫：没有财政部或中东铁路建设当局的特殊请求，既不能向满洲也不能向中东铁路路区派出军队<sup>1)</sup>。6月16日他电示中东铁路总工程师尤戈维奇：鉴于中国之民乱，须采取一切措施，避免造成与地方居民发生冲突的口实<sup>2)</sup>。俄国宣布军事动员后，东三省将军也开始进行相应的军事部署，局势骤然紧张，但维特仍于6月25日致电忧心忡忡的尤戈维奇，安慰他说：只有中国决定与俄国开战时，对于铁路，才可能构成唯一的危险；否则，筑路的条约不可能遭到破坏。相反，在一旦需要时，各位将军及其军队将会出兵保护铁路<sup>3)</sup>。6月29日在得知阿穆尔总督格罗杰科夫意欲立即出兵哈尔滨的消息后，维特坚决请求陆军大臣致电格罗杰科夫，要求他绝对不能出兵满洲<sup>4)</sup>。7月1日维特再次重申不经财政大臣要求军事部门不能向中东铁路区域派出军队<sup>5)</sup>。

当然，这并不意味着维特没有意识到铁路面临着危险，相反，作为中东铁路的直接缔造者，他比任何人都关心铁路的安全，他之所以要铁路当局保持克制，请军事部门在未得他命令时不得出兵进占路区，是因为一方面不想在铁路尚未完工之时冒损害现有俄中关系的风险，另一方面他认为铁路仅仅处于拳民的威胁之下，还可通过别的方式来保卫铁路。实际上，在指示俄国租界和铁路当局保持克制的同时，维特也在积极筹划保护铁路安全的办法。他的办法主要有二种：

第一，打算通过扩充中东铁路护路队的方式来壮大与正规军不同的护路力量，自行保护铁路，为此多次紧急要求扩充中东铁路护路队。6月15日维特奏请将护路队的人数由最初的5000人增加到6000人，6月29日又奏请增加到7000人并配备炮队，7月4日他又根据前往满洲考察铁路护卫情况的边防军独立部队司令萨哈罗夫的报告，奏请将护路队扩充到11000人<sup>6)</sup>。

---

1)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С.112.

2) [俄]В.В.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16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3) [俄]В.В.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110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4)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С.112.

5)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С.112.

6)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С.111.



第二，通过多种途径向中国东北地方当局施加影响和压力，促使他们自行靖乱，维持路区秩序，并保卫铁路财产和人员的安全。

首先，他通过中东铁路总工程师尤戈维奇和俄国外交部，就俄国在直隶地区的军事行动和在阿穆尔边区进行的军事动员向东北地方当局做出解释，希望消除后者对此产生的疑虑，在东北地区继续维持从前的合作关系，从而达到保护中东铁路的目的。他请外交大臣拉姆兹多夫指示阿列克谢耶夫向东北三将军说明俄国对中国是友好的，俄国并不打算对中国宣战，俄军在北京附近的军事行动是为了帮助中国镇压叛乱并支持中国的合法政府，同时威胁说破坏中东铁路的行为将引起严重的后果。尤戈维奇也奉命向中国地方官员解释说：“阿穆尔边区的军事动员并不是为了进攻中国，而是为了在必要的情况下保卫中国及其政府的领土完整和主权独立。”<sup>7)</sup>

其次，通过驻俄公使杨儒来向地方官员施加压力，以便保卫中东铁路的安全。6月27日维特当面告诫杨儒：“中国现在满洲一带备兵，似有占据铁路之意，工程师役避至牛庄，人心惊惶。都中匪焰方炽，俄意在助剿，不欲开衅，若铁路有急，势不得不调兵护守，以保路工。参崴、旅顺现均屯有重兵，征调甚速，倘进据满洲，恐各国亦将进兵他省，后患无穷。”他请杨儒转电盛京将军增祺“力保路工员役，切勿动兵，免开边衅”。<sup>8)</sup>

同样希望避免俄国出兵东三省的杨儒立即将此消息电告增祺，嘱其力保铁路，以免引起后患。同时又电告张之洞“已切电增帅，阻其暂勿造次，乞诸公再致切电，以尽众力。”<sup>9)</sup>表明杨儒试图借助于张之洞等人的威望，敦促朝廷和东北三将军保护中东铁路。

最后，维特还利用自己与李鸿章的私人关系，请他出面敦促东北地方当局采取措施预防路区发生骚乱，并保障铁路安全。6月28日，维特致电李鸿章一方面表示：“现因无从径与本国驻使及贵国政府接洽办事，不得不请贵大臣垂念旧交，径饬满洲东省铁路沿途各地方官，禁乱民毁坏铁路、伤害工役，并照常帮助一切”；另一方面又警告说：“倘乱民或官兵毁坏铁路、伤害工役，俄国势必派兵保护人民及此数百万金工程。”<sup>10)</sup>

以上史料充分表明，1900年6月当义和团刚刚出现于南满、零星破坏铁路时，维特并不打算直接出兵东北，他指望通过扩充中东铁路护路队来维护铁路的安全，更指望通过中国地方当局来镇压拳民骚乱，保护俄国的既得利益。

7)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 С.113.

8)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资料编辑组《杨儒庚幸存稿》，第105页。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0年。

9)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资料编辑组《杨儒庚幸存稿》，第126页。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0年。

10)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资料编辑组《杨儒庚幸存稿》，第106页。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0年。

## 二、敦促沙皇出兵东北

维特所采取的上述措施并没有奏效，虽然7月4日中东铁路总工程师尤戈维奇从哈尔滨电告财政大臣：满洲三将军保证，如果俄国人不采取积极军事措施，他们也将保证在满洲的俄国臣民和铁路的安全<sup>11)</sup>，但是自6月末以来破坏铁路、攻击铁路员工和护路队的事件却依然频频发生，而且规模越来越大，令维特感到不安的是：不仅义和团越来越活跃，而且从7月初开始部分东三省的军队也站到了义和团一边，参与了破坏铁路和袭击护路队的行动。

7月5日之前，铁路和护路队当局一直把破坏铁路和袭击护路队的行为当作是局部事件，认为“在目前情况下，派兵来哈乃是不适时宜之措施，它可能导致破坏路方和中国百姓、中国士兵以及行政当局目前之和睦关系，并造成极为不良的严重后果。”<sup>12)</sup>但7月7日在接到中国军队袭击铁岭车站的报告之后，尤戈维奇和中东铁路护路队总司令格尔斯格罗斯联合致电财政大臣，请求立即出兵护路<sup>13)</sup>。7月8日盛京、吉林、黑龙江三将军致电尤戈维奇，要求俄国撤离武装人员和铁路职员，以避免引起敌对行动；建议尤戈维奇下令将铁路财产交由中国官府保管，待秩序稳定之后，再重返施工<sup>14)</sup>。尤戈维奇一面复电强硬声称：“铁路乃是依据俄中两国皇上之协议而兴修的。设若该协议应有何更改，须由两国大臣事先就此进行磋商，而盛京将军与本人，即路方总工程师则无此权力。”希望盛京将军“立即以本省之兵力戡平暴乱，消灭袭击铁路之暴徒，使俄国人能安然继续其工程。”<sup>15)</sup>并挑衅性地提出：“如盛京将军力所不及，则应求助于友好之俄国政府，也即求援于驻旅顺口之关东省部队总司令。”<sup>16)</sup>一面将东北三将军的来电转告财政大臣，请求立即派兵支援。

来自铁路总工程师和护路队总司令的报告表明，维特先前采取的保护铁路措施已经遭到失败，在指望通过铁路护路队和东北地方当局镇压拳民、保护铁路的希望破灭后，维特于1900年7月9日奏请沙皇立即从乌苏里方向沿松花江派兵入侵中国，7月20日又奏请从满洲西部边界增派援军，建议不要吝惜因采取军事行动而耗费的资金和付出的牺牲，“损失金钱总比失去威信要好”，认为目前所面临的“主要不幸在于我们没有准备：西伯利亚大铁路尚未完工，中东铁路也根本没完工，我们又没有商业船队”，中国并不可怕，“中国如同过去一样衰弱，只是武器装备好了一些。如果我们在当地拥有10至15万

11) [美]安德鲁·马洛泽莫夫《俄国的远东政策1881-1904》，第151页。北京：商务印书馆，1977年。

12)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39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13)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40—341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14)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43—344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15)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44—345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16)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44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军队，就会把它打个粉碎。”<sup>17)</sup>

这一立场与维特此前所持的克制态度截然相反。为什么7月9日以后维特态度会发生骤变呢？一般认为是由于“义和团运动直接威胁到俄国在东北的侵略势力”<sup>18)</sup>。俄国在东北的侵略权益受到威胁这的确是促使维特出兵的根本原因，然而是什么因素真正使维特感到俄国的利益受到了威胁呢？是义和团运动吗？

应该说，义和团运动蔓延到满洲特别是南满，虽令维特感到不安，但更让维特担忧的、促使他最终转到敦促沙皇出兵东北立场上来的主要因素有两个：

一是满洲官方军队不仅没有去镇压义和团“暴乱”，反而支持甚至参加了义和团破坏铁路、袭击中东铁路护路队的行动。

从7月初开始盛京部分军队在副都统晋昌率领下站到了义和团一边，不仅与拳民共同攻打教堂，而且参与了破坏铁路和袭击护路队的行动。根据盛京户部侍郎清锐7月5日的奏章，7月2日义和团在奉天省城德盛门外攻击法国教堂时，遭遇抵抗，“经我兵协助，拳民乃得夺入教堂”<sup>19)</sup>7月16日清锐又奏：“自六月初六日<sup>20)</sup>焚毁教堂之后，连日拳民与官军在省城南北两路拆毁铁路，攻击洋兵，尚称得力。”<sup>21)</sup>盛京将军增祺7月14日奏称：“自初八日<sup>22)</sup>以后，育军统领云海、承顺等会合拳勇，在接官厅等处与俄兵接仗，遂将其铁路先为烧断……卜三家子洋城，亦经拳勇、育军、奉军合攻破焚。”<sup>23)</sup>这里提到的育军、奉军都是盛京的官方军队。7月5日盛京车站报告说：“中国士兵约二千五百多人正在车站两面砍倒电线杆，烧毁桥梁，拆毁铁路；……双方正在车站交火”。<sup>24)</sup>7月6日由盛京开赴铁岭的清兵向铁岭车站发动了进攻<sup>25)</sup>。

得知官军加入义和团频繁冲击铁路、攻打护路队的消息后，中东铁路总工程师尤戈维奇立即将此电告财政大臣，他在7月6日、7日、8日、9日的电报中多次请求火速出兵前来支援，他说：目前，需要考虑的已不是义和团之乱，而是将军们背信弃义的政策，其中盛京将军，或那些现时正在指使他的人物，已公开派自己的部队反对筑路，而另两位将军亦干脆声称不能为其军队担保<sup>26)</sup>。因此请求彼得堡和哈巴罗夫斯克火速从松花江上

17) Письмо С.Ю.Витте к Д.С.Сипягину // Красный архив 1926.Т.5. С.32—33.

18)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研究所《沙俄侵华史》第四卷上，第238页。北京：人民出版社，1990年。

19) 故宫博物院明清档案部《义和团档案史料》上册，第247页。北京：中华书局，1959年。

20) 公历7月2日。

21) 辽宁省档案馆，辽宁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东北义和团档案史料》，第11页。沈阳：辽宁人民出版社，1981年。

22) 公历7月4日。

23) 辽宁省档案馆，辽宁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东北义和团档案史料》，第9页。沈阳：辽宁人民出版社，1981年。

24)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32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25)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33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和从尼科利斯克派军来哈，否则“我们在满洲之事业将遭到不可挽回之损失……” 27)。

根据这些最新情报，维特断定东北的官军不仅没有保护铁路，反而已经公开站到了义和团一边进攻铁路，俄国在满洲面对的将不是拳民的威胁，而是中国政府军的威胁，只有出动正规军才能解除威胁，保护铁路。于是便于7月9日奏请沙皇出兵东北。他在说明出兵的理由时写道：“最近三天来我收到了来自中东铁路的越来越多的令人不安的电报，从这些电报中我认为义和团的人数迅速增加，而且中国军队已经公开站到义和团一方。他们开始对铁路护路队和铁路职员展开猛烈的进攻，虽然这些进攻被击退，但是骚乱在进一步扩大。” 28)

二是维特从来自满洲的报告中看到清兵之所以破坏铁路与俄为敌，是因为奉了中央政府和东北三将军的指令，在此情况下，已经不能指望通过他原来所设想的方式保护铁路，只能立即出动军队。

大沽之战后，清政府决心抵抗外来干涉，6月21日发布宣战上谕之后，又多次谕令东北三将军招抚义和团民积极备战。6月23日指示增祺“迅速招集义和团民，厚我兵力，籍御外侮。”在东北地区清政府所面临的外侮显然就是沙皇俄国。同日又令“增祺、长顺、寿山分练义和团民，以资战守。” 29)7月2日，黑龙江将军行营营务处总理程德全电告中东铁路一主管工程师：“已接到命令对所有那些未撤出边界的俄国人发动攻击。” 30)程德全显然也是根据上司寿山和中央政府的命令才有此言的。此后，正是根据朝廷的旨意，盛京将军增祺一面调动军队赴熊岳、海城一带冲要之处布防，一面敦促吉林将军长顺协同行动。7月5日他致电长顺要求其烧毁铁路，支持拳民。他在电报中称“铁路系三省心腹患，宜先烧毁，再与拒仗。不日当即开仗，速招拳民为战守计。”又电告：“奉旨联络拳民，无论何国，皆应痛击。敝处已开仗，拳民得力，俄退至辽阳界外，势已决裂，速进兵截贼路” 31)。主张保护铁路的长顺虽认为“增祺此举，未免鲁莽” 32)，但因朝廷有联络义和团籍御外侮之令，也不得不将“凡能练义和拳者，悉募入伍。一切营制饷章，悉照防军十成章程办理。” 33)

所以，根据清政府的上谕以及东北地方官员当时的行动可以断定，在顽固排外势力

26)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47—348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27)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纪略》，第347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28) Материалы для опис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Китае в 1900-1901. Отдел. I. К. I. С-Петербург г. 1902. С. 60.

29) 故宫博物院明清档案部《义和团档案史料》上册，第200页。北京：中华书局，1959年。

30) 胡滨译《英国蓝皮书有关义和团运动资料选译》，第135页。北京：中华书局，1980年。

31) 辽宁省档案馆，辽宁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东北义和团档案史料》，第677页。沈阳：辽宁人民出版社，1981年。

32) 故宫博物院明清档案部《义和团档案史料》上册，第248页。北京：中华书局，1959年。

33) 故宫博物院明清档案部《义和团档案史料》上册，第252页。北京：中华书局，1959年。

把持下的清政府已经完全将俄国置于自己的对立面。不幸的是清军以及义和团在攻击铁路和护路队的过程中经常败退，7月6日在铁岭附近的战斗中，护路队缴获了朝廷命令地方军队与义和团联合起来共同驱逐西方人的上谕。<sup>34)</sup>7月8日尤戈维奇致电财政大臣说：“我们于铁岭一带截获了中国皇帝关于驱逐俄国人之谕旨以及让官军帮助义和团作乱之敕令。”<sup>35)</sup>此事对维特影响极大，他在7月9日要求出兵东北的奏章中写道：“今天中东铁路总工程师电告，在铁岭截获了一份中国皇帝的上谕，其中命令军队加入义和团，将俄国人赶出中东铁路。我认为在此情况下必须尽快从哈巴罗夫斯克向哈尔滨派出军队”<sup>36)</sup>。显然，这是促使维特态度发生转变的又一个重要因素。

上述两点使维特确信，正是清政府对俄国在满洲扩张所采取的敌视态度以及中国军队参与义和团活动的行为，严重威胁了俄国在满洲的既得利益，在这种情况下只有出动正规军才能解决问题。由此也可以断定维特出兵满洲实质上是与中国政府进行战争，而不是如他自己及沙皇政府所宣传的是为了帮助中国平定拳民暴乱。俄罗斯学者达岑申也认为“与其说俄国在满洲是为反对义和团而战，毋宁说是为了反对中国政权及其军队而战。”<sup>37)</sup>

7月下旬俄国兵分五路，大举入侵东北，中国军民虽英勇抵抗但最终失败。1900年10月16日俄军占领整个中东铁路沿线并全面控制了东三省的局势。

### 三、寻求经济补偿解决满洲善后问题

出兵占领满洲和义和团运动被扑灭之后，如何解决满洲问题、维护中东铁路的安全呢？维特既反对占据北满部分领土，也反对在满洲留兵护路，主张以寻求经济补偿的方式来善后。

据维特回忆录记载，陆军大臣库罗帕特金在刚刚得知义和团运动爆发消息时就提出要把满洲变成俄国的第二个布哈拉<sup>38)</sup>。在满洲善后问题上，他反对完全从满洲撤军，坚持以相当数量的军队来保障中东铁路的建设，主张即使在铁路全线通车投入运营之后俄

34) [美]乔治·亚历山大·伦森《俄中战争—义和团运动时期沙俄侵占中国东北的战争》，第90—91页。北京：商务印书馆，1982年。

35) [俄]B.B.戈利岑《中东铁路护路队参加1900年满洲事件记略》，第342页。北京：商务印书馆，1984年。

36) Материалы для описания военных действий в Китае в 1900-1901. Отдел. I. К. I. С-Петербург г. 1902. С. 60.

37) Дацышен Владимир Григорьевич. Русско-китайская война в Маньчжурии 1900-1901 гг. Диссертация на соискание ученой степени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Иркутск., 1995. С. 149.

38) Из архива С.Ю.Витте воспоминания. Т. I. Рассказы в стенографической записи. к. I. С-Петербург. 2003. С. 508.

国也要在北满保持八个步兵营、在南满至少保持四个步兵营的兵力。1900年12月16日他致信沙皇和拉姆兹多夫，建议在铁路完工后要在哈尔滨、吉林、齐齐哈尔及奉天“无限期地”驻扎俄国军队<sup>39)</sup>。1901年7月更要求将满洲的北部并入俄国<sup>40)</sup>。

而维特坚决反对无限期在满洲驻军的建议，主张在获得必要保障的前提下逐渐完全从满洲撤军，由中东铁路护路军来维护铁路的安全。1901年1月22日他在给外交大臣的信中写道：“逐渐减少在满洲的驻军并在中东铁路建成后完全撤出俄国军队、恢复满洲正常秩序是我们拟定协议中的最重要内容之一。”“逐渐撤军的声明对俄国自身的利益是极端重要的，对安抚中国人并保证与列强诸国的友好关系也是极端必要的。”<sup>41)</sup>

他指出：长期占领满洲“会使中国以及欧洲列强和日本怀疑我们有土地征服的意图，”<sup>42)</sup>这对俄国是极其危险的。“不仅将恶化俄国与起源于满洲的大清王朝的关系，也会被其他列强视为是对远东和平的长期威胁，特别是俄国的行为将会成为列强诸国在中国其他地区和日本在朝鲜采取类似行动的榜样。俄国应对这一切所付出的牺牲将远远超过镇压中东铁路区域可能发生的新暴动而付出的牺牲。”<sup>43)</sup>而且维特认为：“在欧洲列强通过和平谈判保障了自己使馆区的安全并占据进入北京的交通要道之后，今后在中国居民中包括在满洲都未必会发生类似的事件。”<sup>44)</sup>因而长期驻军也完全没有必要，俄国应逐步从满洲撤出自己的军队并在中东铁路完工后完全撤出俄国正规军，由中东铁路护路军来维护铁路的正常运营。

当然逐渐完全撤军并不是无条件的，而是必须要提出一系列条件作为撤军的前提和保障。最根本的条件就是要从中国获得更多的经济补偿，既保障中东铁路的安全，更能建立起俄国在满蒙和新疆的独占优势地位。1900年12月28日维特致信沙皇和外交大臣，初步列出了这些经济要求的基本内容：1、扩大俄国在满洲和长城以北地区的铁路租让权。要求“中国政府不经我方同意不得在我们势力范围所及之地即满洲和整个长城以北地区（包括满洲、蒙古、伊犁边区和喀什噶尔）自造铁路或向他国提供铁路租让权。”<sup>45)</sup>他认为只要中国承担不在这些地区自行建造铁路、不向其他列强提供铁路租让权的义务，就可使俄国在满蒙新疆地区的铁路租让权得到充分的保障。2、中国将长城以北

39)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8.

40) [俄]谢·尤·维特《不得已的说明—奉答侍从将军库罗巴特金关于对日战争的总结报告》，第45页。北京：商务印书馆，1978年。

41)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47. об.

42)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13.

43)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 С.143.

44)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 С.141.

45)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14.

的山海关铁路区段及其到营口的支线交给俄国，“以便由俄国根据中东铁路租赁合同来接造和经营。”<sup>46)</sup>如果这一条件难以实现的话，就要求“中国政府向中东铁路公司提供按照中东铁路租赁合同的条件建造从中东铁路干线或南满支线通向北京铁路的权利。”<sup>47)</sup>3、取消根据1898年3月中俄旅大租地条约所规定的金州自治权。4、将中东铁路边界各站的海关管理权交给中东铁路公司，“这些海关的海关职员只能由中国人或俄国人担任，并将上述海关置于中东铁路代理人的监督之下”<sup>48)</sup>。5、把1895年借款<sup>49)</sup>本息的偿付办法由半年付款改为按月付款。

除了通过中俄两国政府间的单独协定获得上述经济权益之外，维特还试图再由中国政府与中东铁路公司之间订立一个协议专门向中东铁路公司提供特殊的优惠，根据他在1901年1月24日交给拉姆兹多夫的清单，维特希望为中东铁路公司争得的经济特权包括：1、盛京、吉林两省及黑龙江小兴安岭南坡“无论官地还是私地”“所有”金矿的开采权，以及在全满洲所有石油与镍矿的开采权；2、在公司“铁路区域内”“全部煤矿的”开采权，而且在沿铁路十俄里地带内与公司矿区五俄里范围内不许任何其他企业家从事经营活动；3、“五年之内”在鸭绿江流域“选择”具有“良好建筑用材”的二千平方俄里地段的权利，并有权在该处铺设铁路、电报与电话线路；4) 将中东铁路沿线十俄里地带内的全部土地统统交与公司（私人土地照市价赎回）5) 在秦皇岛、营口、鸭绿江口以及“江口附近的一个岛上”拨给公司地段，以建筑码头、货栈、油站和住宅；6) 将南满铁路到营口的临时支线改为固定线路<sup>50)</sup>。

可见，维特的意图是要通过进一步扩大中东铁路公司权益、建立起俄国在满蒙经济独占地位的方式来维护中东铁路的安全。

维特更反对占据北满领土的主张。1900年8月24日他在给沙皇《关于远东问题》的奏折中分析了领土扩张的危害。他指出：“立即以某种方式扩张我们在远东的领土……毫无疑问有着巨大的诱惑力”，但这一计划“不仅对俄国无利，而且将会引起一系列严重的灾难性后果。”<sup>51)</sup>

其一是“只要我们向满洲或北直隶湾伸手，哪怕是以隐蔽的形式伸手，德国就将占领山东半岛的其他地方、英国将占领长江流域和其他地区、法国将占领中国南方，而其他列强也将相应分割其余的中国领地。对我们的东方事业而言尤其危险的是日本将趁机

46)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16 об.

47)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76.

48)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16 об.

49) 指中俄四厘借款。

50) 转引自[苏]鲍里斯·罗曼诺夫著：《俄国在满洲（1892-1906）》，第247页。商务印书馆，1980年。

51) Витте. ст. секр.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е записки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00 г. // ГАРФ. Ф.543. Оп.1. Д.177. Л.8-9.

进入亚洲大陆，占据朝鲜。中国将面临被瓜分的危险。”<sup>52)</sup>

当然维特并不是在为中国被瓜分的命运而担忧，他担心的是一旦中国被瓜分，一些军事强国将取代贫弱的中国和朝鲜出现在远东，俄国“在亚洲将不得不与这些强大好战的国家为邻。”<sup>53)</sup>

随之而来的是第二个沉重的后果：在远东与强国为邻将增加俄国的财政负担，削弱俄国在欧洲的力量。维特写道：如果中国被瓜分俄国将不得不面对许多新的严重困难，我们不得不耗费巨大的财力来保卫东方的边界。这不仅会给俄国人民带来沉重的负担和牺牲，而且更重要的是“如果我们对远东的要求不适度的话就会使局势进一步恶化，从而使自己陷于远东事务不能自拔，结果必将削弱我们在欧洲和近东的地位。”<sup>54)</sup>而如果沒有巩固稳定的欧洲边界既会损害俄国的尊严、损害俄国的根本利益，也使俄国不可能沿着历史的道路向东方发展。

#### 四、维特满洲善后政策的外交实践

东三省是清皇室的发祥之地，清廷上下对俄国占领满洲一事都极为重视，力图尽早与俄国罢兵息战、收复失地。1900年12月以后维特也认为在列强诸国与华公约未订之前容易迫使清政府在满洲问题上就范，因而也希望与清政府就撤军交地问题进行单独谈判。1900年12月22日俄国照会清廷，请其委任驻俄公使杨儒为全权大臣在彼得堡与俄国进行谈判。维特亲自参与了1901年1月至3月的中俄第一次交收东三省谈判，提出了对满蒙新疆地区的一系列经济要求作为俄国逐步撤军的前提条件，这是其寻求经济补偿政策的具体体现。

1901年2月10日，俄国拟定了与中国进行单独谈判的协议草案，并于2月16日交给中国全权谈判代表杨儒。俄国协议草案共包括十二款内容<sup>55)</sup>。

这十二款内容主要涉及的是撤军和撤军保障两个方面的问题。关于撤军问题由于库罗帕特金的坚持，协议草案中并未明确规定撤军期限，但肯定了维特提出的逐渐从满洲撤军和铁路完工后中国政府经与俄国协商可在满洲驻军的原则。条约草案的最后四条有

---

52) С.Ю.Витте Собрание сочинений и документа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Т.1.К.1.Ч.1.С.321.

53) Витте. ст. секр.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е записки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00 г. // ГАРФ. Ф.543. Оп.1. Д.177. Л.9.

54) Витте. ст. секр. Всеподданнейшие записки по дела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900 г. // ГАРФ. Ф.543. Оп.1. Д.177. Л.11.

55) 这十二款内容参见：王芸生编著《六十年来中国与日本》第四卷，第88—89页。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05年。



关路矿、租借方面的独占权，赔款可由向中东铁路公司提供新的经济权益来充抵以及建造向京铁路等要求是维特在满洲寻求经济补偿善后政策的具体体现。

杨儒根据政府指示要求将第六款“照中国前允成议，中国北境水陆师不用他国人训练”、第七款“为保安地方计，租地约第五款隙地，由地方官就近另立专章，并将专条第四款金州自治之权废除”和第十二款“照中国前允成议，自干路或枝路向京造一路，直达长城，照现行路章办理”<sup>56)</sup>删去，并对第四、第八两款提出三点修改建议：第一，“路工未竣，不设兵队，即在铁路两旁相近地段内。禁止军火，当明定年限。”第二，“蒙古、满洲矿路利益，不得让与他国人，当声明中国自办，不在此例。又第三，他项利益，应须声明与此次公约各国利益相埒，并于本国主权、利权并无大碍者。”<sup>57)</sup>

在谈判即将陷入僵局时，维特和拉姆兹多夫最终同意对俄国草案稍加删改，3月12日将第二稿协议草案交给杨儒，并限其在两周之内予以答复。俄国的第二次约稿删去了原稿中的第六条即“中国北境水陆师不用他国人训练”一条，将限制中国在满洲驻军的第四条改为中国政府不必待中东铁路完工就可在满洲驻军，但“应与俄国政府商定在满洲驻军的数量和驻扎地点”。将第八款中关于保障俄国在中国北方各地普遍享有路矿和租让垄断权的规定改为“俄国仅在满洲享有建造铁路、开采矿山和开办各种工业企业的权利。”<sup>58)</sup>与第一稿草案相比，俄国的二次约稿对清政府的要索有所减少。

为什么维特同意对草案进行修改？为什么主要同意在上述三项条款上做出让步呢？从客观因素来看，是由于当时列强各国反对中国与俄国单独谈判，英、日、美、德、意等国纷纷向中国政府提出抗议，反对中国政府与俄国缔结任何“具有领土性质或财政性质的”<sup>59)</sup>单独协定，同时又表示支持清政府对俄国采取强硬立场。

此外，最主要原因是维特在军事问题上与库罗帕特金存在着严重的立场分歧。从主观上讲，维特自义和团运动结束后就反对陆军大臣通过完全剥夺中国政府在满洲驻军权和永久留驻俄国军队来保障中东铁路安全以及俄国根本利益的主张。1901年1月29日维特收到拉姆兹多夫转来的协议草案。其中把俄国撤军和中国在满洲驻军问题联系在一起，规定“在俄军撤离满洲之前中国承担不在满洲驻军的义务。”<sup>60)</sup>维特担心这一表述方式会使俄国军方以中国没有履行不在满洲驻军的承诺为口实拒绝从满洲撤军，也

56) 王芸生编著《六十年来中国与日本》第四卷，第88—89页。北京：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2005年。

57) 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资料编辑组编：《杨儒庚辛存稿》，第45页。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0年。

58)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 С.146. 另见中国社会科学院近代史资料编辑组编：《杨儒庚辛存稿》，第59页。中国社会科学出版社，1980年。

59) Материалы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СПб. С.7-12.

60) Переговоры с Китаем в видах обеспечения русских интересов в Маньчжурии. Период первый. Переговоры в СПб. Часть I. //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75.

容易被中国和其他国家的社会舆论理解为俄国图谋为自己制造无限期占据满洲的借口，所以提议中国在满洲的驻军不取决于俄国军队撤离的时间，而取决于满洲秩序是否完全恢复和居民是否重新开始和平生活，正是根据这一意见在2月16日向杨儒递交的第一稿协议草案中才有了“中国在中东铁路未竣工之前不在满洲驻扎军队，铁路竣工之后应根据与俄国政府的特别协议商定驻军人数”<sup>61)</sup>的规定。这就决定着维特在与军事相关的问题上比较容易做出让步，所以当杨儒对第一次约稿中有军事问题的第六条和第四条提出疑义时，维特在第二稿草案中就同意删掉北境水陆师不用外国人教练一款，并在中国政府驻军权问题上进一步作出让步：不必待中东铁路建成即可在与俄协商之后向满洲派驻一定数量的军队。

而维特之所以同意将第八款俄国享有路矿独占权的范围由长城以北各地缩小为仅在满洲享有此种权利，则完全是出于俄国自身资金紧张暂时无力向蒙古、新疆等地进行大规模经济扩张的考虑。还在1900年底的一封信中他就曾分析说向中国提出在满洲、蒙古、伊犁边区和喀什噶尔等地的矿产资源开采权虽然“也是我们所希望得到的，但是它只有在遥远的将来才能对我们具有重大意义，因为目前俄国连经营本国的自然资源也感到资本短缺，因此我们恐怕没法筹措资金去开采中国的矿藏”<sup>62)</sup>。这表明资金问题是限制他进一步对中国进行经济扩张的重要因素，正因缺乏资金，所以他同意在扩张的范围问题上向杨儒做出让步。

1901年1月至3月的中俄第一次交收东三省谈判是关系到维特寻求经济补偿的满洲善后政策能否实现的问题，所以他对谈判非常重视，不仅参与了俄国协议草案的拟定和修改，而且还亲自参加谈判对杨儒施加压力。但由于杨儒最终拒绝在俄方修改后的协议上签字，中俄第一次交收东三省谈判失败，维特的满洲善后政策也遇到了严重挫折。

总之，义和团运动在东北爆发后，维特先是反对出兵护路，后随着局势的演变又积极敦促沙皇出兵东北。在义和团运动被扑灭后，维特又提出了以寻求经济补偿为主的满洲善后政策，并亲自参与了中俄第一次交收东三省谈判。尼古拉二世在财政大臣和陆军大臣之间摇摆不定，因而导致了这一时期俄国的满洲政策往往表现出矛盾性和多变性的一面。

---

61) Глинский Б.Б. Пролог русско-японской войны. Материалы из архива графа С.Ю.Витте. Петроград. 1916. С.144.

62) Переговоры с Китаем в видах обеспечения русских интересов в Маньчжурии. Период первый. Переговоры в СПб. Часть I. // АВПРИ. Ф.143. Оп.491. Д.3118. Л.20.

# 러일전쟁과 만한문제의 국제화, 1905-1912

- 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김 원 수 (서울교대)

- |                          |                     |
|--------------------------|---------------------|
| 1. 서 언                   | 3. 4국양탕트와 만한문제의 국제화 |
| 2. 러일전쟁, 외교혁명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 4. 결 언              |

## 1. 서 언

러일전쟁이후 세계 질서의 재편성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및 일본간에 1904년과 1907년에 체결된 일련의 협정들로 마무리되었다. 존 알버트 화이트(John Albert White)는 이것을 일본을 뺀 삼국협상(the Triple Entente)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더욱 명확하고 완전한 묘사로서 4국양탕트( the Quadruple Entente)라고 명명하였다.<sup>1)</sup> 영러협상과 러불동맹국이 결집한 4국양탕트는 유럽에서는 삼국협상국의 대독 포위망,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獨走와 대미견제를 가능케하였다. 하지만 이 체제는 독·미·청 3국을 자극하였고, 독일의 전방위적 대항조치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이 4국양탕트는 전쟁이후 일본의 제국화 과정에서 제 3차 한일협약, 간도 진출기도, 간도협약, 제2차 러일협약, 일한병합, 뿐 만 아니라 병합이후 제3차 영일동맹, 미영중재조약 및 제3차 러일협약과도 연동되고 있다.<sup>2)</sup> 이같은 전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우선 영러대립을 들 수 있다. 그것은 중앙아시아와 인도 국경의 변경지역에서의 세력 균형의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영러대립과 밀접히 연관된 것으로서 유럽 대륙, 세계의 대양 및 중동과 극동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힘과 영향력의 성장과 팽창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 국제적인 세력 균형의 변화에 관련된 것으로 제국주의 열강의 새로운 동반자가 된 일본의 역할을 들 수 있다.

1) White, John A.1995, *Transition to Global Rivalry - Alliance Diplomacy and the Quadruple Entente, 1895-1907*, Cambridge.

2)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1907-1909」, 『동북아역사논총』26, 동북아역사재단 ; 김원수, 2010, 「4국협조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1907-1912」, 『동북아역사논총』29, 동북아역사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일전쟁과 만한문제를 다룬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레이트 게임의 영러대결이나 4국양탕트와 연계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도 미진하다. 여기에는 전후 국제정치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만한문제는 유럽이나 아프리카의 발칸, 모로코 문제보다는 의미가 약화되어 주된 논제로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기존의 국제정치적 시각의 영향도 간과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러일전쟁은 동아시아에 한정된 차원에서 보다는 오히려 제1차 세계대전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세계사적 사건으로서 고찰하려는 역사담론들도 적지 않다.<sup>3)</sup> 즉 유럽의 화약고인 발칸반도의 불안정이 세계대전의 발발로 연결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논하고 있지만, 글로벌한 관점에서 보면 발칸의 화약고에 불을 부친 긴 도화선은 동북아시아의 만한문제에서 발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4)</sup>

본고는 러일전쟁 이후 만한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4국양탕트의 상호 관계를 Global Power Politic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상호작용성을 맥락화해 본 것이다. 이를 통해 전후 한반도, 간도와 만주의 현안문제는 한·중·일 3국간의 문제였을 뿐 만 아니라, 구미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다계적인 협조체제 구축과정의 역사적 산물이었으며, 지역분쟁의 차원을 넘어선 구미 열강의 세계정책과 연동된 전지구적 사안이었음을 재구성하려 하였다.

## 2. 러일전쟁, 외교혁명과 국제질서의 재편성

러일전쟁이후 국제질서 재편의 단초는 開戰直後 공식화된 영국과 프랑스의 제휴와 戰爭終結後 표면화된 영국과 독일의 대립에 있었다. 나아가 새로운 전략적-정치적 구조의 성립에 있어서 원동력은 독일과 일본, 그리고 긴 안목에서 본다면, 지역 열강 및 세계열강으로서 미국의 출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같은 재구성을 주도한 것은 영국이었다. 19세기 말까지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쟁탈전으로 대립하였으나, 아프리카의 파쇼다 사건(The Fashoda Incident) 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호전되었다. 영불친선관계는 에드워드 7세의 즉위와 랜스다운 외상의 등장이후 본격화되어 1903년 5월, 에드워드 7세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7월, 프랑스 대통령 루베가 답례로 런던을 방문하였다. 동년 가을부터 시작된 양국의 외교 교섭은 러일개전 2개월 후인 1904년 4월 8일, 영불

3) Steinberg, John W, Menning, Bruce W. Van Der Oye, David Schimmel penninck and Wolff, David ed, 2005, *The Russo-Japanese War in Global Perspective: World War Zero*, Boston.

4) 김원수, 2013, 「영국의 외교정책과 글로벌전략의 형성」, 『서양사학연구』 28, 한국서양문화사학회, p.195.

협상(Entente Cordiale)으로 결실을 맺었다.<sup>5)</sup> 이것은 양국의 식민지 세력범위를 조정하고, 현상유지를 도모한 것으로서, 영국이 이집트에서, 프랑스가 모로코에서의 우월권을 상호 승인한 것이었다. 이같은 보증을 통해 프랑스는 모로코정부에게 내정개혁안을 제출하고 관세수입을 담보로 고율의 차관을 강요하는 등, 모로코의 독점적인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영불협상은 형식적으로 군사동맹은 아니지만, 글로벌한 규모의 세계정책을 추진하는 독일을 목표로 한 영불제휴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협력을 결과할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영불협상에 대해 독일의 이의가 제기된 것이 1905년의 제1차 모로코사건이었다. 독일의 빌헬름 2세는 요트로 지중해를 향해 중, 1905년 3월 31일, 돌연 모로코의 탕헤르에 상륙하여 술탄과 회견하고 모로코 왕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의 유지를 요구하였다. 이에 힘을 얻은 술탄은 프랑스에 강경대응하고, 독일은 모로코문제에 관한 열국회의의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불-독 관계는 긴장되었다. 대독강경파인 델카세(Théophile Delcassé)의 상은 영국의 지원을 과신하고 대독개전을 주장하였지만, 정부는 전쟁의 모험보다는 델카세를 사직시키고 국제회의의 길을 택하였다. 그 와중에 포츠머스강화교섭이 개시되기 직전인, 1905년 7월 24일에 빌헬름은 핀란드의 뵘르케(Bjorko)에서 니콜라이 2세와 회견하고, 영국에 대해 양국의 단결을 도모하고, 제 3국의 공격에 대비하여 상호 원조하는 조약에 조인하였다. 그러나 뵘르케 밀약은 독리 양국의 수상 빌로우와 빠틀리가 반대함으로써 발효되지 못하였다.

모로코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는 러일전쟁 종결 후인, 1906년 1월 16일, 스페인의 알헤시라스(Algeciras)에 12개국이 모여 개최되었다. 독일은 외교적으로 열강의 포위망에 놓인 것을 직감하였다. 영국의 프랑스 지지는 당연한 것이었고, 삼국동맹의 이탈리아는 이미 1900년의 불이협상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트리폴리 점령을 지지하는 약속으로, 프랑스의 모로코에서의 우월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독일을 직접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더불어 동맹국 오스트리아-헝가리도 독일 지지에 미온적이었다. 미국은 독일의 문호개방주의에는 원칙적으로 異議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독일 지지로 이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역시 프랑스 지지는 러불동맹국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다. 따라서 1906년 4월 7일, 모로코왕국의 독립과 문호개방의 원칙이 확인되어 프랑스의 진출이 묵인됨에 따라 독일은 외교적으로 패배하였다. 알헤시라스에서 열세에 몰린 것은 바로 독일이었다.<sup>6)</sup> 따라서 회담결과, 독일은 고립되고 도리어 영국과 프랑스의 유

5) Edward, E. W., 1940, "The Japanese Alliance and the Anglo-French Agreement of 1904" *Historical Review*, vol. IX, No. 1, p.20 ; 크리스토퍼 하워드 저, 김상수, 김원수 역, 1995. 『대영제국의 영광스런 고립』, 한양대학교 출판원.

대관계가 강화되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제 독일은 1890년대 중반부터 누려왔던 유리한 외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음을 결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독일내에서는 다시 전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sup>7)</sup>.

이처럼 러일전쟁과 모로코위기를 거치면서 유럽에는 독일의 전쟁불가피성을 언급하는 태도변화로 조성된 긴장과 전쟁 위기가 있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영러접근, 즉 영러협상의 기원이 있었다. 그리고 이같은 독일의 움직임에 대처하여 1906년 1월까지 영국 육군은 활발히 유럽에서 전쟁에 대비하였는데, 그것은 1815년의 워털루 전투(Battle of Waterloo) 이래로 처음있는 일이었다. 약 10만 군대가 프랑스 또는 벨지움에서 독일과의 전투를 위해 急送토록 구상되었다. 한편,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우려는 1905년 혁명의 충격에서 회복되는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소 경감되었다. 당시 영국외무성에는 반독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에드워드 그레이(Edward Grey)의 외상 임명을 계기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恐獨意識은 독일의 산업화와 해군력의 팽창에 따른 견함경쟁과 독일내 반영감정의 확산 때문이었고, 그것들은 러일전쟁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영국의 대러관계 개선의 주된 동기가 되었다.<sup>8)</sup>

반면 러시아는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러일전쟁이전에는 아시아에서 영국과 타협할 분위기에 있지 않았다. 도미니크 리벤(D.C.B. Lieven)교수는 이에 대해, 「러일전쟁이전 러시아 정부의 주된 관심은 극동이었고 주경쟁 상대는 영일동맹이었으며, 도거뱅크사건은 영국과 러시아 제국 간에 전쟁일보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고 논하고 있다.<sup>9)</sup> 당시 짜리 니콜라이는 영국인을 유태인과 동격에 놓을 정도로 반영주의자였다. 한편 람스도르프 등 일부 각료들은 중동지역에서 러일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시장을 자력으로 보존하기를 희망하였다.<sup>10)</sup> 이것은 테헤란의 확보를 통하여 쏘페르시아를 통치할 수 있다는 당시 페테르부르크에 품미하던 신념에서 기인된 것이었다. 따라서 러일전쟁기에도 중앙아시아에 관한 영-러협상의 전망은 결코 희망

6) Bartlett. C. J., 1984, *The Global Conflict 1880-1970 : The International Rivalry of the Great Powers*, Longman, p.49.

7) Langhorne. Richard, 1981, *The Collapse of the Concert of Europe; International Politics 1890-1914*, Macmillan, p.26, pp.91-92. Langhorne 교수는 독일의 영국에 대항하는 이러한 조치의 실패는 Free hand 정책이 더욱 Empty hand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8) Bridge, F.R., & Bullen, Roger, 1980, *The Great Powers and the European System 1815 - 1914*, Longman. p.158.

9) Lieven, D.C.B., 1983, *Russia and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 Macmillan, p.28 ; Schwartz, wills George, 1932, "Anglo-Russian Rivalry in the Far East 1895-1905" *Studies in the Social science vol x* No 2, University of Iowa.; Jelavich, Barbara, 1974, *St. Petersburg and Moscow Tsarist and Soviet Foreign Policy 1814-1974*, Indiana, pp.252-253.

10) Abramsky. C(ed), 1974, *Essays in Honour of E.H. Carr*, Macmillam, p.102.

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정과 군부 및 보수집단은 영국보다는 독일 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접근을 선호하고 있었다. 당시 러시아의 보수집단들은 외국차관의 확보만이 전쟁 패배 이후의 러시아 육군을 재건할 수 있으며, 러시아 혁명으로 입헌주의당파가 얻었던 영향력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러시아의 재정 복구를 위해서 프랑스는 주요 채권자로서 입장을 유지하였다. 1906년 1월의 알제시라스회담에서 독일에 대항하여 러시아와 프랑스가 공조하였는데, 영국에게 우호적인 발언의 기회를 주라고 러시아를 고무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sup>11)</sup>

이같은 영·러의 반독경향에서 양국은 합일점을 찾을 수 있었고, 러시아의 재정난과 프랑스의 외교적 압력에 영향을 받아 마침내 1906년 6월 7일, 영·러 교섭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3개월 후, 재상 코코프초프(Kokovtsov)는 러시아가 좀 더 값싼 대외정책을 고안할 것을 주장하였고,<sup>12)</sup> 수상 스톨리핀(Stolypin)과 외상 이즈볼스키(Izvolsky)도 같은 입장에서 아시아에서 보다 신중하게 분별있게 행동하였다. 그것은 당시 페르시아가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지만, 러시아로서는 국내외 위기를 대처하는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확신할 수 없었고, 또한 독일의 바그다드 철도 건설 및 통상 활동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내외적으로 취약한 여건 때문에 일정 기간 아시아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러시아의 힘을 공고히 하자는 논조들이 압도적이 되어 갔다. 그것은 오직 영국과의 대립보다는 영국과의 협조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이즈볼스키는 극동보다는 근동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있었고, 영·러 접근은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와의 위기만 없다면 가능할 것이라 믿고 있었다.<sup>13)</sup>

한편 영국에서는 영·러 접근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다. 에드워드와 그레이는 찬성하였지만, 자유당의 캠벨-배너만(Campbell-Banneman)수상은 공공연히 비난하였다.<sup>14)</sup> 특히 군부는 일본의 승전 및 제 2차 영일동맹을 통하여 문서상으로 인도 변방방위의 보장을 포함하게끔 영일동맹의 군사협력범위를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러 접근에 대해 비관적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인도를 공격할리는 없다고 할지라도,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철도의 존재가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한, 영국에게는 러시아가 인

11) Kazemzadah, Firuz, "Russia and Middle East" Ledere. I. J, 1962. *Russian Foreign Policy - Essays in Historical perspective*, Yale University Press, p.517; B.F.Oppel, 1972, 'The waning of a traditional alliance, Russia and Gemany after the Portsmouth Peace Conference' *Central European History* , Atlanta, vol.5, pp.318-329; Abramsky.C.(ed), *ibid*, pp.102-105; Bartlett, *op.cit.*, p.51.

12) Lederer., *ibid.*, p.518.

13) Kazemzadeh, 1928, *Russia and Britain in Persia 1864-1914*, Yale University, p.482 ; Bartlett, *op.cit.*, pp.51-53.

14) Albrecht-Carrie, Rene.1973, *A Diplomatic History of Europe since the Congress of Vienna*, New York. 김영식 · 이봉철 역.1982, 『유럽외교사』 상, 까치, p.263.

도 서북국경 방어의 위협이 되기 때문이었다.<sup>15)</sup> 또한 대외적으로 독일 해군의 계속되는 도전을 해결해야하는 당면과제가 있었다. 특히 독일은 근동과 중동에서 경쟁자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베를린-바그다드 철도는 더 이상 러시아에 대한 안전장치가 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독일과의 경쟁은 영국의 대러협상에서 영국측 이해의 배후에 숨어있는 하나의 동기를 형성하고 있었다.<sup>16)</sup> 하지만 실제로 영국 내에서 러시아와의 협상에 만장일치한 적도 없고, 러시아에서도 협상에 열광한 적도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러시아인에게 그것은 1905년 러일전쟁과 러시아 혁명에 의해 자국에게 강요된 유감스럽지만 필요한 일(a matter of regrettable necessity)<sup>17)</sup>이었을 뿐이었다.

1907년 8월 31일, 페테르부르크에서 외상 이즈볼스키와 영국전권 아더 니콜슨(Arthur Nicholson)간에 영러협정이 조인된 결과, 페르시아는 3지역, 즉 북부의 러시아, 남부의 영국, 중간의 중립지대로 분할되었다.<sup>18)</sup> 그리고 러시아는 페르시아 만과 아프가니스탄, 영국은 티베트에서 상호 이권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영·러 양국은 국지적 분쟁을 해결하고 전지역에 걸쳐 상호 제휴와 협조의 길을 모색하였다. 영러협상은 이미 결성된 러불동맹 및 영불협상과 연계되어 삼국협상을 형성하고 마침내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삼국동맹과 상호 대치하는 「무장된 양대 진영」이 대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sup>19)</sup>

이같은 무장된 양대 진영의 국제시스템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지속되었고, 세계는 끊임없이 국제적 위기에 직면하였다. 아프리카에서의 1,2차 모로코위기, 발칸에서의 보스니아 위기와 발칸위기 뿐 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위기도 그 하나였다. 그것은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위기, 즉 한반도와 연계된 만주를 중심한 전쟁위기였다. 이 위기는 만한문제가 전후 4국양탕트와 구축됨에 따라 유럽협조체제와 연동되고 있었다. 따라서 동북아 문제는 지역적 차원의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지구적차원의 문제가 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4국양탕트는 만한문제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어떻게 상호작용되고 있는가 살펴보자.

---

15) Towle. Philip, 1980,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Defence of India, "Military Affairs, October, pp.114-115.

16) Kazemzadeh 교수는 「러시아는 1907년 협정에서 스스로 부과한 구속 때문에 이후 3년 동안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Shuster 사건을 선택하고 있다.(Kazemzadeh, Russia and middle east.p.519.

17) Bartlett, *op.cit.*, p.52.

18) Mehra Parshotom, 1979, *The North-eastern Frontier. vol.1. 1906-1914*, Oxford University Press, pp.4~8.

19) Churchill, R.P, 1939, *Anglo-Russian Convention of 1907*, The Torch Press ; Tompkin. Ros mary, 1975, *Anglo-Russian Diplomatic Relations 1907-1914*, Denton Texas. PDh. Dis.



### 3. 4국양탕트와 만한문제의 국제화

기실 포츠머스조약 체결이후, 일본은 1905년 11월 7일, 불법적인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보호국화하고, 동년 12월 22일의 청일조약 체결로 기존에 러시아의 만한철도 이권을 탈취하고, 곧이어 관동도독부의 설치, 남만주철도주식회사의 설립 등의 만주선 점조치를 취하였다. 그것은 러시아의 복수전을 대비하는 한편, 러일전쟁으로 확보한 한반도와 만주의 權益을 현실화하는 상호보완적 조치였다. 이에 영국, 미국과 독일은 즉각 대응하였다. 1906년 3월19일, 주일영국공사 클로드 맥도날드(Claude MacDonald)와 26일의 주일미국대리공사 헌팅톤 윌슨(Huntington Willson)의 대일항의 및 카이저(Keiser)의 주독중국대사 잉쇼우(陰昌)을 통한 양탕트 타진 조치가 바로 그것이었다.<sup>20)</sup>

이같은 구미의 대일견제에 대해 일본은 대러 접근이라는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였지만 러시아는 한국문제에 관한 한, 1906년 초반까지는 일본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가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을 공식 초청하여, 을사늑약의 불법성 및 대한제국의 국제적 지위를 헤이그평화회의에서 제기하여, 한국문제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하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본은 제2차 영일동맹(1905)의 3조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지도(guidance), 감독(control), 보호(protection) 조치를 취할 권리를 승인받고 있었다. 당시 영국은 만주와는 달리 한반도 문제에 관한 한, 일관되게 일본의 한국보호국화를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견제정책을 유지했다.<sup>21)</sup>

그러나 1906년 개최된 알헤시라스 국제회의를 전후하여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동년 4월의 알헤시라스회의에서 독일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간의 협조가 모색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여파는 한국문제에 파급되었다.<sup>22)</sup> 이와 관련해서 동년 6월, 맥도널드공사는 보고하기를, 러시아 정부가 최근에 일본과 보다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러시아 정부는 처음 단계에서는 한국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초대했으나, 일본의 반대로 즉각 초대를 철회하였다고 전하였다. 실제로 1907년 6월 15일에 헤이그 평화회의가 개최되었을 당시, 영러, 러일, 일불 간의 외교교섭은 타

20) 馬場明, 2003, 『日露戰爭後の滿洲問題』, 東京: 原書房, pp.1-20; 日本外務省編纂, 昭和31, 『日本外交文書』 第39卷, 1册, 日本國際聯合協會刊, 195-199, 204-212, 212-213, 219-220項 (以下 『日本外交文書』 39-1, 195로 略함).

21) 한승훈, 2007,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와 영국의 대한정책」,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와 대한제국, 그리고 열강』,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2) Memorandum communicated by Japanese Charge' d' Affaires. August 10, 1906, No.87405. Confidential. FO.371/179, (22) p.108.

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러시아는 더 이상 한국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었다. 6월 29일의 헤이그밀사의 참가거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7월 19일, 고종의 양위에 이어 23일, 일본 내각회의가 제1차 러일협약안을 결정하고, 하루뒤인 24일에 제3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이토의 간도파견대 진출계획도 매한가지였다. 원래 1907년 4월 13일로 계획되었지만 7월 30일 러일협약이 조인되고 난 후인 8월 18일에야 결행되었다. 그것은 당시 불일교섭이 진행 중이었고, 프랑스가 러일교섭을 중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고로 러일협약이 체결된 후 8월 18일, 한국군대의 해산과 동시에 통감부의 간도임시파출소 개설을 청국에 통보하고, 19일 사이토(齊藤季治郎) 소장이 회령에서 용정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일본의 간도문제를 통한 만주침투가 본격화되었던 것이다.<sup>23)</sup> 이처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화와 만주독점화 기도와 간도문제는 애초부터 일본의 대리접근과 연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4국양탕트는 이처럼 일본의 한국 보호국화 강화와 만주독점화 기도와 간도문제가 본격화된 1907년 여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실체화되었다. 그것은 6월 10일에 불일협상, 7월 30일에 러일협약에 뒤이어 8월 31일 영러협상이 체결됨에 따라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1815년에 나폴레옹이 실각한 이후 러일전쟁이 끝나는 1905년까지, 약 90년간의 Great Game, 즉 영로대결은 종식되었다.<sup>24)</sup> 하지만 비서구국가인 일본의 前進的 외교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반독진영에 가입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특히 일본 군부의 적극적인 만한진출 기도는 독일 및 미국, 청국의 우려를 낳고 있었다. 그 틈새를 이용하여 독일은 독미청 3국간에 反日이라는 맥락에서 제휴조건을 찾으려하였다. 1907-1908년과 1910-1911년의 2회에 걸쳐서 카이저가 추진한 독미청 3국동맹구상이 바로 그것이었다.<sup>25)</sup>

독일의 독미청동맹을 통한 대일견제조치에 대해 일본은 영일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악화된 일미관계의 개선 조치를 모색하였다. 1908년 11월 30일 체결된 「태평양방면에 관한 일미교환공문」(루트-다카히라 협정)은 독미청 동맹교섭을 위해 당소위가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에 미일관계를 개선키위한 고무라외상의 외교적 선행조치였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대미관계를 개선한 이상, 만한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만주문호개방정책과 연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같은 현실은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추진한 만한정

23)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p.271.

24) 衛藤瀋吉, 2004, 『近代東アシア國際關係史』, 東京大學出版部, pp.83-104; 千葉功, 2008, 『舊外交の形成』, 勁草書房.

25) Szippel, Richard F., 1998, Keiser Wilhelm II and the Attempt to Form a German-American-Chinese Alliance against Japan, *Nanzan Review of American Studies*, Vol 20 ;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p.272. 스킵플교수는 루트-다카히라 협정이 독미청 3국동맹 구상을 잠정적으로 저지하는데 '결정적인 타격(a fatal blow)을 주었다고 논하고 있다.

책과는 상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의 여지가 있었다. 실제로 일본은 루트-다카히라 협정이후, 곧바로 간도문제를 포함한 만주현안문제 타결에 착수하여 1909년 1월초부터 2월 17일까지 6차례에 걸쳐 청일회담을 개최하였다. 이 교섭에서 일본은 간도문제에 대해 영유권 포기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조선인의 법적지배 문제를 둘러싸고 교착 상태에 빠졌다.<sup>26)</sup>

이에 청국은 1909년 3월 22일, 청국의 간도문제를 비롯한 만주현안을 헤이그 중재재판에 회부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영국과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외교 조치를 병행하였다. 이같은 청의 외교 제스처는 일본과의 교섭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실제로 미국과 독일의 만주문제에 대한 개입 가능성을 낳는 것이었다. 즉 중재재판회부문제는 청일의 事案을 넘어서는 국제문제(International Affair)로 간도 및 만주현안을 국제이슈화한 것으로서, 그것은 일본에게는 청일전쟁의 삼국간섭과 견줄만한 외교적 위기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sup>27)</sup> 따라서 일본정부는 戰後 대륙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총체적인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다.

외교적 위기에 대처한 일본의 자구책은 1909년 3월 말부터 5월 중순에 걸쳐 취해졌다. 그 첫째는, 일본의 한반도병합을 위한 사전조치였다. 둘째는, 만주6안건 교섭을 위한 대청정책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사회의 개입을 우려한 양탕트체제 강화를 위한 대영, 대러접근 기도였다. 그 최우선 사항은 한반도 강점을 위한 선행 조치였다. 동년 3월 말 고무라외상이 가쓰라수상에게 한국병합 방침안을 건의하고, 4월 10일 靈南坂회담에서 이토통감이 가쓰라, 고무라와 함께 한국 합방에 동의하였다.<sup>28)</sup> 그 다음으로, 만주문제, 즉 만주6안건 교섭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4월 29일, 야마가타 아리모토(山縣有朋)가 「제 2 대청정책」을 작성하여, 가쓰라, 고무라, 데라우치에게 송부하였다. 그리고 만주현안에 대한 제3국의 개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탕트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우선 영일동맹의 결속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1909년 5월 13일 이토와 맥도널드의 회담 및 가쓰라와 맥도널드의 회견이 바로 그것이다.<sup>29)</sup> 특히 가쓰라와 맥도널드의 회견에서는 영일동맹 및 중국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이 전달되었다. 일청간에 현안인 1)간도문제, 2)신법철도 문제, 3)경봉철도를 봉천성으로 연장하는 문제, 4)대석교지선문제, 5)무순 인대 탄광문제, 6)철도연선 광산문제, 7)중재재판 附託의 제의 문제, 8) 동청

26) 김원수, 2009, 「4국협조체제와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p.278.

27) 『日本外交文書』 42-1. 244-246, 248-249. 262-264 ; The New York Times, March 31, 1909; 김원수, 2010, 「외교혁명과 간도협약의 국제관계」 『백산학보』 86, 백산학회. pp.262-263.

28) 上担外憲一, 2000, 『暗殺・伊藤博文』, ちくま新書, p.196.

29) Gooth, G.P& Temperley, H.W.V.ed., 1926-1938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s of World War 1894-1914, Vol.VIII*, London : H.M.Stationery Office, pp.467-470 (이하 B.D VIII, pp.467-470로 약함)

철도 부속지내의 행정권 문제, 9)남만주철도 부속지에 있어서 행정권문제등에 관하여 의견교환이 있었다.<sup>30)</sup>

일본은 자구적 조치 이후 본격적으로 만한문제의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였다. 먼저 한국문제에 대해서는, 7월 6일, 일본 각의에서 일한병합을 결정하고, 동월 12일, 기유각서를 체결하여 영사재판권 폐지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뒤이어 한국중앙은행에 관한 한일각서조인, 군부 폐지에 이어 호남의병에 대한 만한대토벌 작전 개시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다음으로 만주문제에 대해서는, 만주경영의 주축으로서 안봉철도(안동-봉천)의 개축과 길회철도(길림-회령)부설과 관련하여 8월 6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중국에게 안봉철도 개축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하였다. 그것은 협계인 안봉선을 국제표준궤도로 개축하여 경부선 및 경의선과 연결하려는 것으로서, 戰前에 가쓰라-고무라 체제가 목표한 한반도와 만주를 관통하는 대륙종관철도구상의 후속편과 같은 것이었다.<sup>31)</sup> 그 다음으로 양탕트 강화를 위한 對英, 對露접근을 본격화하였다. 6월 14일, 한국통감에서 물러난 이토는 러시아방문을 계획하였지만, 10월 26일, 하르빈 역에서 대한의병 참모중장 안중근에 의해 저격됨으로서 실패로 끝났다. 반면에 영일의 공조는 금제철도(錦齊, 금주-치치하르)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통해 모색되었고, 신법철도포기를 둘러싼 영일간 논의와 청일간의 교섭결과는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조약문제 1조에 반영되었다. 간도와 만주현안문제는 1909년 9월 4일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과 ‘만주5안건에 관한 청일협약’체결로 귀결되었다. 이로서 간도영유권은 청국에 양도되고, 한국과 중국의 국경은 획정되었다. 이처럼 간도와 만한문제에는 청, 일 뿐 만아니라 4국양탕트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동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한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청협약과 간도협약에 나타난 일본의 공격적인 남만주정책이 중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였다. 간도협약 직후인 1909년 11월 16일, 미국무장관 녹스가 만주철도의 중립화안 제기를 통해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이 조치는 만주철도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포츠머스강화조약 제7조와 루트-다카히라 협정의 상업상의 기회균등 규정에 의거하여, 남만주와 북만주를 각자의 세력권으로 확보한 일본과 러시아를 축출하고, 국제자본신디케이트를 구축하려는 것으로서, 요컨대 달러외교를 통해 미국이 만주철도를 관할하려는 것이었다. 이같은 미국의 노골적인 만주개입조치는 동북아시아에서 제2차 러일전쟁의 위기를 다소 감소시키는

30) 鹿島守之助, 昭和33, 『日本外交政策の史的考察』, p.266; 『日本外交文書』42-1, p.275.

31) 김원수, 1998, 「일본의 경의철도부설권획득기도와 용암포 사건」, 『한일관계사연구』 9, 한일관계사학회

반면, 미일대립을 본격화하였다. 한편 유럽에서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에 따른 전쟁위기가 삼국협상체제의 전면적인 패배로 이어짐에 따라 4국양탕트의 불안정성이 노출되었다. 특히 러·일 관계개선의 주역인 이즈볼스키가 에렌탈(A.L.von Aehrenthal)과의 교섭실패로 외교적 입지가 축소되고 있었다. 이같은 대외 정세의 변화되는 여건은 이 시기 일본 정책당로자들에게도 외교적 위기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만주문제의 조속한 해결 뿐 만 아니라 한국강점을 서두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sup>32)</sup>

일본의 대미전제를 위한 케스팅보트는 러시아와 영국이었지만, 러일의 공조가 구체화되었고, 1910년 1월 21일, 러일 양국은 공동으로 녹스의 중립안에 거부의를사를 표명한 각서를 전달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영국과 접촉하며 한반도 병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10년 5월 19일, 주일영국대사 맥도널드는 그레이에게 보낸 전문에서, 일본 외무성에서 보호정치의 후속편으로 일본의 한국 병합 가능성을 전해 들었고 시기는 아직 미정임을 전했다. 그리고 현재 일본이 러시아와 긴밀한 이해를 위해 노력 중이며, 일본외상이 자신에게 이미 1907년의 러일협약에서 러시아가 일본에 의한 최종적인 병합(eventual annexation)을 묵인하였으며, 기타 열강은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언급을 전하며<sup>33)</sup> 일본의 병합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같은 전문내용은 1910년 6월 들어 취해진 일본의 실행 조치들에서 분명해 졌다. 조선에 대한 시정 방침 결정(6/3), 카츠라 수상의 한국병합계획 공포(6/18), 일본식민통치를 위한 특별부서 설치 칙령 반포(6/21), 한국경찰 사무위탁에 관한 일한각서조인(6/24), 이완용의 수상복귀(6/30) 조치가 바로 그것이었다. 이처럼 한일병합 조약이 서명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공식 공포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일본의 병합사전조치 와중에 1910년 7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이즈볼스키와 모토노간에 제2차 러일협약이 체결되었다. 당시 영·불은 비밀협약을 포함한 조약내용을 사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 협약은 노골적인 미국의 만주정책에 대항하여 러일이 공동전선을 구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서 일본의 한국병합을 위한 러일간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sup>34)</sup> 기실 제2차 러일협약 체결 이후, 일본은 곧바로 한국

32) 모리야마(森山茂德)교수는 간도에 관한 청일협약에 의해서, 조선병합을 곧바로 행할 가능성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사실 고무라외상은 이때 조선의 조급한 병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논하고 있다(모리야마 시게노리 지음, 김세민 옮김, 1994, 『근대일본 관계사연구- 조선식민지화와 국제관계』, 현음사, pp.263.; 森山茂德, 1992, 『日韓併合』, 日本歴史學會編, 吉川弘文館, pp.196.

33) B.D VIII, pp.467-470.

34) 김원수, 2010, 「4국협상체제와 한일병합의 국제관계」; 千葉功, 『舊外交の形成』, p.217; 森山茂德, pp.248-249; 海野福壽, pp.355, 365.

병합절차를 개시하였다. 7월 23일, 테라우치(寺內正毅)가 서울에 부임하여, 31일 이완용, 박제순 등과 합병문제를 밀의하고, 8월 16일 테라우치는 총리대신 이완용에게 합병조약안을 제시하고, 동월 22일 테라우치와 이완용간에 합병조약이 조인되기에 이르렀다. 8월 28일, 일본외무성은 한국문제를 검토해 본 결과, 보호통치는 조선의 현 상황에 적합치 않고 국가를 통치해야하는 일본에게 부여된 책임은 한국을 일본제국에 완전히 병합하도록 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미국의 만주철도중립화 기도는 역으로 만주에서 러일의 제후를 강화하고, 일본의 한국병합을 결과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한국병합은 이로서 완결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곧이어 4국양탕트의 주축인 영일동맹을 뒤흔드는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10년 8월 5일, 태프트 대통령은 영국과의 중재재판조약의 체결을 시도하였다. 당시 미국은 만주철도 중립화의 실패 원인이 영일동맹에 있다고 보고, 태프트는 장차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영국과 중재조약을 체결하여 미영전쟁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한편 그레이 외상 역시 중재조약을 통해 대미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대독일 견제를 위한 자유를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영미간 중재조약체결의 난제는 영일동맹과 중재조약을 어떻게 연계하느냐에 있었다. 이에 그레이는 일본의 동의를 얻어 영일동맹을 개정하고, 미국과의 중재재판조약을 체결할 여지를 만들 것을 고려하였다. 일본정부는 중재조약보다 동맹협약의 개정을 먼저 논의하는 선에서 양보하고, 1911년 7월 13일에 가토와 그레이 간에 제3차 영일동맹이 조인되었다.<sup>35)</sup> 동맹 교섭에서, 영국은 일본의 예외조항 설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본의 국경지역의 특수이익에 대해서도 승인하지 않았다. 반면에 제2차 영일동맹 조항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였다.<sup>36)</sup> 이같은 영국의 외교행보는 일본의 한국병합을 뒤늦게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 조치는 영국의 한국에 대한 의무조항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일본보다는 미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유럽에서의 대독저지와 러일의 아시아 독점을 저지하려는 시도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영국의 대미접근의도가 실체화된 것이 뒤이어 동년, 8월 3일 조인된 영미중재재판조약이었다. 이로서 영국과 미국은 영일의 공동공격에 대한 조약상의 방패를 얻었지만, 미 상원은 이에 비준을 거부하였다.

35) 『日本外交文書』 44-1, pp.341-345; 『日本外交文書』 44-2, pp.369-383.

36) B.D VIII, pp.04-7.

이즈음 1911년 10월 10일, 신해혁명이 발발하였고, 일본은 새로운 동북아정세에 대응키 위해, 24일 각의에서 중국정책을 결정하였다. 그것은 만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일본에게 유리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유보하고, 중국본토에 세력을 부식하는데 힘을 주력하며, 만주에 관해서는 러시아와 공동보조를 취하여 일본의 이익을 옹호하고, 영국과는 영일동맹의 정신을 철저히 하는데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러시아와 중국 간에는 외몽고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본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재차 러일협약을 시도하였고 1912년 7월 8일에 사조노프외상과 모토노 대사간에 제3차 러일협약이 조인되었다. 이 협약은 비밀협약만으로서, 만주의 분계선을 내외몽고경계선의 종단까지 서쪽으로 연장하고, 내몽고를 동경 116도 27분에서 동서로 분할하여, 그 동쪽을 일본의 세력범위로 하였다. 이 협약 역시 체결전인 7월 3일, 러일 양국정부로부터 4국양탕트 구성원인 영국과 프랑스에 사전에 통보되었다. 이에 영국은 중국의 독립과 무역상의 문호개방주의를 해치지 않는 한 이견이 없다고 회답하였고, 프랑스정부도 같은 취지로 회답하였다.

이처럼 제3차 러일협약은 만몽을 둘러싼 세력범위를 확정하여 제휴가 강화되고 있던데 비하여, 영일동맹은 만주, 중국본토에서 일본과 대립하고 있는 미국을 그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고 있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러일협약이 외교적 협력에 있어서 동맹적 성격을 가지게 된 데 반하여, 영일동맹은 애초의 방어적 군사협력관계의 내용이 없어져 협상과 같은 성격으로 변질되어버렸다. 따라서 미영중재조약의 성립과 제3차 영일동맹의 개정 및 제3차 러일협약의 체결은 동북아시아 뿐 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영미 양국의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면에, 영일관계가 이전과는 달리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른 한편, 4국양탕트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영일/러불동맹을 주축으로 한 4양탕트를 통해 프리핸드를 누려온 동아시아 지역 열강(Regional Power)으로서 일본과 영·미의 제국주의 세계정책과의 갈등, 충돌이 예견되는 것이었다.

#### 4. 결 언

러일전쟁과 포츠머스평화회의는 동북아시아의 잠정적 평화만을 보장하였을 뿐이었다. 을사늑약은 국제법상 무효였고, 이에 근거한 일본의 간도협약은 무효이므로, 기존의 한·청간의 만한변경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게 되었다. 또한 만주현안문제

역시 일청간의 교섭으로 종결되지 않았다. 간도협약과 일청협약 직후, 미국은 만주문제에 직접 개입하였다. 미국의 만주철도중립화 기도는 역으로 4국양탕트를 강화시켜, 제2차 러일협약이 수립되고 일본의 한국병합을 결과하였지만, 오히려 미일간에는 위기가 조성되었다. 러일협약은 일본의 한국 병합 및 남만주에서의 특수이익과 러시아의 북만주 및 외몽고에서의 특수 이익의 상호 인정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로써 만주에서 러일의 세력범위가 규정되었다.

한편 일본의 동맹국 영국은 미국과의 중재재판조약을 통해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제3차 영일동맹개정을 통해 동맹의 적용범위를 명백히 한 것은 미일의 대립구도에서 탈피와 러일의 동맹화를 견제한 대국적 조치였다. 하지만 3차 동맹교섭에서 제2차 영일동맹조약의 한국에 관한 규정과 러일전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은, 공식적으로 일본의 한국병합을 추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이로써 「외교문제로서 한국문제」는 종결되었다. 그 결과는 1943년 미국, 소련, 중국의 정상들이 카이로에서 회동하여 대일 군사동맹 구성과 한국독립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이 발표될 때까지 약 40년간 한국의 운명과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것은 다른 한편, 4국양탕트체제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영일/러불동맹을 주축으로 한 4양탕트를 통해 프리핸드를 누려온 동아시아 지역 열강(Regional Power)으로서 일본과 구미/영·미의 제국주의 세계정책과의 경계/변경의 변화와 갈등, 충돌이 예견되는 것이었다.

러일전쟁이후 일본은 대륙을 향한 팽창기도를 노골화하였는데, 그 기도에는 양면성이 있었다. 즉 한국과 만주에 대해서는 일본의 「주권범위」, 「이익범위」의 안전보장, 권리획득을 위해서 극히 威壓的인 외교를 전개하는 반면, 구미열강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륙 정책을 승인받기위해 다원적인 국제관계의 협조 외교를 전개하였다. 전후 일본은 제국주의 열강의 대열에 서서 아시아의 제국이 되려하였다. 명치제국화를 위한 일본의 만한정책은 4국양탕트의 구축과 서구열강의 동아시아로부터 후퇴, 중국의 내셔널리즘의 고양, 독일과 미국, 특히 후자의 아시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상황에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도전과 반응은 후일의 만주 사변, 태평양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러일전쟁 이후의 4국양탕트와 파워 폴리틱스의 연구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 러시아의 滿蒙정책과 발칸문제(1907-1912)

- 러일의 내몽골분할협정(1912)체결을 중심으로

최 덕 규 (동북아역사재단)

- |                                   |                          |
|-----------------------------------|--------------------------|
| 1. 머리말                            | 4. 러일의 내몽골분할협정 체결과 발칸문제의 |
| 2. 한일병합 이후 러시아의 만몽정책과 청국의 대응      | 접속                       |
| 3. 러시아의 북만주병합계획과 청국의 만주주권<br>회복정책 | 5. 맺음말                   |

## 1. 머리말

丹齋 申采浩가 1910년 1월 21일 大韓每日新聞의 논설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에서 “지금 만주는 동양의 발칸반도(即今 滿洲는 東洋의 巴爾幹半島라)”로 정의한 것<sup>1)</sup>은 당대 대한제국 지식인의 글로벌한 세계관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가 발칸문제와 만주문제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논거는 바로 “과거 유럽에서 어떤 나라의 강함과 약함, 어떤 나라의 존망이 항상 발칸반도 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역사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단재가 제시한 4천년 불변의 법칙(四千年 鐵案不易 定例)<sup>2)</sup>과 맥을 같이하는 바, 그는 한국과 壹衣帶水를 隔한 만주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한민족의 성쇠가 갈린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신채호는 뜻있는 군자는 “보호국의 지옥(被保護의 地獄)”에 떨어졌더라도, 망국의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눈을 들어 ‘世界列強의 競爭點’이 된 만주문제를 밤낮으로 힘을 다해 연구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신채호 선생이 대한제국의 지식인들에게 만주연구를 촉구한 보다 긴급한 이유는 “大戰爭” 발발에 대한 예견이었다.<sup>3)</sup> 그가 “비스마르크(Bismarck)나 카부르(C.B.Cavour)와

1) 大韓每日申報. 1910.1.21. 「滿洲問題에 就하여 再論함 續」

2) 大韓每日申報. 1908.7.25. 「韓國과 滿洲」: 韓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强盛하며 他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民族이 劣退하고 又は 他民族中에도 北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北方民族 勢力圈內에 入하며 東方民族이 滿洲를 得하면 韓國이 東方民族 勢力圈內에 入하니 嗚呼라 此는 四千年 鐵案不易의 定例로다.

3) 歐洲의 某國의 强함과 某國의 弱함과 某國의 尊함과 亡함이 恒常 巴爾幹半島 問題부터 始한지라.

같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만주문제에 대해 고뇌할 때”라고 판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가 우려한 바는 만주문제의 불안정성이 大戰爭으로 비화할 가능성이었다. “일정하지 않고 늘 변하는 것이 천하의 대세임에도, 만주는 이미 스스로 자립할 능력이 없는바, 한때 러시아의 세력권이 되었었고 현재 열강의 세력균형 하에 놓이게 되니 향후에는 또 어떠한 만주가 될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거였다. 요컨대 단재는 장래 어떤 “大戰爭”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바로 동양의 발칸인 만주문제에서 비롯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만주문제로부터 전쟁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신채호 선생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바, 각자가 본분에 진력하는 동시에 “장래 우리나라도 어떻게 하면 만주문제에 끼어들 것인가 모두가 나눠 연구할 바”가 그것이다.<sup>4)</sup>

이에 본 논문은 100년 전 신채호 선생의 세계관을 계승하여 만주문제가 어떻게 발칸반도문제와 연동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한다. 아울러 丹齋가 예견한 “大戰爭”으로서의 제1차세계대전이 만주문제와 어떻게 접속되는지를 구명하는 과제도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발칸반도와 만몽지역을 잇는 횡적인 연결고리로서 1907년에 성립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의 협조체제인 ‘4개국양탕트체제(the Quadruple Entente)’를 고찰하고자한다. 통시적으로는 ‘4개국양탕트체제’의 한축을 이루는 러일협약이 滿蒙에서 작동되었던 시기(1907-1912)에 주목하고자한다. 왜냐하면 만주와 몽골 그리고 내몽골을 대상으로 3차례 성립되었던 러일협약(Russo-Japanese Agreement)은 러시아와 일본이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제1차협약, 몽골과 한국을 각각의 세력권으로 인정하기로 한 제2차러일협약(1910. 7.4) 그리고 내몽골을 동부와 서부로 분할하기로 한 제3차러일협약(1912. 7.8)은 발칸반도의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러시아의 유라시아적 특수성에 착목함으로써 만주와 발칸반도의 지리적 접속을 살피고자 한다.

만주문제와 발칸반도의 접속은 1905년 러일전쟁에서 패배한 제정러시아의 동부와 서부의 외곽변방에서 시작된 제국의 균열이 그 발단이였다. 따라서 제정러시아의 대외정책을 고찰함으로써 만주문제와 발칸반도의 연동구조 이해하고 그것이 제1차세계대전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하

---

故로 俾斯麥 加富爾(Camillo Benso Cavour, 1810-1861) 其人이 有면 正히 滿洲問題를 就하야 腦를 費할 日이 아닌가. 且無常히 變動하는 者는 天下의 大勢라 滿洲 自身이 既히 自立할 能力이 無한故로 當年 俄國 勢力內에 歸하며 今日 列強 均等內에 歸하니 明日 又 明日에는 又何如한 滿洲 될는지 難知며 又次問題로 出하여 將來 何許 大戰爭이 出할는지도 難知니 奇壯하다 滿洲風雲의 舞臺에 有志男兒의 出現을 促하는도다.(大韓每日申報. 1910.1.21.)

4) 何如히 하면 將來 我國民도 此等問題에 容喙함을 得할가 함이 皆公等の 分니 研究할 바니라.(大韓每日申報. 1910.1.21.)

고자 한다. 첫째, 한일병합이 러청관계 변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1905년 러시아의 패전, 1908년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 1909년 일본정부의 한국병합 방침수립, 1909년말 미국 태프트 행정부의 만주철도중립화계획, 1910년 제2차러일협약 체결(7.4), 한일병합(8.29) 그리고 청국의 대러통상조약 개정요구에서 나타나듯이 발칸반도와 만주에서 발생한 일련의 국제적 사건들은 긴밀하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종래의 불평등한 러청관계를 변경시키려는 청국과 이를 지지한 미국과의 美淸共助의 수립과 만주의 현상유지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이 공조체제를 수립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양대 공조체제간의 대립은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추구한 청국과 미국 그리고 만주를 중국에서 분리하고자 한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美淸共助와 露日共助체제간의 대립이 후자의 승리로 해소되는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칸변수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 같은 주제들에 대한 연구가 1) 러시아와 일본이 내몽골을 분할하기로 합의한 제3차 러일협약체결의 내용과 의미를 살피고<sup>5)</sup> 2) 그것이 발칸반도의 국제정세와 맞물리고 있음을 파악하여 3) 글로벌히스토리의 거시적 시각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아시아적 기원 문제를 고찰해보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아울러 만몽문제와 발칸반도의 연동과정을 구명하기 위해 公刊자료인 일본의외교문서(日本外交文書), 미국대외관계자료집(Foreign Relations of United States) 그리고 제1차세계대전 관련 영국문서집(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을 활용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아국립역사문서보관소(Р Г И А) 소장 자료를 발굴하여 인용했음을 밝히둔다.

5) 제3차러일협약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단지 일본의 吉村道男[吉村道男, 「第三回日露協約成立前後 -露蒙協約との関連において-, 『國際政治』, 31號, 1965.] 과 국내의 배경한 교수의 성과 [배경한, 「동아시아역사속의 신해혁명 - 공화혁명의 확산과 동아시아국제질서의 재편-, 『東洋史學研究』, 제117집, 2011.]들이 이 주제의 연구공백을 부분적으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요시무라는 외몽골의 독립과 露蒙修好協約체결(1912. 11.3) 전후의 동아시아 정세에 초점을 맞춰 주로 일본의 對滿蒙정책을 살피고 있다. 반면 배 교수는 신해혁명을 전후한 티베트와 몽골의 독립요구와 그에 대한 중화민국의 대응을 검토하고 변방의 독립의 의미를 고찰했다. 전자가 몽골의 독립을 둘러싼 러일의 양국의 정책을 고찰했다면 후자는 신해혁명기 변방 소수민족의 독립의 의미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조망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신해혁명기 중국변경의 위기를 러일 양국 또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이 위기가 갖는 세계사적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신해혁명은 유럽의 발칸위기와 동시대적 사건으로서, 제국주의 열강, 특히 영국은 중국사태보다는 발칸의 위기를 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2. 한일병합 이후 러시아의 만몽정책과 청국의 대응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전쟁을 종결짓는 포츠머스강화조약(1905.9.5)를 체결한 이후 만주, 몽골, 티베트를 잇는 청국의 북방변경벨트는 제국주의 열강의 외교적 타협에 의해 분할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청국의 북방변경벨트 위기의 출발점이 러일간의 각축의 대상이었던 한반도였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한일병합이 滿蒙問題와 접속되어 장기적인 중국북방변경의 위기와 연동되는 과정은 국가사의 범위를 넘는 트랜스내셔널의 시각에서 변경사를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러일전쟁 이후 초국경사의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할 대표적인 연구주제 가운데 하나가 몽골독립의 역사가 되었다. 왜냐하면 청제국의 와해는 변경의 위기를 동반한바, 몽골의 독립 움직임이 수면위로 부상했기 때문이었다. 러시아와 일본은 1910년 제2차러일협약에서 몽골과 한국을 각각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만일 몽골이 청국에서 분리될 경우, 몽골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와 동등해질 것이었다. 이에 1907년 제1차러일협약의 비밀조관 부속조항에서 합의된 만주분계선에 따라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한 바 있던 러시아와 일본은 몽골·북만주와 한국·남만주에서 각각의 특수권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었다. 이 경우, 滿蒙지역에서 양국간의 세력권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유일한 지역은 바로 내몽골이었다. 이에 한일병합은 한국과 만주를 접속시킴으로써 청제국 변경의 위기의 도화선이 되었다.

우선 러일전쟁(1905)이후 몽골의 독립시기(1911)까지 한반도, 만주, 몽골을 접속시킨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을 살펴보자. 러일전쟁의 패전국인 러시아가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군사력이 아닌 타협과 협상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쓰시마해전(1905.5.28-29)에서 제2태평양함대(발트함대)가 거의 전멸한 사건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러시아해군력의 공백상태는 연해주의 방위 뿐만 아니라 발트해에 연해 있는 수도 페테르부르크(С.Петербург)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했다. 따라서 러시아는 군사력을 복원할 때까지 대외전쟁을 회피해야만 했던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그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재현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의 문제들이 유럽의 그것들과 연동되어 전개되기 시작했다. 요컨대 러일전쟁 이후의 세계사는 구제국의 몰락과정과 맞물리는데 이는 러시아제국의 구심력 약화과정이었다. 제국위기의 징후는 제국의 외곽을 이루던 근동과 극동에서 나타났는데, 발칸반도와 한반도가 그 중심에 있었다.

러시아와 민족적,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발칸반도에 위치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가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 병합(1908.10.6)되었음이 선포<sup>6)</sup>된 지 半年도 되지 않은 1909년 3월 말, 일본의 고무라(小村壽太郎) 외상은 가쓰라(桂太郎) 수상에게 한국병합방침안을 건의하고, 4월 10일 이토(伊藤博文) 통감이 이에 동의한 후 일본정부는 동년 7월 6일 각의에서 이를 확정지었다.<sup>7)</sup> 이는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병합이 일본에게 한국병합의 단초를 제공했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보스니아와 한국은 네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첫째, 보스니아는 1878년 베를린조약(Treaty of Berlin)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한국 역시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일본의 보호국으로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가 양대 조약의 주요채약국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오스트리아와 일본이 각각 무력점령하고 있는 보스니아와 한국을 병합시키기 위해서는 지위변경의 절차가 필요한데 점령지를 제국의 일부로 병합하기 위해 러시아의 동의를 구했다는 점이다. 셋째, 오스트리아는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을 기정사실로 한 후, 러시아의 동의를 구함으로써 후자는 이를 저지시키기 보다는 단지 동의에 대한 대가에 만족해야만 했다.<sup>8)</sup> 일본 역시 제2차 러일협상 과정에서 한국병합을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러시아는 이를 저지하기 보다는 그 반대급부로 북만주와 몽골에 대한 러시아의 권한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넷째, 러시아가 오스트리아와 일본에게 병합문제에 대해 묵인하게 된 원인은 발트해와 연해주의 안전을 고려한 군사적 측면이 강했다. 러시아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을 묵인하는 대가로 오스트리아로부터 러시아군함의 흑해해협 통과를 금지한 베를린조약을 수정함으로써, 흑해함대를 발트해로 이동시켜 쓰시마 해전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발트함대를 복원시키고자 하였다.<sup>9)</sup> 한편 한반도의 경우, 러시아는 연해주 방위와 동청철도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한러국경지역에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고자 했다. 전후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일본의 한국병합을 묵인하는 전제 조건은 연해주 및 극동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위협의 중단이 될 것이었다.

러시아가 자국의 약세를 인정하고 對日妥協을 도모하는 동안, 일본은 청제국이 얼마나 존속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청정부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제대로 파악하

6) Истор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России конец XIX-началоXX века,(М:Междунар. Отношения), 1997. С. 233-245.

7) 방광석, 「메이지정부의 한국지배정책과 이토 히로부미」, 『한국과 이토 히로부미』, (선인:2009), 68-71쪽.

8) История Дипломатии. Т.II(Дипломатия в новое время 1871-1914) М., 1963. С.649-658.

9) Там же.

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바, 만일 청국에서 대규모 혼란과 정치적 변란이 발생한다면 만주에 대한 일본의 기득권이 크게 손상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중하지 못한 현상변경 시도에서 야기되는 기회비용에 대해 일본지도자들은 부담스러워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1909년 5월 13일 주일영국대사 맥도널드(C.Mcdonald)를 만난자리에서 “3년 내에 중국에서 혁명이 발생할 것”이라 예견한 것<sup>10)</sup>도 열강의 대중국 간섭정책이 초래할 수 정치적 부담을 우려한 결과였다. 이토와의 회동에 관해 영국 외상 그레이에게 보낸 맥도널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토는 중국이 극도의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하고 이와 관련된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상호관계 및 개혁정책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청정부와 조정은 권력장악을 위한 음모와 파쟁으로 점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중앙정부를 약화시키고 힘과 능력을 검비한 원세개도 떠남으로써 북경정부에 대화상대가 없다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 유학생들로 이루어진 중국청년당(The Young Chinese Party)이 현재 권리회복정책(the Rights Recovery Policy)에 매진하고 있는데, 이는 일의 순서가 뒤바뀐 “말 앞에 마차를 놓은 형국(Putting the cart before the horse)”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스스로 태만과 부주의로 잃어버린 권리의 회복에 대해 서구열강에게 주장하기 전에, 반드시 말과 마차를 순서대로 배치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지 못한 중국현실에 대한 비판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과거 일본의 경험을 비추어본 결과로서, 그는 과거에 여러차례 타협적인 대외정책을 조언하여 비난을 받은바 있으나, “일본이 집안정돈을 잘하기 전까지는 외국열강에게 말하는 것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고 양보적인 정책을 조언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토에게는 중국이 내정을 정비하기 전에 제국주의 열강에게 권리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내우외환을 부추겨 혁명의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뿐이었다.

이에 이토는 본국출장을 앞둔 맥도널드에게 중국문제에 대한 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함으로써 그의 진의가 영국정부에 전달되기를 희망했다. 그는 동양의 평화가 영일동맹에 의존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이토는 영국인들이 국내문제에 함몰되고 극동보다는 근동의 현안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중국에서 사태의 추이에 예의주시해줄 것을 일본정부는 간절히 원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10) C.MacDonald - E.Grey, 13 May 1909. British Documents on the origin of war, Ed. by G. P. Gooch and Harold Temperley.(이하 BD로 약함)

다. 아울러 중국의 장래와 관련하여, 영국이 현재 중국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히려 인도에서 영국에 커다란 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요컨대 영국이 중국문제에 적극 개입할 것을 기대하는 동맹국 일본의 희망을 저버린다면, 인도에 대한 일본의 방위부담 역시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의미였다. 일본정계의 원로이자 당대의 경제가로서 이토의 이같은 견해는 결국 신해혁명이라는 드라마의 줄거리와 개요를 정리한 시놉시스(sinopsys)가 되었다 할 수 있다. 이후 일본과 영국은 제2차 영일동맹 갱신조약(1905. 8.12) 제3조의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인도에 대한 양국의 공동방위 의무를 삽입한 제3차 갱신조약(1911.7.8)을 체결하고, 1913년 영국이 티벳을 중국과 인도의 완충국가로 삼기위해 인도북부의 심라(Simla)에서 영·중·티벳의 3자회담을 개최한 것도 이를 반증한다.

중국문제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 확대를 촉구한 이토는 이를 바탕으로 남만주에 대한 일본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주일영국대사가 “요동반도의 조차기한이 다가올 경우, 대련항의 장래”에 대한 이토의 입장을 질의하자 그 대답형식으로 표출되었다. 이토는 먼저 일본정부가 장래 대련보다는 여순을 상업항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 후, 조차기한(1923)까지 아마도 살지 못할 것이지만, 요동반도의 중국환부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비록 “남만철도가 수익성이 없고 대장성에서 철도와 항구 유지비용을 대야할 처지가 된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일본은 결코 남만주에서 철수할 의향은 전혀 없었다. 왜냐하면 이토는 일본의 만주정책을 러시아의 그것과 연계시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상당부분 북만주의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상당부분 달려있는 바, 그들이 하얼빈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남(만주)에 남아있을 것”임을 강조했다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토와의 회동에 관한 주일영국대사의 기밀보고서는 신해혁명의 발생뿐만 아니라 그것이 동아시아 정세 전반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토가 앞서 우려한 바와 같이, 청국은 내정의 정비보다는 불평등한 대외관계의 조정과 권리회복에 전력하면서 인접국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러일전쟁의 패전으로 동아시아에서 약세를 노출한 러시아에 대한 청국의 공세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다. 1910년 청국은 10년마다 갱신 혹은 자동 연장하기로 한 러청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1881. 2.14)의 15조에 따라, 이를 러시아와의 조약개정을 성사시킬 호기로 간주했다. 청국이 도모한 러청간의 통상조약 개정은 러시아의 특권폐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1) 신장 및

몽골에서 러시아 상인들의 무관세 무역폐지 2) 중국에서 러시아인의 치외법권 폐지, 3) 신장지역 등지에서 러시아 신민의 토지매입 금지 4) 러시아 소재 중국 영사관 개설권이 그것이다.<sup>11)</sup> 이에 대해 러시아 외무성은 청국이 러청관계의 재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청국과 서구열강과의 새로운 조약관계를 수립을 의도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sup>12)</sup> 요컨대 청정부는 러일전쟁에서의 패전국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기존의 러청관계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중국의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나섰는가? 이는 러시아로 하여금 종래의 러청관계를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호혜적인 새로운 대청관계를 수립해야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였다. 후자의 경우, 중국을 열강의 반열에 올려 평등하고 호혜적인 조약을 체결하는데 러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고 전자의 경우, 청국의 요구를 묵살하는 대신 군사적 충돌가능성에 대비해야만 했다. 1911년 1월 26일 “청국문제 관련 특별회의”가 소집된 이유도 바로 상술한 대청정책노선을 확정짓기 위함이었다.

특별회의를 앞두고 러시아 외상 이즈볼스키는 재무상 코코프초프에게 통상조약 갱신 문제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담긴 기밀서신(1910.12.1)을 발신한바, 이는 청국이 대러통상조약 개정을 시도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즈볼스키는 현재의 러청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변모한 원인으로 한일병합의 법률적 토대가 되었던 제2차러일협약(1910.7.4)의 체결을 지목했다. 왜냐하면 제2차러일협약의 합의사항은 양국간의 만주분할을 재확인하고 러시아에게 몽골지배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기존의 러시아와 청국간에 체결된 외교협정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차러일협약의 비밀조항에서는 양국간의 만주분할 합의와 몽골은 러시아의, 한국은 일본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병합하는 길로 나아가고, 러시아는 몽골의 독립을 지원하여 자국의 세력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외교적 토대의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sup>13)</sup> 따라서 1910년 말 청국이 종래의 러청통상조약 개정을 도모함으로써 촉발된 러청관계의 변경시도는 한일병합이 그 단초를 제공하였다.

11) Моисеев В.А. Россия и Китайв ЦентральнойАзии(вторая половина XIX в.-1917), Барнаул, 2003. С.256.

12) РГИА.

13) 이에 청정부는 제2차러일협약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회람각서(1910.7.21)의 형식으로 천명한 바 있었다. 1) 청정부는 포츠머스강화조약에서 약속된 만주전역에 대한 행정권을 회복하고, 만주의 영토보전 및 기회균등 원칙의 준수, 만주의 통상 및 산업증진을 위한 조치들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청일협정(1905)에서 합의된 만주의 문호개방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즈볼스키는 제2차러일협약에 대한 중국의 의심과 반발에 대해 정면승부를 결정했다. 청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대중국 강경입장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신장·몽골에서 러시아의 특권을 보장한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1881)의 범위를 무력을 통해 만주까지로 확대하는 정책에 방점을 찍게 하였다. 이는 현 단계에서 새로운 러청관계를 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그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 근거는 첫째, 청국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이다. 청국의 사법당국이 외국인의 재산과 통상을 보호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은 외국인의 치외법권 폐지와 영사재판권 폐지 요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이 조세 및 재정체계를 제대로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역시 호혜적인 러청관계 수립불가의 근거가 되었다. 청국의 취약한 재정건전성은 군사력 증강을 더디게 할뿐만 아니라 외국의 영향력에 자주 노출되는 허약한 정부를 만들 수밖에 없는 바, 러시아의 동아시아정책에서 청국은 결코 의존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었다. 그 결과 이즈볼스키는 청국이 가까운 장래에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국인 추방을 부추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러시아에게 청국은 청일전쟁 이후 비밀동맹조약을 체결했던 동맹국은 더 이상 아니었다. 청국을 대등한 협상국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판단은 청국의 조약개정 시도를 무력시위를 통해 제압한다는 정책으로 표출되었다. 짜르정부는 청측에 새로운 요구안을 제시하고 최후통첩의 형식으로 이를 수용토록 압박하는 한편, 군사력으로 이를 관철시킬 준비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청국정부에 러청간의 통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은 불가능한 것임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이에 청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할 조약은 타열강과의 조약체결 있어 결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정표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열강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한 청정부와 1881년의 조약체제 틀 속에 여전히 청국을 속박시키고자한 러시아의 힘겨루기는 1911년초 청국의 대외관계를 더욱 경색시키고 있었다.

청국의 대러통상조약 개정시도와 더불어 러시아외무성이 청국과의 군사적 충돌까지 상정하게 된 배경에는 만주 철도문제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한 청정부의 책략이 있었다. 이는 청정부가 러시아의 東清鐵道(The Chinese Eastern Railway)와 일본의 滿鐵이 만주를 균점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신디케이트의 공조하에 추진한 금애철도(金愛鐵道) 부설사업과 관련이 깊다. 외무상 이즈볼스키가 주미러시아대사 로젠(P. Розен)에게 보낸 훈령(1910.8.1)에 따르면, 이 철도부설 계획은 미국이 중국을 지원함으로써 만주에서 러일의 활동을 방해하는 동시에 만주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 회

복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은행 신디케이트 대리인 스트레이트(W.Straight)가 금애철도 부설을 위한 협의를 위해 러시아 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하여 재무상, 외무상, 및 스톨리핀 총리와 회동한 자리에서 이를 언급함으로써 철도의 부설목적이 알려졌다. 스트레이트가 러시아를 방문한 목적은 만주소재 모든 철도의 국제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함인바, 이는 만주에 부설된 모든 철도의 중립화 계획이 핵심이었다.

러시아 정책당로자들은 이 철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청국과 미국은 기존의 동청철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구화시키려는 경쟁노선을 부설하려는 목적이 불분명하며 2) 금애철도가 여태까지 무방비 상태로 있는 러청국경의 가장 취약한 지역인 아이훈을 향하고 있어 향후 러시아에게 막대한 국경방위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스트레이트는 미국 은행신디케이트의 계획이 러시아의 철도에 침해를 가할 어떠한 정치적 목적도 없음을 전제한 후, 금애철도 부설계획의 본연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 러시아와 일본은 각각의 만주 철도를 결코 포기하려 않을 것이며 2) 미국은 만주에서 독자적인 철도를 보유하려는 중국의 노력을 합법적이고 근거있다고 인정하게 되었다 3) 따라서 신디케이트는 철도부설권을 획득했기 때문에 상기 철도 부설의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스트레이트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이즈볼스키는 “만주에서 미국인의 기업활동과 자본투자에 대해 방해할 의향이 없으나, 계획중인 노선이 러시아철도 관련 기업들에게 손실을 끼치지 않는 호혜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러나 호혜적이라는 기준은 주관적이다. 신설철도가 기존의 동청철도와 만주에서 조금이라는 경쟁이 된다면 결코 호혜적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즈볼스키의 발언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는 미국신디케이트가 금애철도 대신 동청철도를 보완하는 蒙古橫貫鐵道 부설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있었다. 이즈볼스키는 우르가-칼간-북경노선을 부설한다면, 이는 동청철도를 보완하는 노선으로서 러시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그에 따른 협정도 미국과 체결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밝혔기 때문이다.<sup>14)</sup> 그러나 스트레이트가 서둘러 러시아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즈볼스키는 미국은행신디케이트가 러시아를 위해 몽고횡관철도 부설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청정부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러

14) 이즈볼스키는 스트레이트에게 “러시아정부는 미국정부가 만주뿐만 아니라 시베리아와 다양한 통상 산업 활동의 기회가 열려있는 유럽러시아에도 자본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청통상조약 개정하려는 시도는 러청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에 청국의 현상변경 시도가 군사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러시아측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가능성은 농후했다.

### 3. 러시아의 북만주병합정책과 청국의 만주주권회복정책

상술한 청국과 러시아의 대립 배경에는 만몽(滿蒙)문제를 둘러싼 “보편과 특수”라는 상충된 인식차가 자리잡고 있었다. 청국은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위해 대미공조를 추진한바, 이는 미국이 만주의 문호개방과 영토보전이라는 보편의 원칙을 옹호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가 출신인 태프트 대통령시기의 만주정책은 滿蒙을 청국의 일부로 간주한 달러외교로 표출되었고 미국의 대청차관은 만주에 대한 청국정부의 권리회복 정책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 반면, 러시아는 대일공조를 통해 滿蒙분리정책을 고수함으로써 만몽은 러일의 특수이해가 관철되는 자국의 세력권으로 삼고자하였다. 러시아의 이같은 정책은 만몽에서 자국의 특수이해를 보장받기 위해 이곳에 대한 타 열강의 개입을 저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보편의 원리”를 주창한 청국과 미국을 한축으로 하고 “특수의 원칙”을 옹호한 러시아와 일본을 다른 한축으로 하는 대결구도는 만몽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북방변경에 대한 이같은 상충적인 인식차이는 신해혁명 이후 수립된 신중국정부의 안착보다는 혼란을 부추김으로써 중국의 장기적 위기의 근본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청정부가 한일병합 이후 러청관계의 현상변경을 도모함으로써 러시아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신중을 거듭했다. 러일전쟁 패배이후 러시아제국의 외곽을 이루던 발칸반도에 서부터 제국의 붕괴가 시작되었던 바, 1909년 3월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병합한 오스트리아와 전쟁의 위기에 치달았던 짜르정부는 발칸에서의 전철을 극동에서 재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만주에 대한 청국과 미국의 공조계획을 좌절시키고 군사적으로 북만주의 점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같은 러시아측의 대응책은 ‘만주에서의 러시아 군사 정세보고서’를 첨부한 육군상 수호틀리노프가 재무상에게 보낸 기밀서신(1910.12.1)에 정리되어 있다. 육군상은 청정부의 대리입장이 돌변한 계기는 1906년 포츠머스강화조약에 따른 러시아군대의 만주철병인 바, 1910년 현재 만주에 2개 보병사단(요녕성과 길림성에 각 1개 사단)이 신설됨으

로써 반러적인 태도가 노골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더욱이 평시에는 치안유지를 담당하고 전시에는 정규군에 편제되는 “수비대” 명칭의 비정규군, 1910년 봄 만주에 도입된 헌병제도, 비상시 동북삼성 총독이 소집할 수 있는 경찰, 개별 접경지역 군관구에 창설된 30여명 규모의 첩보부대 그리고 만주의 보통학교에 사격을 포함한 군사훈련의 도입 등은 육군성에서도 크게 우려하는 사항이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포츠머스조약 제3조에 따라 동청철도 보호를 위해 1km당 15명으로 주둔군 규모를 제한받고 있었기 때문에, 북만주에서의 이권사업뿐만 아니라 동청철도의 보호까지 위협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육군상은 일본과 체결한 협약에 근거하여 러일간의 공동보조를 통해 북만주를 복속시키는 형태의 근본적인 처방이 없이는 러시아는 만주에서 축출되고 연해주까지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그는 지금이야말로 청국의 군사력 증강이 미진한 북만주와 청정부의 배타적인 행정·사법체계가 뿌리내리지 못한 몽골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할 적기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육군성의 북만주 병합구상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외무상은 득실을 따져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는 러시아의 국내정황상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인 동시에, 중국에게 만주와 몽골에서 러시아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명분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즈볼스키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이 청정부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당연히 우리는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의 국경지역에 대한 합법적인 계승자는 될 것”이었다. 그러나 “만일 현재의 입헌운동이 청국의 부흥으로 이어진다면, 이 틈을 타 획득한 영토는 강력해진 인접국가와 복잡한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러시아는 획득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야만 하는” 모험적인 계획이 될 것임에 틀림없었다. 따라서 1911년 1월 26일 “동아시아문제 특별회의”가 소집된 것도 이같은 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새로운 對淸정책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스톨리핀 총리가 주재하고 육군상, 해군상, 재무상, 통상산업상, 외무상 및 부외상이 참석한 이날회의는 종래의 러시아의 대청무역특권의 유지와 확대를 목표로 삼아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한 압박수단들이 검토되었다. 회의는 러청현안에 대한 외무상의 보고로 시작되었다. 보고의 요지는 짜르정부가 북경주재 러시아공사를 통해 제기한 몽골 서부의 흐드(Khovd)지역 영사관 개설문제와 신장지역 특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러시아 상인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북경정부가 거부의를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러시아는 몽골과 신장지역에 대한 자국의 요구를 청국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군사적 압력을 수반한 대청 최후통첩안을 도출해냈다.

이러한 러시아의 초강경 대응은 만주에서 또다시 발칸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1908년 8월 19일 오-헝제국의 오스트리아 외상 에렌탈은 각료회의를 소집하여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계획을 상정한바, 그 논거로 병합의 반대국가는 러시아와 터키인데, 양국 모두 군사력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병합추진의 호기가 도래했음을 강조하였었다. 그 후 1908년 9월 15일 에렌탈 외상이 이즈볼스키에게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은 결정되었음을 통고했을 때, 오스트리아로부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저항에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러시아는 1909년 3월 오스트리아-독일 연합군과 전쟁직전의 위기로까지 몰리면서 발칸문제를 둘러싼 외교상의 실패를 절감하였다. 따라서 한일병합 이후 청국의 대리 현상변경요구에 직면한 러시아는 발칸의 전철을 결코 되풀이할 수 없었다. 이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제국의 붕괴가 변방에서부터 점차 구체화되고 있음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현이기도 하였다.

이에 특별회의에서는 무력시위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만주 현지에서 군사시위 방책은 그곳이 제3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대신, 신장(新疆)의 일리(伊犁)지역 근방의 러시아령에 군대를 집결하여 러청통상조약 갱신협상과정에 압력을 행사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러청통상 관련 상트페테르부르크조약 갱신기한인 1911년 2월 20일 이전에 대청 최후통첩을 발송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르켄트(Jarkent) 주둔부대를 일리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신장과 몽골에서의 무관세 무역특권유지를 포함한 6개조 최후통첩<sup>15)</sup>이 1911년 2월 16일 북경정부에 전달됨으로써 러청양국은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발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러시아는 러청간의 전쟁위기가 무력충돌로 확대될 경우, 그 결과를 자신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러청국경의 일리(伊犁)지역에 러시아군대를 배치시키되, 결코 국경을 넘지 않기로 한 상기 특별회의의 결정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러시아가 대청 압박수단으로 군사적 위협의 성공여부에 자신감을 갖지 못했다면, 그들의 기득권 유지와 특권획득의 방책으로 고민한 해법은 바로 “일본카드”였다. 이미 만주의 분할 관련 제1차협약과 한국병합 관련 제2차협약을 성사시킨 바 있었던 외교적 경험은 대청압박을 위한 러일간의 외교공조를 의미하는 ‘일본카드’의 활용에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카드’는 러청간의 위

15) 1) 신장과 몽골에서의 무관세 무역특권유지, 2) 국경지역 50리 이내에서의 무관세 무역유지 3) 치외법권적 지위유지 4) 중국에서 토지 및 거물축조 권리 5) 자국 국경내에서는 수출입관세를 단독 부과 6) 흐드(Khovd), 하미(哈密), 고성(古城)지역의 영사관 개설권을 포함한 6개조 최후통첩

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북경주재 러시아공사 코로스토베츠가 외상에게 보낸 보고서(1911.2.23)는 최후통첩을 둘러싼 청국과 일본의 반응을 분석하고 있었다. 청국의 경우, 부외상 후웨이더(胡惟德, 1863- 1933)는 러시아의 최후통첩에 대한 자국정부의 회신을 전달하면서, 제기된 문제는 청정부의 음모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방관들이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오해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통상조약 갱신을 둘러싼 러청간의 갈등이 단지 일본에게만 유리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일본 역시 갱신에 따른 동등한 특혜를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당초 러청통상조약 개정을 염두에 두었던 청정부가 이를 부분적으로 수정하는데 국한시키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힌 후웨이더는 러시아와 우호관계 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결국 청국의 대리정책의 변화에는 러청통상조약 갱신을 둘러싼 협상과정에 개입하고자한 일본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했다.

러시아 역시 러청통상조약 갱신문제에 외교적으로 지원한 일본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했다. 동아시아문제에 대한 러일공조라는 큰 틀에서 양국은 협력하였지만, 중국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공조에 대해 러시아는 신뢰하지 않았다. 일본이 이중정책을 구사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측에서 먼저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후자는 중국문제에 대한 러일공조는 결코 신뢰할 만큼의 수준에 다다랐다고 인정하지 못할 것이었다.

이는 코로스토베츠의 보고서에서도 재확인된다. 駐北京日本公使 혼다(本田)가 일본 외상의 훈령에 따라 청정부에 러시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도록 조언한 후, 이를 주청 러시아공사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공사는 일본측의 진의를 의심했기 때문이다.<sup>16)</sup> 그 후 혼다는 중국외상 나퉁(那桐:1856-1925)을 방문, 일본은 우호적인 중러관계를 희망하며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도록 조언함으로써 후자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통보했을 때에도 코로스토베츠의 입장은 마찬가지였다. 주청러시아공사는 일본의 개입 원인을 3가지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첫째, 일본은 러시아가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독자적인 행동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둘째, 아시아 대륙, 특히 중국문제에 대한 헤게모니를 지향하는 일본으로서 對清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행동을 좌시할 수 없으며 셋째, 장기적으로 쿨자(Kuldja) 지방이 러시아의 수중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그것이

16) 그 후 혼다는 재차 코로스토베츠를 방문, 중국외상 나퉁(那桐:1856-1925)을 방문, 일본은 우호적인 중러관계를 바란다고 말하고,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하지 말 것을 제안하여 나퉁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통보했음.

다. 결국 러청갈등에 중재자를 자임한 일본은 러시아에게는 청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조력자로서, 청국에게는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했다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부각시키고자 하였으나 러청양국은 그 이중정책의 본질을 간파하고 말았다. 따라서 러청 양국의 대일불신이 청국의 서북변경에서의 무력충돌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주요원인이 되었다.

그 결과 러시아는 한편으로 제2차러일협약(1910)에 근거한 러일공조의 한계를 절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정부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는 군사적 압력을 통해 당초 확보하고자 한 본연의 목적은 이룰 수 있었다. 더욱이 러시아는 일본이 제2차러일협약에 근거하여 한국을 병합한 전례를 따라, 이제 몽골을 자국의 배타적인 세력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자 했다. 이에 러시아의 최후통첩 관련 중국 언론보도를 보고한 북경주재 공사 코로스토베츠의 보고서는 만몽문제를 둘러싼 짜르정부의 정책방향의 가늠자가 되었다. 그의 보고에 따르면, “중국 언론에서 러시아의 최후통첩이 어떤 침략적인 행동보다는 몽골을 점령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움직임이 몽골의 문호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열강의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청정부 역시 한일병합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는바, 러시아는 제2차러일협약에 따라 청제국으로부터 몽골을 독립시키고 그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에 몽골을 청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시켜 자국의 세력권에 포함시키려한 러시아와 몽골을 자국의 판도 속에 묶어 두기위해 대미공조를 지속하고자 한 청정부간의 대립이 재차 부상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이후부터 형성된 만몽문제를 둘러싼 露、日대 美、淸의 대립구도는 중국북방변경이 새로운 판도로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노정되었다. 1909년 미국무장관 녹스의 주도로 제안된 만주철도중립화안이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대응을 야기했듯이 미국이 만주개발 자금을 포함한 대청차관을 주도한 것은 러일의 관계강화의 기제가 되고 말았다. 1911년 봄 미국의 대청차관은 한일병합 이후 일본의 대리지원의 한계를 경험했던 러시아에게 미국에 맞선 제3차러일공조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청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하고 만주에서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1911년 4월 5일 차관도입 협정을 체결한 것은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운동의 산물이었다. 청국의 재무대신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4개국 공동차관단이 체결한 이 협정은 차관총액 5천만불(\$50,000,000) 가운데 만주산업발전에 할당될 자금 이천만불(\$20,

000, 000)이 포함된 바, 이는 청정부의 만주에서의 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만주에 대한 지배력회복 의지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청국과 4개국 은행단간의 차관협정은 1907년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세력권으로 획정하고 있던 러시아와 일본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을 시도한 청국 및 차관을 통해 이를 지원한 미국과 만주에 대한 현상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한 러일의 대립구도가 형성되었다. 미청과 러일의 대립은 그 결과에 따라 대조적인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구상이 실현될 경우, 청정부는 만주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주권회복과 문호개방을 약속할 수 있을 것이고, 후자의 경우, 만몽에 대한 러일 양국의 독점이 강화될 것이었다.

이 차관은 당초 미청통상조약(1903.10.8) 제13조에서 청정부가 전 중국에서 통용되는 단일화폐 채택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결정에서 비롯되었다.<sup>17)</sup> 이에 1910년 봄 주미청국 대사는 미국무성에 청정부의 이같은 결정을 통보한 후, 1910년 6월 14일 국무성을 방문, 이 문제를 협의하였다. 동년 10월 2일 청정부는 주청미국대사를 통해, 만일 미국은행들이 차관제공을 주관한다면, 만주에 할당된 차관 2천만냥을 포함한 총규모 5천만냥(tael)의 차관을 5천만달러(\$)로 증액할 예정임을 알려왔다. 아울러 화폐개혁을 도와줄 재정고문으로 미국인을 임명할 것임을 약속한 청정부에 대해 모건 신디케이트(Morgan Syndicate)가 주간사인 미국은행단은 이를 수락하였다.<sup>18)</sup> 요컨대 청정부는 “달러외교(Dollar Diplomacy)”를 표방한 미국의 태프트행정부에 대청차관을 구실로 만주문제에 깊숙이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청국의 기대와는 달리 단독차관 보다는 유럽은행들과의 공동차관 형식을 선호했다. 화폐개혁은 청국과 조약을 체결하여 통상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을 완수하는데 있어 청국과 이해당사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그 명분이었다.<sup>19)</sup> 이는 태프트 행정부의 대청정책을 주도한 국무장관 녹스의 주청미국전권공사에게 보낸 각서에 잘 나타나있다. 녹스는 “자본을 투자한 국가들은 그곳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자원개발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전제한 후, “청정부가 화폐개혁차관에 여타국가의 자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동의해주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이는 문호개방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토대로 달러를 신탁으로 삼아 평화적으로

17) The Secretary of State to the Special Envoy of China, 1911. 1. 18. Notes on the course of the loan negotiations now pending at Peking, FRUS, 1912. pp. 92-93.

18) Calhoun-Knox, 1910.10.2, FRUS, 1912. pp. 90.

19) The Acting Secretary of State to the American Ambassador to France, 1910.10.31, FRUS, 1912. pp. 91-92.



중국시장으로 침투하려는 미국의 “달러외교”의 장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요컨대 “달러외교”란 차관제공국이 평화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수혜국은 차관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매우 이상적인 외교형태로 간주되었다. 이에 1910년 10월 27일 청재무대신은 미국이 채권의 대부분을 보유함으로써 차관의 통제권을 갖는다는 조건으로, 차관단에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기에 이르렀다.<sup>20)</sup>

그러나 녹스가 주도한 달러외교는 이상주의적 원칙을 추구함으로써 동시에 비현실인 측면도 강했다. 이는 청국의 개혁정책의 한계이기도 한바, 무엇보다 청국에 이해를 가진 모든 열강이 이를 지지하고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녹스가 지적한대로, 중국의 개혁정책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열강이 있을 경우, 청정부는 결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청국의 개혁에 무관심한 일부국가들을 적극적인 지지국으로 변모시킬 강제력을 과연 미국의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청국의 개혁정책 성공의 관건이었다. 청국과 이해당사국 모두가 청국의 개혁에 협력할 경우, 성공의 과실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개혁에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을 경우, 그들을 강제할 힘과 제도를 미국은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청국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 미국과 특정지역의 기득권 유지라는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 국가들간의 대립은 이후 보편과 특수라는 중국 근대사 전개에 핵심축이 되었다.

청정부가 화폐개혁 및 만주산업개발을 위한 차관예비협정에 서명하던 날, 러시아의 부외상 네라토프는 만주에서 러시아의 기득권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는 청정부의 만주 산업 개발계획과 군사력 증강정책이 만주에 부설된 러시아철도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정세판단에서 비롯되었다. 러시아는 의화단 사건으로 자국철도 대한 청국의 파괴공작을 경험하고 1900년 만주점령을 통해 이를 해결한 바 있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군대의 만주철병이 이루어진 반면, 청정부가 오히려 만주진흥을 위한 경제개발 및 군비증강을 적극화함에 따라 만주에 부설된 러시아철도인 동청철도의 보호는 초미의 급선무가 되었다. 그럼에도 문제는 만주주둔 러시아군대의 증강의 제약요인이 있다는 점이었다. 첫째, 포츠머스조약에 의해 러시아군대의 만주주둔 규모가 제한되었고, 둘째, 러시아가 1개 사단을 증가시키더라도 이에 맞서 청국이 2개 사단을 증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 있었다. 이에 네라토프는 일본과 이 문제를 논의하여 궁극적으로 러청일 3국간의 협정체결을 최선의 해법으로 상정했다. 만주에서 평화유지를 목적으로 한 3국협정체제에 청국정부를 끌어들이고 만주에서 군사조치를 취할 경

20) Calhoun-Knox, 1910.10.27, FRUS, 1912. pp. 91.

우, 계약국간의 상호협정을 준수한다는 조약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이 “三國協定締結論”의 골간이었다.<sup>21)</sup> 요컨대 법률로써 만주에 대한 자국의 이해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따라서 만일 청국정부가 3국협정에 참여거부를 한다면, 러시아는 일본과 공동으로 중국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청국이 만주주둔 자국군대의 규모와 배치에 관한 의무를 지도록 한다는 것이 그 요체였다.

네라토프가 주러일본대사 모토노를 만나 청정부의 만주에 대한 지배권 강화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한 것도 이같은 그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문제에 대한 현격한 견해차를 드러냈다. 전자는 청국의 만주군 증강이 야기할 수 있는 철도파괴를 우려했던 반면, 후자는 청국군대가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위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 혹은 일본을 공격할 수준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게 위협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모토노는 그가 예견하는 유일한 위협으로 미국을 지목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현재 건설중인 “파나마운하(Panama Canal)가 완공되면, 태평양의 미국함대는 매우 강력해짐으로써 일본은 공격보다는 수비에 급급해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모토노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러일 양국은 청국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해야만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그는 일본정부에 러시아의 입장을 전달할 것임을 약속하고 만주에서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과 관련하여 양국간의 협의는 도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2)</sup> 모토노에게는 러시아가 우려하는 만주에서의 청국군대 증강보다, 미국의 만주시장 침투가 훨씬 심각한 위협이었다.

일본정부가 동아시아정책에 대한 새로운 판짜기를 구상한 것도 미일간의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영국과의 동맹관계 역시 현저하게 약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부전조약을 체결한 영국과 제3차영일동맹(1911)이 체결된 상황에서 어떠한 일본인도 미일전쟁시 영국의 지원을 기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이 동맹이 일본의 팽창을 억압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요컨대 영일동맹은 체결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동맹외교의 주축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다. 이는 일본정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인 현실이었다.

21) 1911년 4월 2일, 임시외상 네라토프가 총리대신 스톨리핀에게 보낸 기밀서신

22) Neratoff to the Russian Ambassador at Tokio. April 29 1911. p.31.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 4. 러일의 내몽골 분할과 발칸문제의 접속

이에 일본정부가 현상타개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주목한 나라는 다름 아닌 러시아였다. 이는 주일러시아대사 말렙스키-말레비치가 귀국을 앞두고 일본정계의 주요거물들과 일련의 회동을 한 사실과 깊은 관계가 있다.<sup>23)</sup> 러시아대사를 방문하여 휴가를 잘 다녀오라는 안부를 전한 뒤, 러일협정 체결의 이익에 대해 설파한 사람은 야마가타였다.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가 “양국간의 관계를 보다 공고히하고 극동의 평화를 위해 아시아대륙에서 상호이해를 제고할 것을 희망”한 야마가타의 발언에 주목한 계기는 후자가 천황과 매우 지근한 사이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야마가타와의 회동 직후 러시아대사를 자신의 별장으로 초대하여 러일관계의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한 이는 수상 카츠라이다. 수상은 이토부터 시작하여 야마가타에 이르기까지 러일간의 우호관계 수립과 대러접근의 당위성을 주장한 일본정계 지도자들의 견해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천황이 승인하고 지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천황, 원로, 각료들이 대러접근에 공감하고 지지한 궁극의 목적을 카츠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만일 양국 국민간의 우의가 지속적으로 향상된다면, 양국은 극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에 정치·경제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열강간의 각축의 중심으로 태평양이 부상하게 될 때” 양국간의 공조의 효력이 각별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당로자들은 향후 도래하게 될 태평양시대의 패권장악을 위해, 미국과의 중재조약이나 영국과의 동맹강화 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태평양시대를 대비할 러일공조의 출발점으로 카츠라는 중국, 특히 만주를 지목했다. 말렙스키-말레비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쓰라는 현재 중국이 극동을 둘러싼 열강의 격전장이 되었기 때문에 양국간의 정치적 공조가 더욱 필요하며, 특히 만주의 경우 러일 양국이 주인임을 표방해야만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중국내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하고 제3국의 일체의 간섭도 허락하지 않는 정황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따라서 만주의 산업진흥을 위한 미국주도의 4개국 공동차관은 러일 양국으로 하여금 만주문제에 대해 공동행동하기로 결정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카츠라 수상이 4개국공동차관에 반대한 속내는 무엇인가? 중국의 내부사정에 밝은 그가 외국차관에 반대한 이유는 다음의 2가지 였다. 첫째, 청정부내에 협상력과 권위를 갖춘

23) Секретная записк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ца, 27 Июня 1911 г. Л.56-60об.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 둘째, 외자를 끌어들이며 내정을 개혁하려는 청정부의 정책방향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차관의존정책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카츠라의 비판은 청국이 대외채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결국 국가파산으로 이끌어 독립을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었다. 요컨대 외국채권단은 지급보증을 요구하며 중국의 재정을 국제적으로 감독하는 문제를 제기할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이에 카츠라는 이러한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에서 양국의 이해를 보장할 공동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츠라의 이같은 견해는 주일러시아대사가 본국 출발 전 외무성에 들렀을 때 고무라 외상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외상 역시 청국의 정황을 위기상황으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러일양국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무라가 주목한 청정부의 위기는 외국 차관 도입에서 비롯된 재정위기가 그 본령이었다. 외상의 진단에 따르면, 첫째, 청정부는 일단 외자유치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차관에 의존하게 되어 머지않아 심각한 채무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둘째, 값싼 이자의 대규모 차관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채무 보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점 셋째, 청국은 행정개혁과 화폐제도 개선을 위한 외국차관이 필요하지만, 차관 운용에 미숙한 청국인들이 외자유치의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고무라는 현재 청국의 재정상태로 미루어 중국이 제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지는 의문이며, 이는 조만간 국가파산으로 귀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은 청국의 파산사태에 대비해야하는 바, 만주에 대한 양국의 권리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일본외상의 견해는 신해혁명 발발 이전부터 일본당로자들은 청국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무라는 청국의 국가부도사태 뿐만 아니라 4억 인구의 청국에서 新軍은 4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정부가 과연 개혁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소요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왜냐하면 청국에서 반정부진영에 혁명운동을 지도할만한 강력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혁명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것이 청국경제에 끼칠 엄청난 악영향은 청국의 재정파탄을 앞당길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고무라는 “일본의 대리접근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천황이 원하는 사항임을 러시아정부에 꼭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다. 러시아출발 당일 교통상 고토가 직접 말렙스키-말레비치 대사를 찾아와 러일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할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제 러시아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편승할 것인지 고민에 빠졌다.

러시아가 대일공조를 통해 만몽에서 자국의 권익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계기는 신해혁명의 발발이었다. 1911년 9월 3일 주청미국대리공사 윌리엄스(E.T.Williams)는 미국무부에 청국의 사천성에서 외국인의 철도부설에 반대하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여 호남성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고함으로써 예견되었던 혁명과 더불어 청제국의 와해가 가시화되었다. 청제국의 와해는 변경의 위기를 동반했는데 봉합되어 있던 몽골의 독립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러시아와 일본은 1910년 제2차러일협약에서 몽골과 한국을 각각의 특수이해 지역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만일 몽골이 청국에서 분리될 경우, 몽골에서 러시아의 지위는 한국에서 일본의 지위와 동등해질 것이었다. 이에 1907년 제1차러일협약의 비밀조관 부속조항에서 합의된 만주분계선에 따라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한 바 있던 러시아와 일본은 몽골·북만주와 한국·남만주에서 각각의 특수권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었다. 이에 滿蒙지역에서 양국간의 세력권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던 유일한 지역은 바로 내몽골이었다. 따라서 신해혁명에서 비롯된 중국의 정치 불안은 청제국 변경의 위기로 변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따라서 신해혁명은 몽골의 독립선언(1911.11.30), 러일의 내몽골분할(1912.7.8), 러몽협약 체결(1912.11.3)로 이어지는 중국북방변경 위기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한 제3차러일협약은 단지 일본과 러시아 양국간의 협상의 산물일 뿐, 결코 청국이 동의하거나 묵인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다. 청제국의 서북변경을 구성하고 있던 몽골은 외몽골의 경우, 독립선언을 거쳐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내몽골은 동서로 획분되어 러일의 세력권으로 변모된 과정은 청제국의 위기, 몽골의 독립의지, 러시아와 일본의 만몽침략정책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국제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있었다.

특히 신해혁명기 내몽골 문제의 관전 포인트는 다음의 두 가지인데, 첫째, “신해혁명”이라는 청제국의 위기는 유럽의 발칸반도의 위기와 연동됨으로써 제1차세계대전 직전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위기의 일익을 담당했고 둘째, 일본의 동맹국인 영국과 러시아의 동맹국인 프랑스는 신해혁명보다는 유럽의 발칸위기를 보다 중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는 세계적 규모의 제국주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가 아시아보다는 유럽에 관심을 집중해주길 원했다. 러시아가 중국보다는 발칸위기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에는 러시아가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한 몽골, 북만주, 중국서부에 대한 특권을 승인하기에 이른다. 이에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이 상호 동맹과 협상체결을 통해 형성한 4개국양탕트체제(Quadruple Entente System)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제국주의 시기 국제관계를 재단하고 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

였다. 요컨대 4개국양탕트체제는 정치적 의미의 카르텔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일본외무성이 모종의 외교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이에 일본외무성은 1912년 12월 28일 몽골이 독립을 선언한 이후 내무, 외교, 군정, 재정, 사법의 5부를 설치하여 정부를 조직한 문제에 주목한 바, 몽골의 승인을 둘러싸고 러일간의 외교적 타협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이는 사이온지(西園寺) 내각의 소극적인 對淸정책에 대한 야마가타(山縣有朋)와 육군수뇌부의 노골적인 비판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따라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던 우치다 외상은 남만주의 외연확장에 착목하게 되었다. 그는 제1차러일협약(1907.7.30)에서 획정한 북만주와 남만주의 분계선을 서부로 연장하여 내몽골을 동서로 양분함으로써 남만주와 맞닿아 있는 내몽골 동부로 자국의 세력범위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내몽골의 동부는 일본의 특수이권 지역으로, 서부는 러시아의 그것으로 승인하는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남만주에 한정된 일본의 세력권을 내몽골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군사력이 아닌 러시아와의 외교협상을 통해 성취되어야 할 것이었다.

우치다는 그 실마리를 제1차러일협약 제3조에서 찾았다. 여기에서 일본은 외몽골에서 러시아의 특수이해를 인정하되 있었지만, 내몽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에 우치다는 1912년 1월 10일 주러대사 구리노에게 러일 양국이 내몽골에서의 세력범위를 설정할 적당한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전제하고, “내몽골의 장가구(張家口)-고륜(庫倫)을 잇는 대도(大道)를 경계로 동서로 양분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sup>24)</sup> 그러나 구리노는 이 문제에 대한 답판은 시작하지 않는 것이 得策임을 진언한바, 현재 러시아가 기회가 되면 만주의 분할을 단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강력한 결심이 서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sup>25)</sup> 더욱이 만주의 분할은 청국사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던 사이온지 내각에게 결코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던 일본정부는 남만주에서 내몽골로 세력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모색에 관심을 거두지 않았다. 결국 우치다는 러시아정부가 공식적으로 몽골과 외몽골의 명확한 용어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내몽골 문제를 양국간의 공식의제로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1912년 1월 11일 몽골의 독립에 관한 러시아 외무성의 성명에서 “러시아는 몽골을 침략할 야심은 없지만, 몽고에 커다란 이

24)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冊, pp.40-43. 內田外務大臣-露國本野大使, 1912.1.10.

25) 위의 책. pp.44-45.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1.13.

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몽골이 청국과 관계를 단절할 경우, 몽고 정부와 업무상 관계를 개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의 성명을 발표한 것<sup>26)</sup>이 그 발단이 되었다. 여기에서 일본외상 우치다는 외몽골과 구분하지 않고 시종일관 사용된 “몽골”이라는 용어가 내몽골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를 묵과할 경우, 러시아는 제1차러일협약 제3조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광대한 전몽골(全蒙古)을 특수이해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27)</sup> 따라서 “양국간의 오해의 소지를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내몽골에서 양국간의 세력범위 획정을 둘러싼 교섭이 시작되었다. 당연히 교섭의 초점은 내몽골의 동서분계선의 기준설정 문제가 될 것이었다.

그러나 러일 양국은 내몽골 분할을 즉각 단행할 수 없었다. 열강의 견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는 내몽골의 분할이 열강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열강은 “중국사태에 대한 열강의 공동행동”이라는 명분하에 러일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러일을 견제하려 하였다. 그렇다면 “열강의 공동행동”이라는 골레에 대해 러일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1912년 2월 26일 주일러시아공사 브로넵스키의 보고서에 따르면, 2월1일 독일외무성은 ‘베를린 주재 외교대표단의 의견’이라는 명분으로, 駐獨日本公使에게 중국사태에 개입이 필요할 경우, 열강은 공동행동 해야만 할 것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sup>28)</sup> 이에 우치다 외상은 “공동과 특수이익”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이에 대응했다. 그는 주독공사에게 “본국정부 역시 중국에서 열강의 공동이해와 관련될 경우, 공동행동을 유지할 것이나, 일본의 특수이익에 관련된 지역일 경우, 일본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회신토록 지시했다.

한편 러시아의 사조노프 외상은 원세개가 이끄는 중국의 신정부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는 열강의 신정부 승인 이전에 국제신디케이트가 원세개가 요구하는 대중차관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차관은 중국인 스스로 무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국과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위협이 될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 또한 대중차관은 러시아의 관심을 유럽보다는 극동에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의 이익이 은행가들의 사적인 이해에 복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과연 러시아가 모든 관심과 힘을 극동으로 돌리는 것이 3국협상 진영의 이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영국외상 그레이(E.Grey)와 따져볼 것을 주영러시아대사 벤켄도르프(A.K. Бенкендорф)에게 지시한 사조노프의 훈령(1912. 3.18)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sup>29)</sup>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패는 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주의

26)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册, pp.43-44. 露國本野大使-内田外務大臣, 1912.1.11.

27) 위의 책. pp.48-49. 露國本野大使-内田外務大臣, 1912.1.16.

28) 1912년 2월 13일 주일러시아대사관의 브로넵스키 공사의 기밀전문

에 맞서고 있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3국협상(Trifile Entente)측의 이해와 맞물리기 시작했다. 3월 22일 벤켄도르프에게 보낸 전문에서 사조노프는 “대청차관의 조건은 러시아가 극동에서 자국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유럽과 발칸에서 관심을 거두지 않아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삼국협상국 공통의 이익”임을 통보했다.<sup>30)</sup> 이는 유럽에서 독일의 패권주의에 맞서기 위해 영국과 러시아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러시아의 이해보장이 선결과제임을 의미했다.

이에 영국정부는 러시아가 우려한 대중차관 보다는 “3국협상의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유럽에서 독일을 겨냥한 3국협상의 결속력 강화에 매진하는 동시에 중국문제에서 러시아의 이해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될 것이었다. 더욱이 영국정부의 이 같은 입장이 1912년 4월 2일 주미영국대사에 의해 미국무성에 전달<sup>31)</sup>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미국이 견지한 중국의 문호개방정책을 지지했던 기존노선을 방기하고 중국에 특정국가의 특수이해지역이 존재한다는 러시아와 일본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했던 것이다.

이는 상술한 미국무부 부장관 윌슨(H.Wilson)에게 전달된 영국정부의 공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영국의 그레이 외상이 주영 러시아대사에게 “영국정부는 러시아가 만주, 몽골, 중국서부(the Chinese west) 지역에서 중국과 조약에 근거한 특권과 특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는 것이었다. 비록 “중국과 체결한 조약에 따른 특권과 특수이익”이라는 조건을 붙였지만, 영국이 상가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단지 러일간의 내몽골 분할 작업에 힘을 실어주는 의미만은 아니었다. 이는 향후 英淸간의 티베트 분할문제(1914)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기 위한 사전포석이기도 했다. 결국 의화단 사건(1899)을 계기로 대두되었던 중국의 문호개방 원칙은 1912년 봄이 되어 이제 중국에 이해관계를 가진 열강이 준수해야 할 불변의 진리에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유명무실한 원칙이 되고 말았다. 이로써 청일전쟁 이후 과분의 위기에 처해있었음에 불구하고 영토를 보전했던 청제국은 문호개방이라는 열강의 대청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무너짐에 따라 구심력이 약했던 변방부터 위기와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1912년에 접어들면서 내몽골의 분할, 티베트의 독립도 문호개방과 영토보전 원칙 파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결국 滿蒙의 문호개방(Open Door)을 추구한 미국과 다른 한편으로 만몽에서 특수이익을 보호하려는 露日의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는 영국이 쥐게 되었다. 그러나 영국은

29) Sazonoff - Benkendorff, 1912.3.18.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pp.37.

30) Sazonoff - Benkendorff, 1912.3.22. Ibid.

31) J.Brys - H.Wilson, 1912. 4. 2. FRUS. 1912. pp. 76.



독일과의 패권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1912년 6월 10일 주영미국대사 레이드가 미국무장관 녹스에게 “몽골과 만주에서 러시아와 일본의 특수권리를 천명한 것에 대해 영국정부는 그러한 권리들을 인정할 것이나, 동시에 문호개방 원칙도 확인할 것”이라는 영국 외무성의 극동국장 랭글리(W.Langley)의 전언을 타전했기 때문이었다.<sup>32)</sup> 영국의 이같은 입장은 일견 절충적이었지만, 사실상 만몽지역에 대한 러일의 특수이익을 승인한 것으로서, 만몽에서의 문호개방은 러일 양국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 되고 말았다. 결국 내몽골 분할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영국정부가 제공하였다. 이제 전직 일본수상 카츠라가 러시아를 방문하여 내몽골 분할을 골자로 하는 러일간의 제3차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수순만 남게 되었다.

이에 러시아외상이 주영대사에게 전문으로 보낸 극비문서는 다름 아닌 몽골 관련 러일협약의 초안이었다.<sup>33)</sup> 러일 양국간의 협약체결 이전에 영국에게 비밀협약 초안을 사전 통지하는 절차는 4국(英佛日露) 양탕트체제의 작동 메카니즘이었다.<sup>34)</sup> 결국 1912년 7월 8일에 체결된 내몽골분할을 위한 비밀협약은 전문과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문에는 체결목적을 밝히고 있는 바, 1) 제1차러일협약(1910)과 제2차러일협약(1910)의 조문을 보완함으로써 만몽에서 각자의 특수이익에 관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2) 제1차러일협약의 추가조관에서 정한 만주의 분계선을 연장하여 내몽골에서의 각자 특수 이익지역을 획정한다는 것이 그 요지였다. 제1조에서는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하는 분계선에서 출발하여 내몽골의 경계를 정의하고, 제2조에서는 북경의 경도(동경116도 27분)를 기준으로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여 동부는 일본의 특수이익권으로 서부는 러시아의 그것으로 승인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하였다. 제3조에서는 협약 양국이 이 협약을 비밀에 부치기로 합의하였다.<sup>35)</sup>

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외상 사조노프와 주러일본대사 모토노가 협약을 체결하던 당일, 전직 수상 카츠라(桂太郎)가 고토(後藤新平) 등과 더불어 러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이는 러일관계가 향후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1차세계대전 시기에 양국관계가 군사동맹의 수준으로 발전할 토대가 되었다. 이에 러시아는 1912년 11월 3일 전직 주청공사 코로스토크를 庫倫으로 파견, 中蒙간의 과거의 관계를 단절하고 러몽간의 신시대를 여는 露蒙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강력한 정치블록을 형

32) Reid-Knox, 1912.6.10. FRUS. 1912. p. 136.

33) G.A.Schreiner, *Entente Diplomacy and The World: Matrix of the History of Europe*, 1922. pp.39-40. Sazonoff-Benkendorff, 1912.7.2.

34) 1912년 7월 1일 일본 역시 러시아의 동의를 득한 후,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 알렸다.(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冊, pp.88-90. 露國本野大使·內田外務大臣, 1912.7.1.)

35) 日本外交文書 第45卷, 第1冊, pp.91-92. 內田外務大臣·在中國伊集院公使, 1912.7.8.

성한 4국(영불일러)협상체제가 중국문제에 타열강의 개입을 억제하고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4국협상체제에 대한 독일의 도전은 제1차 세계대전 발발의 주요 원인이 됨으로써,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독일을 중심으로 한 3국 동맹(Triple Alliance) 진영과 총력전을 벌이는 동안,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국문제에서 세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 5. 결론

상술한 바와 같이 만몽문제를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은 국제적 사건들과 연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일본이 내몽골분할을 이끌어낸 제3차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원인도 신해혁명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발칸위기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발칸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영국은 러시아를 유럽무대로 복귀시키기 위해 만몽에 대한 러일의 특수권익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신해혁명의 성공과 혁명정부의 안착을 위해 중국에 이해를 갖고 있던 열강의 공조는 좌절됨으로써 중국내부의 혼란은 장기화되고 말았다.

이에 한일병합 이후 내몽골의 분할에 이르는 중국변강의 위기를 각장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일병합이 1910년 러청통상조약 개정문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반도와 만주, 몽골문제가 상호 접속되어 연동되고 있음을 밝혔다. 결국 중국의 북방변경벨트의 위기는 한반도가 그 시발점이었던바, 만일 한일병합이 발칸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에서 비롯되었다면, 결국 만몽의 위기는 처음부터 유럽의 발칸의 위기와 맞물려 있었다. 제3장에서는 청국이 러일전쟁이후 동아시아에서 약세를 노출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만주에 대한 주권회복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러청간의 갈등구도가 성립되는 과정을 분석했다. 아울러 미국의 달러외교에 맞서 일본의 대러접근이 본격화됨으로써 만몽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려는 美淸共助와 만몽을 청국에서 분리하여 자국의 세력권으로 만들고자한 露日共助가 두드러진 시기였다. 제4장에서는 러일간의 내몽골분할협정 체결이 유럽의 발칸위기와 연동되어 있음을 밝혔다.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여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설정하기로 한 제3차러일협약은 청국이 동의하거나 묵인한 사항은 아니었다. 이는 러시아와 일본의 만몽 침략정책과 이를 묵인한 앙탕트(영,불)진영의 유럽중심주의와 맥이 닿아있었다. 유럽에서 英獨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는 중국변방의 위기보다 발칸의 위기

를 보다 위중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러시아와 일본은 1907년 제1차러일협약 체결을 통해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하였고, 1910년 한일병합을 앞두고 한국과 몽골을 각각 일본과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하는 제2차협약을 체결하여 한국, 만주 그리고 몽골을 상호 접속시켰다. 마침내 1912년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는데 성공한 러시아와 일본은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기득권을 이어갔다. 러시아의 경우, 1908년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병합으로 시작된 제국변경의 와해과정에서 극동변경의 현상유지를 위해 대일접근을 모색했고, 일본 역시 미국의 만주정책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의 지지가 필요했던 바, 양국간의 연대는 1943년 카이로선언이 선포될 때까지 동아시아국제관계의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열강의 합종연횡과 외교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 영토 및 세력의 확장과정은 신해혁명의 격동기를 보내고 있던 중국의 정치상황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몽문제의 전례가 되었던 한국의 경우에도, 그것이 한국인들의 삶과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어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이 한국병합 이후 만몽으로 세력을 확장해가는 동안 식민지 한국인의 삶은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순응여부에 따라 강제이주 혹은 무력저항의 방식으로 갈라졌다. 봉천주재 러시아영사 콜로콜로프(Колоколов)는 일본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韓人農 2,833명이 만철연선 지역으로 이주해왔으며, 정착과 경작 비용을 3개년 상환을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일시불로 지원받고 있음을 보고(1912.4.24)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이 한인들을 만철연선으로 이주시키는 사업은 정치경제적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주가 성공한다면 향후 철도연선은 식민을 목적으로 한 일본과 한인관할 이주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sup>36)</sup>

반면 주일러시아대사 말랩스키-말레비치의 기밀보고서(1912.7.8)에는 일본의 팽창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저항과 투쟁을 보고하고 있다. 카츠라 수상이 러시아와 유럽을 순방하기 위해 오사카에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련으로 출발하여 그곳에서 장춘을 거쳐 동청철도로 갈아타기로 결정한 배경과 조선총독이 파견한 헌병장교와 한국어 통역관이 카츠라를 수행하게 된 것도 한국혁명파의 습격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고했다. 왜냐하면 일부 한인혁명대원들이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로 향발하여 이곳에서 카츠라를 저격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일본정부가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주일러시아대사는 블라디보스톡 군관구 사령관 및 곤다치 총독 및 하르바트 장군에

36) РГИА. Ф.560 Оп. 28 Д.463 Л.69-69об.: Выписка из секретного донесения Колоколова. 11 апреля 1912 г.

게 블라디보스톡과 하얼빈 거주 한인 용의자명단을 발송했음을 사조노프 외무상에게 보고하고 있었다.<sup>37)</sup>

결국 동아시아에서의 러일공조는 대외적 팽창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중의 저항을 억누르는데 효과적으로 기능함으로써 러일관계에 대한 신뢰는 때로는 강력한 동맹의 형태로 혹은 느슨한 연대의 형태로 태평양전쟁시기까지 이어져갔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전은 패배한 제정러시아는 외곽변방에서부터 붕괴의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08년 러시아의 약세를 틈타 1908년 오스트리아가 단행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병합은 그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였다.

---

37) Там же. Л.104-105: Депеша Гофмейстера Малевского-Малевича, 25 июня 1912 г.

# 미국의 만주정책과 국제조약 체제

최 정 수 (한양대)

I. 서론	III. 태평양조약체제와 불승인원칙
II. 헤이그중재협약체제와 사활적 이익론	IV. 결론

## I. 서론

오늘 날 동북아는 미-중 양대 강국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역이 되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불안감은 일본의 재무장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 1세기여 전에는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돕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그 때 미국을 제외한 열강은 중국의 분할을 목표로 했다. 만약 그 때 중국이 분할되었다면, 현재의 세계는 어떤 양상이었을까. 적어도 현재와 같이 미국이 중국과 신 냉전 구도를 이루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연구자가 이런 가상의 현실을 그려보는 것은 1세기 전에 미국의 대중정책은 중국 분할을 시도하는 열강의 대중정책에 맞서서 중국 통일정책을 일관되게 펼쳤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의 위정자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여 문호개방을 놓고 전쟁이나, 포기냐를 놓고 태일의 처지에 놓였을 때 미국은 결국 전자를 택했던 것이다. 그리고 문호개방을 놓고 미국이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는 헤이의 선언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대중정책을 담당한 위정자들은 국제정세로 미루어 볼 때 결국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문호개방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태평양전쟁의 첫걸음을 1899년 문호개방 선언에서 찾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문호개방정책은 미국으로 하여금 히틀러 이전의 독일과, 스탈린 이전의 러시아와 격돌하게 만든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평가에 따르면 문호개방정책은 일본과 태평양전쟁, 독일과 대서양전쟁, 대전 후의 소련과의 냉전 등 20세기에 일어난 세계사적 사건과 인과관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먼로독트린 연구로 명성을 얻은 텍스터 퍼킨스 역시 *The American Approach to Foreign Policy*(Harvard University Press, 1962)에서 “문호개방정책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공했다고 볼 수 없지만, 장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평가함으로써 문호개방정책의 역사적 파장을 인정했다.

도대체 문호개방정책의 쓰나미현상과 같은 역사적 파급력은 어떻게 해서 발생했을까. 즉 선언으로 시작된 문호개방정책이 그것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만주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통상의 기회균등을 보장받자는 목적 하에 나온 문호개방은 곧 만주를 중국의 영토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분리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봉착했는바, 여기서 미국은 한때 모호한 태도를 보였지만, 최종적으로 중국령의 일부로 간주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문호개방정책이 중국과 만주분리여부를 피할 수 없는 화두로 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연구의 목적은 바로 이를 구명하자는데 있다. 결론부터 소개하자면 미국의 문호개방선언은 외교정책을 넘어 국제법화의 과정을 밟았고, 그것이 대중정책을 담당한 위정자들로 하여금 만주를 국제법의 적용 지역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화두로 삼게 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론을 입증하기 위해 첫째, 존 헤이의 문호개방선언 직전부터 스티븐슨 선언이 나오기 까지 만주에 영향을 미친 국제법 원칙을 추적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 문호개방은 만주를 놓고 영토보전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배타적 세력권을 인정함으로써 ‘영토보전원칙(Preserve Chinese Territorial Entity)’을 무력화시키는 ‘사활적 이익(Vital Interest)’개념을 적용할 것인가. 심지어는 중국 정부가 타국(일본)정부에게 인정한 만주에 대한 독점적 지배까지 부정하는 ‘비승인원칙(Non-Recognition Doctrine)’을 적용할 것인가 등을 문호개방원칙에 덧붙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국제법원리가 되었다.

둘째, 상기의 원리들이 국제법의 원리로 된 것은 당시 미국이 추진하던 세계중재조약체제 구축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기로 했다. 문호개방 선언이 제1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열린 직후에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 간의 분쟁, 특히 법적 성격을 띤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채택되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주창하여 관철시킨 중재재판제도였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과의 조약을 근거로 중재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루즈벨트를 비롯하여 매킨리, 윌슨, 하딩, 후버 대통령이 중재재판제도를 세계체제로 만들려고 시도했다. 문제는 이 제도를 구축하는데 만주문제가 중요했다. 중재조약 체결 시 만주지역을 재판대상으로 삼아야 할지를 사전에 결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재판제도는 만주문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요소였다. 양자의 관계를 살피면 미국의 만주정책의 실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연구는 연구 시기를 다소 크게 잡았다. 문호개방 연구자들이 사용한 방식 중의 하나이다. 그리스월드가 지적했듯이 문호개방은 일정한 사이클을 그리며 부침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에스터스는 문호개방의 개념 변화를 매킨리, 루즈벨트, 태프트 등을 비교하여 추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때로는 연구 시기를 제 1차 세계대전으로 확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자는 헤이의 선언으로부터 스티븐 선언까지로 잡았다. 기간으로 보면 1899년부터 1932년까지, 대략 33년이다. 왜냐하면 이 기간에 미국의 만주정책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무력행위도 불사할 수 있다는 태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스티븐의 이러한 입장은 문호개방을 국제조약으로 성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중국의 영토에서 배제할 경우 미국이 추진 중인 세계조약체제가 붕괴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을 다시 일차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하여 두시기로 나누어 고찰기로 했다. 전반기가 헤이그체제의 개혁, 즉 헤이그체제를 세계체제로 바꾸려는 시도가 만주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면, 후반기는 전후 미국이 수립한 국제연맹, 태평양조약체제, 겔로그부전조약 등이 만주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기가 미국의 만주정책에 영토보전원칙과 영토보전원칙에 위배되는 사활적 이익이 영향을 주었다면, 후반기는 영토보전원칙을 강화하고 사활적 이익을 부정하는 비승인원칙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 II. 헤이그협약과 미국의 만주정책

### 1. 헤이그협약과 문호개방 선언(1899, 1900)

미국에게 동아시아정책 수립을 요구한 사건은 미서전쟁(1898)이었다. 이 전쟁으로 새로운 해외영토를 차지함으로써 수성이라는 문제와 더불어 대중정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국정책은 문호개방이라는 커다란 기초가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미청 간의 망하조약, 천진 및 북경조약을 통해 중국진출에 대한 조약상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 조약들은 최혜국조관을 두고 있었기에 이론상으로 대중진출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899년에 문호개방을 선언했다. 왜 그러한 조치가 필요했을까. 더욱이 1900년에 제 1차 문호개방을 부정하고 더욱 강력한 조건의 문호개방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 <1> 제 1차 문호개방선언(1899. 9. 6)과 "사활적 이익"원리

제 1차 문호개방의 배경은 무엇일까. 첫째, 무엇이 미국의 대중정책이어야 하는가를 놓고 미국 내 여론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문호개방정책을, 다른 한편에서는 먼로주의의 확장을 주장했다. 뉴욕타임즈는 먼로독트린의 중국 적용을 요구했으며, 루즈

벨트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먼로독트린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로독트린의 태평양 확장은 이미 기정 사실이었다. 필리핀 및 하와이가 미국령이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국에도 적용시킬 것인가였다.

둘째, 열강이 미서전쟁을 먼로독트린을 전세계로 확장하는 행위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먼로독트린을 동아시아로 확장 중이며, 그것은 러시아의 극동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것으로 파악했다. 영국의 동맹제안도 미국이 먼로독트린을 동아시아로 확장, 즉 탈고립 및 동맹정책으로 전환했다고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이 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마치 나폴레옹전쟁 후에 중남미의 독립을 공동 선언하지는 영국의 동맹제외에 대해 먼로선언으로 대응했듯이, 미서전쟁 후의 영국의 제안에 대해 미국은 대응이 필요했던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보다 영리한 방법으로 미국 견제에 나섰다. 러시아는 인류 최초의 초국가적인 평화회의를 제안했다. 여기서 국가 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개입을 제도화하자고 주장했다. 거중조정이 그것이다. 미국은 이를 청일전쟁 시에 사용된 삼국간섭을 중남미로 확장 하려는 기도로 보았다. 즉 먼로독트린 체포음모로 간주한 것이다. 미국의 이러한 판단은 일리가 있었다. 러시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진출을 유럽 열강(독일과 영국)의 중남미 진출기도로 상쇄시키려고 획책했던 것이다. 이에 미국은 국제분쟁의 해결도구는 거중조중 보다는 중재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헤이그협약을 통해 러시아의 거중조정과 미국의 중재재판조약이 동시에 채택되었다.

중재재판제도가 채택됨으로써 미국의 대중정책은 영향을 받았다. 미국과 청국 간의 통상조약은 중재협약의 재판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제법상의 이론일 뿐이었다. 현실적으로 청은 열강에게 통상조약 및 부속협정을 통해 세력권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일전쟁과 삼국간섭으로 중국은 해체일보 직전에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비하여 중재협약은 탈출구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통상조약은 중재재판의 대상이지만, 사할적 이익은 재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이 제 1차 문호개방의 선언배경이었다. 열강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의 통상의 기회균등을 주장했던 것이다.

## <2> 제 2차 문호개방선언과 "영토보전"원리(1900. 7. 3)

의화단 사건이다. 러시아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만주병합에 나섰다. 미국은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았다. 러시아는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자국의 영토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것은 헤이그체제의 악용이었다. 중국이 러시아의 만주점령을 협정으로 인



정했으니, 합법성을 갖추었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국가 간의 법적 분쟁은 중재재판으로 해결한다는 조항은 무의미해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청국 간의 조약 역시 무력화된다. 청국과 러시아 간의 체결된 새로운 협정에 의해 기존의 미청조약은 제약받기 때문이다. 즉 만주는 미청조약의 적용지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이 이러한 러시아의 시도에 대해 침묵한다는 그것은 묵시적 동의로 받아들일 것이었다.

게다가 제 1차 문호개방선언에서 세력권을 인정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기존의 세력권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세력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미국은 자신이 선언했던 문호개방의 일부 조항을 스스로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상황은 대중정책이 아니라 만주정책을 요구했다. 그것이 제 2차 문호개방선언의 영토보전조항의 삽입으로 나타났다. 영토보전조항을 통해서 세력권을 부정함으로써, 통상의 기회균등을 만주로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중국사태는 헤이그중재법정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우리의 대외교섭에 있어서 주요한 과제(dominant question)는 중국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다. 이 문제를 제외하면 우리의 열강과의 관계는 무난하다. ——현재의 문제(의화단 사건)가 발생하기 전 수년 동안 조약권을 보장받기 위해 외교력의 근원을 함대와의 군대라는 물리력에 두고 그것의 시위를 통해 확보했다.” (1900연두교서, VII-VIII)

“우리의 선언된 목표는 중국과의 어떤 전쟁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미합중국의 정책은 중국에게 항구적인 안전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중국 영토(territorial)와 행정적 실체(administrative entity)를 보전하는데 있다. 세계를 위해 조약(treaty)과 국제법(international law)에 의해 우호적 열강에게 보장된 모든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다. 중국 전역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무역 원리(the principle of equal and impartial trade)를 지키자는 것이다.” (1900연두교서, XIV)

의화단 사건 시에 매킨리와 헤이는 헤이그법정으로 이 문제를 가져가자고 했다. “헤이그 재판소가 제시할 해결책이 열강에게는 물론 그에 못지않게 중국 그 자체의 번영을 확장하고 안정시키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연두교서, 1900, xvi)

## 2. 헤이그체제의 개혁과 루트-다카히라협정(1908. 11. 30)

### <1> 루즈벨트의 개혁안과 사활적 이익론

그러나 매킨리정부의 원론적인 문호개방선언은 의화단사건이 만주를 둘러싼 러일의 경쟁으로 압축되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그것은 만주를 중국의 영토로 보아야 할 것인

가에 대한 문제였다. 이러한 미국의 고민은 어느 쪽이 이기든 만주는 러일 양국의 사활적 이익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국제정치는 만주에 대해 헤이그중재협약 단서조항의 적용을 준비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태일의 상황에 처했던 미국 대통령이 시어도어 루즈벨트였다. 여기서 루즈벨트는 만주를 중국의 영토지만, 조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리키로 했다. 즉 헤이그협약의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중재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중국과 체결한 조약과 일본과 맺은 협정을 통해 확인되었다. 전자가 곧 1903년 10월 8일에 체결된 미청통상조약이었다. 후자는 재임 말에 체결한 루트-다카하라협정이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루즈벨트는 미청통상조약 12조를 통해 묵단과 안동을 중국령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17조를 통해 1900년 1월 1일 이후 미청간에 존재하는 조약들의 효력이 유효함을 재확인했다. 미청간의 조약이 수정될 수 있는 경우란 미국이 체약국으로 참여한 다른 조약들과(other treaties)과 “현재의 조약(present treaty)”에 의거하여서만 가능하다. 그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미청간의 조약은 완전한 효력(full force and effect)을 지니고 있다. 요컨대 미청조약은 첫째, 기존의 미청조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둘째, 헤이그협약은 미청조약에 적용된다. 셋째, 의화단 사건을 이용해 강요된 러청간의 협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러시아의 남만주점령을 부정했다. 바꾸어 말하자면 만주가 중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가 만주에 대해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역임을 알고 있었다. 중국정부는 무능했고, 미국은 이에 개입할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있지 못했으며, 설령 있다고 한들 전쟁을 각오하면서 까지 만주에서의 이익이 미국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의심했다. 뿐만 아니라 남만주에서 러시아를 몰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일본이 차지하더라도 중국에 환부될 리 없다는 엄연한 현실도 직시하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러시아가 차지하든, 일본이 대신하든 만주는 그들의 세력권이 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누가 차지하는 것이 미국에게 유리할 것인가였다.

여기서 루즈벨트는 만주에 대한 문호개방이 불가능하다면 지배권을 차지할 국가는 일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첫째, 그는 일본의 근대화에 감명받았기 때문이다. 둘째, 청일전쟁과 의화단 사건 시에 일본의 해군력과 육군력이 서양 열강에 견주어 볼 때에도 최상의 수준임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는 군사전략가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루즈벨트가 보기에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즉 루즈벨트는 일본에 대해 경탄과 아울러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미국은 일본과 태평양에서 경쟁세력이었다. 미국은 태평양을 내해로 만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 역시 삶의 근거지를 태평양으로 확대할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미국 이민은 현안문제로 충돌의 가능성이 잠재해 있었다. 하와이 이민은 급증하고 있으며, 하와이를 발판으로 하여 서부 해안으로 이주하고 있었다. 필리핀은 일본 해군력에 의해 인질이 된 상태이며, 하와이는 공격권에 놓여 있었다. 한마디로 일본과는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루즈벨트가 미국 최초로 구상한 세계전략의 관점에서도 일본의 협조는 필수적이었다. 루즈벨트의 세계전략은 헤이그협약을 세계체제로 발전시키자는 뚜렷한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3개체제로 이루어졌다. “중재조약”, “국제경찰”, “세계헌법” 등이 그것이다. 다음과 같은 원리였다. 국가 간의 분쟁을 전쟁터가 아니라 법정에서 해결한다는 약속을 한다. 중재조약이 그것이다. 중재재판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국제경찰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재재판조약과 국제경찰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국가 간의 “마그나 카르타”가 요구되었다. 루즈벨트는 국가 간의 마그나 카르타는 헤이그중재협약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상조약과 중재조약은 세계헌법의 주축이 되었다. 바꾸어 말하자면 통상조약은 중재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대상이 되었던 것이며, 이로써 문호개방은 선언이 아니라, 사실상 국제법의 원리가 되었던 것이다.

루즈벨트의 이러한 세계전략은 뚜렷한 공격 목표가 있었다. 첫째, 러시아와 일본이 태평양의 경쟁자로 등장하는 것을 막는다. 러시아는 대륙국으로 머물러야 하며, 해양국 일본은 대륙국가로 변신해야 한다.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만주였다. 둘째, 만주를 매개로 하여 일어날 수 있는 열강 간의 합종연횡을 차단해야 한다. 즉 군사동맹망을 해체해야 한다. 그것은 새로운 조약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세계체제로 확장함으로써 가능하다. 여기서 중재조약은 군사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체제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체제를 구축하는데 걸림돌이자, 지렛대가 만주였다. 즉 루즈벨트의 세계전략은 만주를 중재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게 했으며, 사활적 이익으로 간주케 했다. 문제는 만주가 누구의 사활적 이익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었다. 루즈벨트는 일본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본이 차지하면 일본은 대륙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고, 동시에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될 것이라는 점에서 일석이조였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전략을 구사하려면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선행조건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문제, 만주문제, 이민문제 등이었다. 미국은 한국, 중국 및 일본과 각각 통상조약을 맺고 있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과 만주를 세력권으로 할 경우 미국은 중재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일본은 이민문제를 놓고 중재재판을 청구할

수 있었다. 일본인에 대한 미국이민차별은 미일통상조약에 위반이었다. 즉 미일이 중재 조약을 맺으면 상호간에 상대국에 대해 중재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조약은 성사될 수 없었다. 여기서 루즈벨트는 헤이그중재협약의 단서조항을 떠올렸다. 언급했듯이 헤이그협약은 양체약국의 사활적 이익에 해당하는 사안은 중재재판의 청구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미일은 1908년 5월에 중재조약을 맺었다. 그리고 한국문제는 태프트-가쓰라협정을 통해, 만주문제는 루트-다카히라협정을 통해 일본의 사활적 이익으로 인정했다. 반면 신사협정을 통해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이민문제에 대한 소송권 포기를 약속받았다. 루트-다카히라협정은 만주정책의 한계와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미국인의 딜레마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원칙상으로는 만주는 중국의 영토로 간주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만주를 배제시켰던 것이다. 사활적 이익 개념은 바로 문호개방과 만주정책을 분리시키는 장치였던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루즈벨트의 남만주정책은 만주를 문호개방의 영토보전의 적용지역에서 사실상 배제시키는 대신에, 일본을 중재조약망에 포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1907년에 유럽 열강이 한국과 남만주를 일본의 사활적 이익 지역으로 인정해주고, 대신 자신들의 아시아 식민지의 안전을 보장받는 한편, 일본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구축 또는 확대하기 위한 협정 및 군사동맹체제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만주는 미국이 대응체제를 성립시키는데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다. 1907년에 러시아와 프랑스가 일본과 각각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영리불일 등 4국 간에 군사협력망을 구축한데 대해, 미국은 그 다음해에 영불일 등과 중재조약망을 구축하여 군사협력망의 효력을 상쇄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 <2> 태프트의 헤이그체제 개혁안과 만주 중립화정책

태프트가 백악관에 들어가자 미국의 만주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그는 그동안 루즈벨트 정부 하 육군성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감추어 왔던 문호개방에 대한 철학을 정책화했다. 그것은 만주를 문호개방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는 전략이었다. 그가 원칙에 충실한 만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케 된 계기는 3가지였다. 첫째, 기업인들의 요구였다. 둘째, 일본과 유럽 열강이 만주의 문호폐쇄에 대한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자신의 세계정치 철학의 실현 야망이다. 즉 태프트 역시 헤이그체제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루즈벨트와 달랐다. 그는 중재재판제도는 세계법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국제경찰과 같은 제도는 불필요하다고 보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태프트의 세계전략은 루즈벨트와 달리 일본의 협조를 요구치 않았다. 대신 러시아를 비롯

한 영국, 프랑스의 협조를 필요로 했다.

그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만주중립화였다. 그의 만주정책은 두단계로 진행되었다. 먼저 1909년 7월 15일 그는 열강에 대해 다음을 요청했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 3국은 중국의 중부 및 남부에 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구성된 기업 연합에 미국 은행가들도 참여토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강은 무시했다. 태프트는 이에 굴하지 않고 약 4개월 후인 11월 6일 영국에게 다음을 제안했다. 영국은 미국과 제휴하여 북경정부로 하여금 동청철도와 남만주철도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를 위해 이 지역에서 누리고 있는 일본과 러시아의 경제적 우위에 도전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중국이 차관을 상환하는 동안 차관을 제공한 열강은 철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녹스는 러시아와 일본은 만주에서 “문화개방정책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진심으로 보호하기 위해 중국의 주권이 침해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환영해 마지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소위 녹스의 만주중립화계획의 골자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태프트 정부 역시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녹스의 제안은 더욱 강력한 미국의 입장을 담고 있었다. 만일 만주에서의 상행위를 중립화하려는 이 시도를 수락하지 않으면 미국은 영국과 더불어 요동만 상부에 있는 금주로부터 흑룡강가의 아이훈까지 북상하는 새로운 철도 건설에 참가할 것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태프트의 이러한 정책은 만주를 문화개방의 범주에 포함시키려는 대담한 계획이었다.

태프트의 이러한 계획은 열강은 물론 미국 내의 반대에 직면했다. 루즈벨트가 그 대표적 인물이었다. 루즈벨트는 1910년 12월 22일 태프트에게 다음과 같은 비판적 조언을 했다. “중국에서의 문화개방정책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외교적 협정으로 유지되는 한 장채에도 적절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주의 전 역사가 보여주듯이 러시아의 지배하에서든, 일본의 지배하에서든 문화개방정책이란 실제적으로 어느 한 열강이 이를 무시하고자 한다면, 이 정책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열강은 이 정책(문화개방)의 목적을 실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위협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녹스는 루즈벨트의 비판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주장했다. “언제든지 이 정책이 다른 나라의 이익과 상반될 경우에는 미국의 역사적인 대중정책을 조용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정책을 방위하기 위해 개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루즈벨트나 녹스는 모두 문화개방정책과 그것의 만주 투사

가 전쟁의 위협이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전자는 전쟁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만주에 대한 일본의 특수한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후자는 그것을 부정하고 만주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각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달랐다.

그렇다면 태프트는 왜 이러한 강력한 만주정책을 추진했을까. 그것은 바로 태프트가 흥중에 품고 있던 세계전략 때문이었다. 태프트가 지닌 세계전략은 세계법치주의의 이상을 지닌 것이었다. 그는 전임정부의 세계연방 대신에 세계법정이 중심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의 소지자였다. 즉 국가 간의 분쟁은 종류를 가리지 말고 국제재판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기존의 중재조약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의 중재조약은 사활적 이익, 국가의 명예, 독립에 관련되는 분쟁을 제외한 것만 재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태프트는 이러한 단서조항의 완전 삭제를 주장했다. 따라서 ‘조약체결국이 조약이나 다른 방식으로 권리를 주장했거나’, “성격상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모든 이해관계”는 헤이그 중재재판소나 그 밖에 중재법정에 회부되어야만 했다. 재판에 회부되어야 할 문제란 “법률이나 혹은 그 밖의 공정한 원칙 적용으로 결정이 가능한” 문제들 이었다. 분쟁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6명으로 구성된 합동 위원회에 회부하여 해결하고, 이 위원회는 또한 심사위원회로서의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 논쟁 중인 사건이 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반드시 6명의 위원 중에 5명 이상이 동의해야만 했다.

태프트의 중재조약안은 1911년 8월 23일 영국과 프랑스에게 제안되었다. 양국은 즉각 찬성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과 거대 동맹을 추진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왜 일본에게는 제안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일본이 동의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활적 이익을 폐기한 중재조약은 만주가 재판대상임을 선언한 것과 같았다. 바꾸어 말하자면 1911년의 중재조약제안은 또 다른 형태의 미국의 만주정책으로서 만주는 중국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이 조약은 의회가 수정제안하고, 이에 반발한 태프트가 반발함으로써 성사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태프트의 시도는 두가지 점에서 일본에 타격을 주었다. 하나는 직접적인 충격이었다. 영국이 영일동맹 갱신을 제안하고 이 동맹은 중재조약체결국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관철시켰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조약이 이후 미국의 대 만주정책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이후 미국의 만주정책은 사활적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 III. 태평양조약체제와 미국의 만주정책

#### 1. 브라이언 각서(1915. 3. 13)와 이시-랜싱협정(1917. 11. 2)

제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만주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첫째, 일본이 청국에게 21개조를 요구하여 만주 전역을 차지하고, 세력권을 중국 본토로 확장을 기도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청도를 점령하고 이의 반환을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남만주의 특권을 강화하려고 했다. 예컨대 임박한 여순항의 조차기간(25년)을 99년으로 연장하려고 했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했다. 산동성을 지렛대로 하여 사실상 만주병합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었다. 수법도 의화단 사건 시의 러시아의 그것과 같았다. 중국정부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여 합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미청간의 조약을 구조약으로 만드는 한편, 이를 통해 중재재판을 회피하려고 했다.

미국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온 곳이 브라이언 각서였다. 첫째, 영토보전을 재확인했다. 산동성은 물론 만주는 중국 영토라는 점을 확인했다. “중국의 영토권과 이 지역 내에서의 경제적 기회균등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세력권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특별한 권리(세력권)라는 용어 대신에 세력관계라는 모호한 용어를 썼다. 특히 남만주 및 내몽고에 대한 영향력을 요구한데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영토상의 인접이 일본과 이 지역 간에 특수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셋째, 브라이언은 3월 13일 각서 회담을 통해 점을 재확인하며 이를 일본에 발송했다. “미국과 미국 국민이 보유한 조약권 및 중국의 정치적, 영토적 주권 혹은 일반적으로 문호개방으로 알려진 중국에 관련된 국제적 정책에 위반하는 여하한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만주에 대한 기득의 사활적 이익은 물론 장래에 취할 이익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1917년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자 브라이언 각서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유럽에서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미국의 도움을 절실히 갈구하던 영국과 프랑스가 이제 더 이상 일본의 만주정책에 대해 지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전례로 보아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은 국제관계를 재조정할 것이 분명했다. 이에 일본은 만주문제에 대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이시-랜싱협정이다. 1917년 11월 2일에 미일 양국간에 교환된 각서/협정협정은 다음과 같은 골자였다. 첫째, “영토적인 인접은 양국간의 특수관계를 형성한다.” 둘째, “일본은 중국에서 특히 일본의 속령이 인접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의 특수한 이권을 보유한다.” 이 두가지는 미국이 일본에게 양보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중국의

영토적 주권은 손상되지 않은 채 존재한다. 미국은 일본이 타국의 교역을 차별하거나 혹은 중국이 지금까지 타국에 허용한 상업상의 권리를 무시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보 증했다. 끝으로 양정부는 “중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은 어떠한 방법이나 어떠한 목적에 서라도 침해하는 것”을 거부한다. “문화개방”이나 혹은 “중국에서의 상업 및 공업의 기 회균등”을 고수한다.

사실 이 협정은 1908년의 루트-다까히라협정과 대동소이했다. 비록 “영토상의 인접은 특수관계를 형성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미국은 일본의 특수이익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고 보고 싶었지만, 일본은 특수한 관계란 절대적 이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즉 헤이 그협약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개념은 이시-랜싱협정에서 다시 등장했던 것이다.

## 2. 태평양조약체제(1921-1922)와 스티븐선언(1932. 1. 7)

제 1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자, 윌슨은 문화개방을 새로운 국제체제의 원리로 삼으려고 했다. 그것은 윌슨의 철학이었으며, 그것은 참전을 결정한 후 발표한 14개조안에서 확인되었다. 사실 윌슨의 만주정책은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전 임정부가 추진했던 만주중립화정책을 전면 백지화했을 때 예고되었다. 그는 이 때 중국 으로 하여금 한구 이남 및 이서의 철도를 부설할 수 있게 한 6개국 차관단에 대한 정부 의 승인을 철회했던 것이다. 그것이 문화개방에 위배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인 1913년 3월 18일에 나온 선언은 그것을 보여 준다. “이 차관의 조건은 중국의 행정적 독립에 너무도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 정부의 정책은 “문화 개방을 우정과 상호간의 이익을 위한 문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으로 유지하려는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윌슨의 전후 만주정책은 문화개방에 충실한 것이 될 것임은 그가 주창하고 성립시킨 국제연맹 규약에서 확인되었다. 연맹의 규약안에 따르면 일본의 만주정책은 통상조약 의 위반으로 중재재판에 회부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거부할 경우 국제경찰권을 발동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의 고립주의 여론으로 인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했다. 따라서 미국이 직접 국제연맹규약을 통한 일본의 만주정책을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윌슨의 사후 후임 공화당 정부를 책임지게 된 하딩즈는 국제연맹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체제를 결성했다. 태평양조약체제가 그것이다. 태평양조약체제는 3개의 조약체제로 되어 있었다. 워싱턴군축조약(5개국조약), 부전조약(4개국조약), 중국 에 대한 문화개방조약(9개국조약)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영국 및 프랑스와 더불어 미



국이 주도한 이 조약체제에 가입했다.

태평양조약체제는 문호개방정책에 신기원을 제공했다. 9개국조약이 성립됨으로써 그동안 선언 및 정책으로 존재해 오던 문호개방을 국제법으로 공식 선언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였다. 제 1조는 9개국 조약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1) 중국의 주권, 독립 및 영토권과 행정권을 존중한다. (2) 중국으로 하여금 유능하고 안정된 정부를 스스로 발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가장 차분한 기회를 제공한다. (3) 중국의 전 영토에 걸쳐 모든 국가의 상업과 공업을 위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분히 수립하며 유지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한다. (4) 우호적인 국가의 국민이나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특수한 권리나 이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에서의 제조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와같은 국가의 안정에 적의있는 행동을 장려하는 것을 억제한다.

특히 중국은 어떤 나라에게도 영토나 해안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않을 것과, 어느 나라가 지배하는 철도이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도 그 나라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제 7조는 “언제나 현조약규정의 적용을 포함하여 이권이 일어날 때”에는 조인국과 완전한 연락을 취할 것을 규정했다. 다른 정부라 하더라도 조인국에 의하여 인정받았으며, 중국과의 조약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반드시 이 조약과 연관을 맺어야만 했다. 요컨대 9개국조약은 내용상으로는 존 헤이의 문호개방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정책은 열강의 만주정책에 즉각 영향 미쳤다. 영국이 위해위를 중국 정부에 반환키로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태평양 조약체제의 다른 조약도 기존의 동맹체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이 영일동맹의 갱신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부전조약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였다.

태평양조약체제로 가장 압박을 받은 국가는 일본이었다. 9개국 조약에 서명했으니, 일본 역시 만주를 중국에 환부해야 했다. 더욱이 영국이 산둥성에서 철수했다는 사실은 일본에게 적지 않은 압박을 주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만주에 대한 지배권은 1905년의 포츠머스조약과 1915년의 중일조약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국제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즉 문호개방조약은 1905년과 1915년의 조약을 침해할 수 없다는 법리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도 9개국조약에 위반된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동안 자신들이 펼친 법논리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조약이 두개 이상 존재할 때에는 최신조약이 구조약을 폐기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번에는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원리가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 일본이 일러 포츠머스조약, 1915년의 일청조약, 1922년의 9개국조약 모두 조인국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약개폐논리에 따르면 만주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조약은 9개국 조약이었다. 포츠머스조약과 1915년의 일청조약은 구조약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러한 조약 간의 저축이라는 국제법상의 딜레마를 1931년에 일어난 봉천사건을 통해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 문제 해결을 빙자하여 중국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면, 9개국조약의 준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 경우 새로운 일청조약은 9개국조약을 구 조약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이러한 교활한 속셈은 미국이 9개국 조약을 근거로 하여 항의하지 않았음에도 9개국 조약의 무효를 주장했다는데서 확인된다. 미국은 다만 1932년 1월 7일 소위 국무장관 스티븐선언(후버-스티븐선언)을 통해 다음을 요청했다. 첫째, 남만주에 있어서 일본이 중국의 마지막 권한을 파괴했기 때문에, 조사위원단이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책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도록”해 달라. 둘째, 미국 정부는 “중국에서 미국과 미국 시민의 조약상의 권리나 중국의 독립 혹은 영토 및 행정권 등의 주권에 관련되거나, 일반적으로 문호개방정책으로 알려진 중국에 관련된 국제적인 정책을 손상하는 어떤 사태에 관한 합법성이나 협정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또한 미국은 “연맹규약이나 파리협정의 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어떤 사태나 협정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이러한 스티븐선언은 전래의 방식에 따른 것이다. 일본과 전쟁을 할 의사는 없지만, 문호개방을 입으로 되풀이함으로써 자존심을 구기지 말고 후퇴하려는 전략이었다. 스티븐이 9개국 조약을 위반했다고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만약 그 점을 지적했다가, 일본이 거부하면 미국은 부전조약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경우 일본과 전쟁을 맞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침묵할 경우 태평양조약체제 전체가 무너지고 만다. 즉 방아쇠를 당길 생각이 없다면, 권총집으로 손을 내리지 말라는 서부의 격언이 이 경우 스티븐과 후버대통령의 머리 속을 지배했던 것이다.

그러나 언급했듯이 일본은 차제에 9개국조약의 폐기를 기도했다. 1월 16일자 일본의 회신은 그것을 보여 주었다. 여기서 “현재의 불안정하고 혼란된 상태의 중국은 워싱턴조약 당시에 주요국가들이 보았던 그러한 중국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영국 조차도 이에 동조했다. 영국 내각은 만주에 대한 중국 정부의 행정권은 1922년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의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일본의 그러한 답변은 9개국조약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았다. 또한 일본은 말뿐이 아니었다. 미국에 회답한 날로부터 12일 후인 1932년 1월 28일에 일본군은 상해에서 선전포고없는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으로 하여금 마침내 마지막 무기인 9개국조약을 들고 나오게 만들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 문제로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일본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피하고, 대신 국회에 미국의 입장을 밝히는 선언 형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그것은 바로 상원의원 보라에게 보낸 공개 서한이었다. 1932년 2월 23일자 서신은 그 다음날인 24일에 공표되었다. 기본적으로 존 헤이 이래로 아시아에서 취한 문호개방정책에 대한 확인이었다. 특히 두 가지 주목할만한 내용이 첨부되었다. 첫째, 1월 7일자 스티븐선언에서 공표된 비승인원칙을 재확인하고, 9개국조약을 강조했다. 이로써 ‘워싱턴조약이 효력이 없다’는 1월 16일자 일본의 메시지에 대해 미국이 답변한 셈이 되었다. 둘째, 9개국조약은 1921-1922년의 태평양조약체제의 일부분으로서 상호의존적이며, 따라서 ‘중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일본의 위반은 미국을 해군조약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즉 일본의 9개국조약위반은 미국에게 군축조약의 파기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의 이 말은 매우 중요했다. 미국이 만주정책을 군사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기 때문이다.

스티븐은 7개월 후인 1932년 8월 8일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선언을 부연했다. “국제연맹 및 겔로그조약과 이러한 관점(스티븐주의)를 배제시키고서는 지금까지의 국제법 하에서는 멀리 떨어진 만주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미국에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즉 스티븐주의는 만주는 중국 영토이고, 문호개방은 영토보전을 선언했으니, 만주문제에 대해 미국은 개입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은 4년 후인 1936년에 자신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보라에게 보낸 서한은 “중국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미국 대중을 계몽하며, 연맹을 혼계하고, 영국을 선동하며, 그리고 일본에게 경고”하려는 의도를 지닌 “다섯개의 제목없는 연설”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5개국조약을 폐기한다는 위협을 허세로 예측했다. 그러나 훗날의 역사는 스티븐의 선언이 미국의 만주정책에 문호개방 말고 두 가지를 장착시켰음을 입증했다. 하나는 “비승인선언”이요, 다른 하나는 군축조약과 연동시킨다는 것이었다.

사실 스티븐 선언에 나타난 문호개방과 군사적 조치의 연동은 그동안 미국 위정자들의 머리 속에 지배했던 ‘문호개방을 위해 미국은 전쟁을 해야하는 가’라는 오랜 화두에 대한 첫 번째 실마리를 푸는 공식적인 답변이었다. 문호개방을 밀어붙이려면 상응하는 군사력을 갖추고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루즈벨트의 언설<sup>1)</sup>, 만주문제를 놓고 전쟁은

1) 루즈벨트는 1910년 12월 22일 태프트에게 다음과 같은 비판적 조언을 했다. “중국에서의 문호개방 정책은 매우 훌륭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외교적 협정으로 유지되는 한 장래에도 적절한 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주의 전 역사가 보여주듯이 러시아의 지배하에서든, 일본의 지배하에서든 문

미국이 고려하고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녹스의 확인<sup>2)</sup>, 일본의 문호개방조약 위반에 대해 미국은 군축조약 폐기로 응할 수 있다는 스티븐슨의 선언, “세계의 어디에서의 전쟁 행위도 내 조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미국정부는 전 세계에 대해 비합법적으로 일어난 점유변경에 대해 승인을 거부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후버대통령의 1928년의 발언 등은 결국 만주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태평양전쟁으로 서막을 여는 발단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미국의 국제법 학자 제섭은 1940년 가을 다음과 같이 예언한 바 있다. “오늘날 면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오늘날 하와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관계는 1860년대에 우리가 쿠바에 대해 가졌던 이해관계에 상응한다. 아마도 자위라는 논거는 언젠가는 미국이 양자강, 볼가강, 콩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할 것이다.”

---

호개방정책이란 실제적으로 어느 한 열강이 이를 무시하고자 한다면, 이 정책은 곧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한 열강은 이 정책(문호개방)의 목적을 실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쟁의 위협을 택할 것이다.”

2) “언제든지 이 정책이 다른 나라의 이익과 상반될 경우에는 미국의 역사적인 대중정책을 조용히 포기하거나, 아니면 이 정책을 방위하기 위해 개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이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다.”

# 일제 창가와 군가에 표상된 만주 제패의 의미

- 러일전쟁을 중심으로

최 현 식 (인하대)

- |                            |                           |
|----------------------------|---------------------------|
| 1. 러일전쟁기 일본 창가와 군가의 문제성    | 3. 전쟁의 만주와 군가의 일본, 그 총력전의 |
| 2. 승전과 미개의 땅 만주, 투어리즘과 계몽의 | 정체                        |
| 책략                         | 4. 글을 마치며                 |

## 1. 러일전쟁기 일본 창가와 군가의 문제성

㉠ 식민 상황에 처한 만한(滿韓)을 판돈으로 내걸고 국운을 경합했던 러일전쟁(1904)은 그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입는다. 후발 자본주의 국가에 속했던 러시아와 일본은 제국 확장의 길로 양국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만주 점령을 통해 아시아로 진격할 기대로, 일본은 서양 번역과 이입의 탈아입구(脫亞入歐) 전략을 넘어 아시아의 맹주로 급전(急轉)할 희망으로 부풀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미국 등은 자국의 이익과 관심, 그리고 힘의 우열에 따라 양 교전국과 동맹으로 연계되거나 적국으로 파약(破約)되었다. 물론 작게는 대리 전장으로 크게는 식민지로 할양될 위기에 처한 만한(滿韓)의 목소리는 거의 예외 없이 은폐되거나 억압되었다. 이토(異土)를 두고 남의 땅에서 벌어진 그들끼리의 전투, 그것이 문명의 원리로 자랑되던 만국공법의 근본임을 러일전쟁은 총탄과 핏물의 아수라장으로 증례했던 것이다.

‘힘의 정치’는 전쟁과 직접 관련되는 기술문명과 군사력에 의해서만 작동되지 않았다. 그것은 국민들의 일상적 편익과 미학적 취향의 문제를 전쟁의 기술과 서사로 입안, 제어할 줄 안다는 점에서 가공할만한 기제였다. 러일전쟁은 동서양의 합전(合戰)이기 전에, 선진 문명을 뒤늦게 학습한 ‘늦된 아이들’이 그 수용과 변용 정도를 자랑하는 일종의 박람회이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일본은 흥내쟁이 원숭이나 기모노 입은 여성으로 표상되곤 했는데, 그 용렬한 타자성 속에서 만한(滿韓) 경영이나 서양과의 동등성 확보라는 ‘황국’의 목표는 꽤나 요원한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비록 그것이 전쟁에 의존되었다 해도, 일상적 기술의 박람회는 제국의 팔루스를 신민에게 기입하고 그 받기

를 도울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다.

러일전쟁이 기술의 총력전이자 총동원 체계였음은 인력 및 장비 수송과 관련된 각종 철도와 기선, 그리고 전함과 포대의 위용에서 뚜렷하다.<sup>1)</sup> 이 기술의 힘과 유용성은 전쟁 당사자(戰線)는 물론 그것을 떠바치는 후방의 신민(新民)에게 내면화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기술문명의 정도는 승리와 패배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 전쟁에서 국민의 병사화가 강조되는 것도 방아쇠가 당겨지고 총열이 내려지는 까닭의 시종이 그들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겠다.

‘전선총후’의 총력전에서 서로 다른 공간의 양자를 하나로 묶는 유력한 방법은 선전과 감염의 효과가 뛰어난 대중매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전투 현장을 시시각각 전달하는 각종 호외와 신문, 그리고 격절된 양자의 친밀감과 애국심을 동시에 고취하는 그림엽서(여기 인쇄된 전쟁 관련 사진과 그림) 등은 러일전쟁기 매체 활용을 대표한다. 당시 나날이 진화하던 복제예술, 특히 사진술과 인쇄술, 출판술의 발달은 전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부감함으로써 ‘전선’의 현장성과 그를 향한 ‘총후’의 동일성을 결정적으로 배가시켰다. 사실을 말하건대, 이를 통한 전쟁(공간)의 동시성 확보는 국민의 단결과 전쟁 동원, 그에 의지한 죽음의 비극과 죽음의 원죄를 괄호치는 전쟁의 합리화를 가속한다는 점에서 국가 정의의 실천이 아니라 절대폭력의 구조화에 가까웠다.

물론 전쟁의 승리자 쪽이라면 대중매체의 역할은 전쟁 당시의 활황으로만 종결되지 않는다. 각종 기념비와 기념일, 기념식의 제도화와 내면화에서 대중매체의 계몽과 선전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다. 과거와 현재 할 것 없이 여전히 각종 기념식에 동원되는 국민, 특히 아동들의 실상은 기억의 역사화와 현재화가 국민의 통합과 그 징발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준다. 실제로 일제는 러일전쟁 후 각종 기념 장치의 제도화와 일상화에 박차를 가하며,<sup>2)</sup> 이를 통해 승리의 서사와 희생의 윤리를 전쟁 담론의 핵심으로 전범(典範)화 하기에 이른다.

② 하지만 이 지점까지의 ‘전쟁의 국민화’는 국가 주도의 계몽서사와 직접 연결되는 점에서 비자발적이며 강제적인 성격이 농후하다. 따라서 개인의 자발성이나 취향과

1) 일례로 『滿韓鐵道唱歌』는 표지로 노란색 바탕을 배경으로 검은 연기를 내뿜는 기관차(본고 2장 [그림] 참조)를, 창가 서두의 사진으로 ‘일본해 대해전(大海戰)’에 투입된 전투함(기선)을 취하고 있다.

2) 봉천전투의 날을 육군기념일(3월 10일)로, 일본해 해전의 날을 해군기념일(5월 2일)로 정하고, 여순항 기습 때 전사한 히로세 다케오(廣瀨武夫)를 군신(軍神)으로 추앙하여, 군가 『軍神廣瀨中佐』를 제작·유통시키고 동상을 건립한 일들이 그 예를 대표한다.

연관된 기제의 개발과 확장, 즉 ‘전쟁의 심미화’ 사업과 전략이 더없이 중요해진다. 이를 통해 살육의 현장은 명랑하게 조망해 볼만한 추억의 공간으로 전유되며, 전사자의 몸값은 우러러볼만한 애국자의 그것으로 등가화 된다. 기술문명과 대중매체가 세련되게 결합되고 연동된 실례로 러일전쟁을 전후한 일본 창가(唱歌)와 군가(軍歌)<sup>3)</sup>를 주목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공히 시가(詩歌) 형식에 해당하는 양자는 전쟁의 대중화 및 상품화<sup>4)</sup>와 연동되어 있어, 벤야민이 말했던 파시즘의 예술화와도 깊이 상관된다.

먼저 군가의 경우다. 군가는 군인의 전투력 강화, 이를테면 애국심과 집단성 강화나 사기 진작을 위해 우선 생산되고 소비된다. 『日露戰爭期軍歌集』의 군가들, 이를테면 「征露軍歌」 「日本陸軍」 「日本海軍」 따위는 이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모자람 없다. 하지만 이를 포함한 각종 군가들은 군영(軍營)를 넘어 일상에서도 널리 가창되거나 독서가 권유되었다. 「日本陸軍」 「日本海軍」 앞의 “국민창가(國民唱歌)” 명시, 러일전쟁 전반을 다룬 장편창가 「大捷軍歌」 및 충후에서 불렀을 법한 「女子軍歌」의 군가집 게재가 뚜렷한 물증에 해당한다. 요컨대 각종 군가들은 충후의 국민을 (간접 체험의) 전장으로 소환하는 한편 그림으로써 천황 중심의 국가주의와 역사관, 심지어는 그것의 일상에의 투사와 내면화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던 것이다.

이상의 전쟁 서사와 감각화가 가장 세련된 형태로 대중화되고 상품화 된 것이 『滿韓鐵道唱歌』(1906)다. 이 작품은 시모노세키에서 출발, 부산과 경성, 평양을 거쳐, 만주의 남만철도 노선을 빠짐없이 경유한 후 여순(旅順)과 대련(大連)에 도착하는 여정을 노래한다. 제국의 여행자가 가질 법한 식민지의 원시적 풍경과 후진적 관습도 관찰의 대상이지만, 역시 핵심은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러일전쟁에 관련된 전사(戰史) 및 전적(戰績)의 확인과 회고, 그에 관한 복합적 정감의 표출이다. 전쟁의 기억과 기념이 투어리즘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으며, 그것이 국민의 심상지리 확장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엿보게 하는 서사적 구성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은 그 창작과 향유에서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본 창가와 군가가 발생론적 기원과 형성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미학적 대목과도 접속된다는 점에서 꽤나 문제적이다.

더군다나 이 작품은 문부성 검정을 완료한 “고등소학교 창가과 아동용” 교재로 널리 향유되고 소비되었다. 『滿韓鐵道唱歌』 소재 각종 전쟁사의 교육과 전달, 가치화에

3) 창가로는 『滿韓鐵道唱歌』를, 군가집으로는 『日露戰爭期軍歌集』을 주목한다. 자세한 서지와 내용은 본문에서 언급될 것이므로 이 지점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4) “기념엽서·기념비·광고문건·영화문학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드러나는 전쟁의 서술구조”(박진한, 266면)를 중심으로 전쟁기념의 상품화와 대중화 전반의 논리를 검토한 글로는 박진한, 「일본의 러일전쟁 100주년 기념과 네오내셔널리즘」(『역사교육』98, 역사교육연구회, 2006)이 유익하다. 이후 서술의 몇몇 지점은 박진한의 논의를 참조했거나 거기서 계발 받은바 있음을 밝혀둔다.

교사와 부모가 개입하기 마련임을 감안하면, 이 텍스트는 아동용 노래와 교과이기 전에 예비 황군 교육을 위한 일종의 군가이자 정치 팜플렛에 오히려 가깝다. 표면에서는 아동용 지리교육 도서로, 투어리즘의 문학적 표현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심층에서는 기억과 기념을 통한 전쟁의 숭고화, 그 효과로 국가정체성과 국민의식을 제고하는 침략적 내셔널리즘의 온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滿韓鐵道唱歌』의 양가성. 여기에 계급과 지역, 이념과 정서를 초월한 신민의 일민(一民)화를 수행하는 한편, 자국 병사의 죽음은 영웅적 희생으로, 적병의 그것은 패전의 물증으로 사물화하는<sup>5)</sup> 전쟁예술로서 『滿韓鐵道唱歌』의 간교한 본질과 전략이 숨어 있다.

③ 본고는 이상의 관심과 내용을 ‘만주’를 중심으로 다룬다. 『滿韓鐵道唱歌』가 통과한 조선 여행의 사정과 식민화 미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육당의 『경부철도노래』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미 서술한바 있다.<sup>6)</sup> ‘만주’가 그 잔여분인 셈인데, 물론 『滿韓鐵道唱歌』 『大捷軍歌』 『征露軍歌集』 『平壤包圍攻擊』 등에 러일전쟁의 또 다른 현장으로 인천과 평양이 등장한다. 『滿韓鐵道唱歌』를 제외한 작품들은 전쟁 자체를 중심에 둔 까닭에, 인천과 평양의 풍광 및 풍물, 문화 유적과 생활 관습에는 거의 무관심하다.<sup>7)</sup> 이에 비한다면, 러일전쟁의 주전장 ‘만주’는 전쟁 서사와 현장의 제시, 그 기억과 역사화에서는 물론, 식민화에 처한 ‘만주’ 일대를 투사하고 타자화하는 일제의 시선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작업에 꽤나 풍요롭고 흥미로운 공간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지배자의 시선에 대한 검토와 평가는 당시 만주와 유사한 처지였던 조선 현실을 객관화하는 어떤 계기와 방법의 획득에 적잖이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본고는 조선과 만주의 전쟁 경험과 식민화 외중을 압도적 환호와 소수의 회의로 응시하던 내지 일본인들의 시선과 담론을 추적하는 작업에도 글쓰기의 일부를 할애할 것이다. 이후 ‘만한 투어리즘’의 실질적 주체로 등장할 그들에게서 우리는 ‘만한’의 토인과 문명한 일본을 차이화하는 분리의 기술을 미리 엿보게 될 것이다. 여기

5) 이렇듯 타락한 사생관은 전쟁의 폭력성을 은폐하는 한편 전쟁의 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의 공포심과 무력감을 가뭇없이 증발시킨다. 이는 국민들이 죽음에 대한 애도와 연민은 차치하고라도 만세의 외침과 더불어 침묵이 생의 원리일 수 있음을 승인하는 ‘트라우마의 물화’의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전쟁 관련 ‘트라우마의 물화’에 대해서는 전진성, 「서론: 트라우마의 귀환」,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30~40면을 참조했다.

6) 최현식, 「철도창가와 문명의 향방—그 계몽성과 심미성 교육의 한 관점」, 『민족문화사연구』43, 민족문화사학회, 2010.

7) 『滿韓鐵道唱歌』에서 ‘인천’은 일본 국민 13,000명 체류, 러일전쟁 초기 적함을 침몰시킨 포구, 업무마친 뒤 놀러가는 ‘일본공원 월미도’가 존재하는 곳(19~21연)으로, 평양은 청일전쟁 승리의 장소로 호명, 기념되고 있다.



서 승전 속에 은폐된 개별 전사자의 망각과 추방, 바꿔 말해 천황의 공동체를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역전된 죽음의 기념이 전쟁의 폭력성과 그 책임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변성되어가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면, 또 ‘만한’의 정복과 경영이 동아시아의 공영과 해방의 출발이라는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의 심리적 토대를 읽을 수 있다면 과연 무리한 가설의 설정일 것인가.

## 2. 승전과 미개의 땅 만주, 투어리즘과 계몽의 책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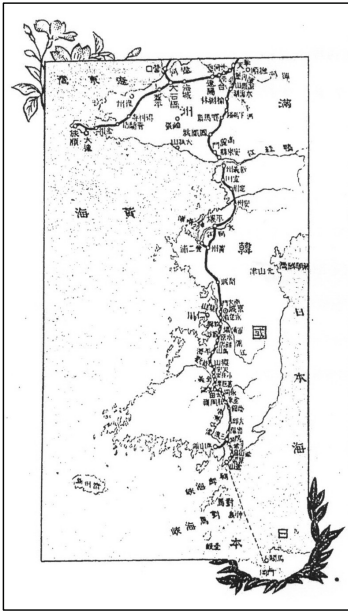
① 『滿韓鐵道唱歌』는 창가군가 전문 출판사 금향당서적(金香堂書籍)에서 1906년 8월 24일 출간되었다. 같은 해 12월 6권이 발행될 정도니 러일전쟁의 후광이 대단했다. 노란색 표지와 예서체의 한자 제목, 붉은 침목과 연두색 레일을 달리는 푸른 색 테두리의 검은 기차, 연통에서 뿜어지는 오선지 위 음표, 곧 음악화된 연기가 고급스러움을 더한다. 총 60연(1~34면)으로 구성된 7.5조 창가 본문 앞에 만한철도 노선,<sup>8)</sup> 아동용 창가라는 문부성 검인정 사항, 편자(編者) 와타나베 칸조(渡邊 管造)의 발간사, 창가 악곡(2/4박자, 天谷秀 작곡)이 놓여 있고, 창가 말미에 서지가, 뒷표지에 러일전쟁과 풍년 기원 관련 창가와 군가 광고가 실려 있다. 서책의 형식과 디자인, 구성만 보면, 일본 철도 연선의 풍경과 산물, 정취를 노래했던 『鐵道唱歌』(1900)의 후속편쯤으로 여겨진다. 양자가 국민, 특히 아동의 지리교육을 목표로 오오와다 다케키(大和田建樹, 1857~1910)가 작사했으며, 서사와 정서의 구성 및 표출이 여행기, 곧 투어리즘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의 근친성은 두드러진다.

그러나 표면의 지리교육과 여행의 안내와 권유, 그것의 대리충족 만으로 발간 4개월에 6판 돌파라는 인기의 비결을 대뜸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다. 『滿韓鐵道



[그림1] 만한철도창가 표지

8) 한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 누락된 철도여행 노선은 일본 국회도서관 소장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그림2] 만한철도노선' 참조. 그리고 『滿韓鐵道唱歌』 상의 부산에서 대련에 이르는 철도 연선과 각 역명에 대해서는 구인모, 「일본의 식민지 철도여행과 창가」, 『정신문화연구』116, 2009, 200면 주석 9) 참조.



[그림2] 만철도 노선

『唱歌』의 성황을 얼마간 밝히려면 작사가 오오와다의 이력과 러일전쟁 승리 후 일본의 국민 정서, 제국의 심상지리 확장에 연동된 투어리즘의 대유행, 그것을 ‘만한(滿韓)경영’의 의지와 욕망으로 번역한 제국의 내셔널리즘 전략을 함께 살펴보아 마땅하다.

먼저 작사가 오오와다다. 그는 개인의 시적 이력이나 일본 창가의 기원과 전개에서 매우 문제적인 인물이다. 그 핵심은 “신체시인으로서의 이류였으나 메이지(明治) 창가에서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한 일인자였다”는 문학사적 평가에 집약되어 있다. 일례로 그는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 번역 과정에서 애절한 감상(感傷) 충만의 「가여운 소녀」를 작사하는 등 근대 전환의 시대상황과 분위기에 예민하게 반응했다.<sup>9)</sup> 하지만 그의 재능은 「鐵道唱歌」 「散步唱歌」 「故郷の空」 등의 창가와 「日本陸軍」 「日本海軍」 「黃海海軍」 「日本海海戰」 등의 군가 작사에서 만개했다. 양자 공히 개인의 감성보다는 민족정체성과 국민의식의 집단적 심화와 발현에 적합한 노래의 형식들이다. 전자가 민족적 내포의 심화와 관련된다면, 후자는 제국 외연의 확장과 보다 밀접하게 접속된다. 그러나 그 운동의 방향과 상관없이, 양자는 자민족을 동일화하고 타자와의 차이화를 예민하게 계상하는 자기규정의 잣대로 명랑하게 작동되었다. 그 계몽과 감염의 효과는 제국주의로의 진입 문제에서 결정적 위기이자 기회였던 러일전쟁의 현실에서 가장 극대화되었음을 물론이다.

러일전쟁은 ‘제국에의 행보’라는 어떤 책의 부제<sup>10)</sup>가 암시하듯이, 일본의 서민에게 상실과 공포, 비애의 정서를 압도하는 충성심과 애국심, 승리의식 확장의 장이자 계기였다. 물론 전후의 실업 심화, 전몰자 문제 등과 같은 승리의 비애가 아주 없지는 않았으나, 제국의 승리와 확장을 고려하면 은폐되고 무시될만한 성질의 것이었다. 저 익찬(翼贊)의 정서는 따라서 당대에 기념되고 소비되기보다 후대의 유산과 교육 장치로, 다시 말해 제국의 심상지리 확장의 장치로 더없이 적합했던 것이다.

9) 小川和佑, 『唱歌·讚美歌·軍歌の始源』, アーツアンドクラフツ, 2005, 142~144면. 이 대목은 일본과 조선 창가의 기원과 전개가 찬미가 못지않게 군가의 유행과 소비에 빚지고 있음을 암시하는바, 일본에서는 창가와 군가의 친연성이 대체로 인정된다. 일본 창가에 빚진 조선의 계몽창가와 이후 항일유격대의 군가가 이런 친연성을 공유하는 것 또한 하나의 사실로 인정된다.

10) 부제와 아래 내용 일부는 大浜徹也,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帝國への歩み』, 刀水書房, 2003 여기 저기 참조.

이것이 서둘러 창가와 군가의 대가 오오와다가 『滿韓鐵道唱歌』 창작에 나선 근본적 이유다. 그 핵심은 편자의 “일로전쟁은 우리 제국의 신기원” “만한의 경영은 신일본의 유일한 국시” “오늘의 소년들에게 만한의 지리에 정통하게” 하며 “대부의 큰 뜻을 세우게 하려는 말<sup>11)</sup> 따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점, 아동용 지리교과와 투어리즘, 창가의 형식이 승리에 도취된 국민의 내면과 취향을 만족시키는 한편, 제국 확장과 미래 약속을 위한 신민의 병사화와 만한 정복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 계몽하기 위한 ‘잘 표현된(노래와 사진술 모두에서) 군사술’의 일종인 핵심요인이다. 편자 와타나베의 말대로 그것을 “평이하고 명쾌하여 풀벌레 소리와 화창”하는 노래로 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작자가 오오와다 다케키였음을 우리는 그의 시적 이력에서 벌써 확인할바 있다.

② 『滿韓鐵道唱歌』는 제국(의식)의 확장과 내셔널리즘의 심화로 구성된 철로와 그 연선을 거침없이 질주했다. 그 핵심 여정을 구성하는 ‘만한’의 지위와 존재를 묻는 일은 당시 ‘일본적인 것’의 실질과 의미를 재구성하는 일과 밀접히 관련된다. ‘만한’은 러일전쟁 당시 완전히 식민화된 상황도 그렇다고 ‘일본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구별된 현실도 아니었다. ‘만한’은 타자/이토이되 점차 ‘일본적인 것’ 내부로 수렴, 흡착될 이웃/지방으로 변두리화되는 반(半) 동일성의 대상이었다. 제국의 ‘만한’ 경영(정복)은 그러니 우월한 존재감과 따뜻한 시혜의식을 기관차 앞머리의 선전 구호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滿韓鐵道唱歌』에서 전자는 ‘만한’에 대한 우월한 군사력과 기술문명의 자랑으로, 후자는 ‘만한’의 미개 문화에 대한 멸시와 동정, 계몽에의 의욕으로 표상되었다. 특히 후자는 이국적인 것을 향한 흥분과 설레임, 두근거림 역시 동반함으로써 ‘만한’을 향한 새로운 감정과 생명력 발견의 토대로 진화하기도 한다.<sup>12)</sup>

그러나 역시 ‘신일본’ 유일의 국시로서 만한경영의 선포와 아동(국민)에의 선전을 목적이한다면, 제국의 확대와 그것을 가능케 한 힘의 논리를 내면화시키는 전략이 우선일 수밖에 없다. 제국과 식민지의 (과거)문화는 선택과 배제의 교묘한 술책을 통해 서열화가 수행되지만, 기술문명과 힘의 논리는 제국 유일의 것, 다시 말해 도시문명과 군사(기술)력에 의해 주장될 수 있을 따름이다. 『滿韓鐵道唱歌』에서 인간의 기초적 삶과 관련된 문화의 기표보다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문명의 기표가 훨씬 승한 이유도 이와

11) 일본은 1906년 러일전쟁 직후 문부성과 육군성 공동 주최로 ‘만한’수학여행을 기획, 실현하여 일본 전국의 학생들에게 대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임성모, 「팽창하는 경계와 제국의 시선—근대 일본의 만주 여행과 제국의식」, 일본사학회 편, 『일본역사연구』23, 2006, 96면) 여행하는 아동(나아가 학생과 국민)에 보다 적합한, 여정의 기억과 ‘만한’의 정보, 풍물의 감상을 모범적으로 예시하는 『滿韓鐵道唱歌』의 제작과 유통은 그런 점에서 필연적이었다.

12) 서기재, 『조선 여행에 떠도는 제국』, 소명출판, 2011, 162면.

밀접하게 관련된다. 특히 중국·일본과 지속적 협력 및 갈등의 역사를 살아온 조선과 달리, 그 변방에 놓였던 만주족은 청(淸)조의 건설과 한(漢)족에의 동화, 그에 따른 귀환 불능의 사태에 빠져들어서 옛 강토 만주를 ‘주인 없는 토지’<sup>13)</sup>로 세계만방에 개방하고자 말했다. ‘만주’의 텅 빈 기표로의 확산이야말로 러일전쟁 발발의 실질적 토대이자 일제 발 심상지리 확대의 주요인이었다 하겠다.

만주 문화를 향한 제국의 시선은 ③의 뒤편이므로, 여기서는 문명의 정점으로서 군사력과 그 전적의 기념 및 기억의 서사와 이미지를 먼저 읽는다. 천황과 제국을 향한 충성의념(念)과 그 실천 기술로서의 전쟁, 그것은 특히 1930년대 후반 전면화 되는, 아동 대상의 ‘소국민’ 육성을 호출한다. 아동들의 ‘만한’경영 예비와 삶의 습득은 최후에는 천황의 충량한 병사로의 성장과 봉공(奉公)으로 나아가게끔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천황의 권위와 나라의 자랑을 드높이고 삶의 모범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승리와 고투, 전몰의 영웅과 병사들을 골고루 기억하고 기념하며 숭고화할 필요가 있다. 과연 ‘불패의 국사’로서 러일전쟁은 만주 일대를 영웅, 그 최고 형태로서 ‘군신’(軍神)의 지략 및 희생의 장(場)으로 새롭게 가치화 했다. 이를테면 러일전쟁 영웅들이 거의 망라되어 있는 다음을 보라.

- |                                                                         |                                                                |
|-------------------------------------------------------------------------|----------------------------------------------------------------|
| 40. 오카자키여단이 고전하여<br>그 이름을 남긴 오카자키산 보며<br>건너는 태자하의 물소리도<br>승전가거나 우리 노래겠지 | 41. 오쿠, 노즈, 쿠로키 삼군이<br>힘을 모아 빼앗은<br>요양 시가 여기저기에<br>남은 것은 적의 보루 |
|-------------------------------------------------------------------------|----------------------------------------------------------------|

—『滿韓鐵道唱歌』, 23면.

40~41연 상의 영웅들은 ‘압록강’을 ‘열풍파죽(熱風破竹)의 기세’로 건너가, 구련성(九蓮城), 합마당(蛤蟆堂), 사하(沙河), 요양(遼陽), 봉천 등에서 획기적 승리를 거둔 자들이다. 산문적 기술이 아닌 만큼 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소개나 정보 제공은 없다. 그러나 [그림3]과 같은 생생한 전투현장을 사진으로 제시하는 한편 “수십의 적포 노획하여<sup>14)</sup>/대부분 전멸시켜버린/혈전(血戰) 저명한 합마당(蛤蟆堂)/그곳도 여기서 멀지 않으리”로 노래함으로써 ‘백승불패’의 전투를 영웅화하는 것이다.

13) 고미네 가즈오(小峰和夫), 『만주라는 땅을 둘러싼 역사』, 나카미 다사오(中見立夫) 외, 박선영 역, 『만주란 무엇이었는데가』, 소명출판, 2013, 44~46면.

14) ‘합마당 전투’를 촬영한 [그림3] 위로 ‘구련성’과 ‘합마당’을 노래하는 창가가, 그 위로 ‘구련성’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는, 러시아군에게서 빼앗은 수십문의 전리포(戰利砲) 사진이 배치되어 있다. 이상의 설명에 대해서는 『滿韓鐵道唱歌』 17면 참조.

이와 같은 승전의 서사는 아동과 청년을 전선(戰線)의 미래로 자랑스럽게 파견하는 직립의 기차길이자 그들 가족과 이웃을 총후(銃後)의 장(場)으로 뿔뿔하게 불러내는 호루라기 소리 같은 것이다. 『滿韓鐵道唱歌』를 높이 부르며 조선과 만주의 전장을 기쁘게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행단 학생들은 미래의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만한 경영’의 포부를 군인의 길과 자연스럽게 합치시켜 갔다고 추측한다면 과연 과장일 것인가.



[그림3] 합마당(蛤蟆堂)에서의 알리 격전 (17면)

그러나 전쟁 영웅은 승전만이 아니라 희생과 패배, 곧 죽음과 상실에 의해서도 탄생할 수 있으니, 노기(乃木) 장군의 전투와 히로세 중좌의 전사(55년)가 그 예이다.

- |                                                             |                                                           |
|-------------------------------------------------------------|-----------------------------------------------------------|
| 55. 노기장군이 고전(苦戰)한<br>명예의 땅은 여기<br>히로세 중좌가 전사한<br>명예의 바다는 여기 | 56. 항구를 봉쇄하여<br>공을 세운 결사의 용사<br>썩지 않을 영예는 세세토록<br>노철산과 함께 |
|-------------------------------------------------------------|-----------------------------------------------------------|

—『滿韓鐵道唱歌』, 32면.

메이지 시대 군인정신을 표상하는 노기는 2만여 명의 희생자를 낸 여순 203고지 전투의 승전자보다는 같은 싸움에서 전사한 두 아들의 아버지라는 비극적 사태로 인해 울컥한 연민과 열렬한 환호의 주인공이 되었다. 히로세 역시 여순항의 러시아 함대 공격에서의 총탄을 맞아 전사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사후 그가 ‘군신’(軍神)으로 추앙된 까닭은 임전무퇴와 희생정신, 그러니까 침몰하는 함선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하를 구하려다 총탄에 쓰러진 무모한(?) 전우에 때문이었다.<sup>15)</sup> 이 무용담, 아니 희생담은 부하 이전에 천황의 병사를 구하려는 숭고한 상징행위로 기록되고 승화될만한 요소들로 가득했던 것이다. 현인신 천황의 그늘 아래 위대한 군신(軍神)으로 영생케 된 까닭이 여기 있다.

15) 코모리 요이치에 따르면, 히로세의 군신(軍神)화는 여순항 봉쇄작전 실패를 진화(鎮火)하는 한편 국민과 병사들에게 전쟁 의지를 다시 불어넣기 위한 술책과 관련된다. 작전 실패에 따른 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이야기 수법을 사용하여” 죽음을 무릅쓴 부하 구조행위로 가치화함으로써 그 실패를 만회하고 역전시키기 위해 고안된 ‘만들어진 서사’, 곧 신화(神話)의 일종이라는 것이다. 小森陽一, 「日露戦争の記憶, 記憶の中の日露戦争」,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國屋書店, 2004, 201~211면.

승전의 기념 못지않게 상실과 죽음의 기억이 전쟁에서 중요한 까닭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적어도 승전 아래의 죽음은 희생을 넘어 승전의 토대로 승인되고 가치화될 만한 성질의 것이다. 승전비에 전몰자 성명의 각인이 더 우세한 것도, 그들의 피가 일종의 생명수로 널리 인정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sup>16)</sup> 고전(苦戰)의 여러 기억과 전몰자의 추모(“세키야(關谷), 다치바나(橘) 두 용사가/눈이 부시도록 명예롭게 전사한”<sup>17)</sup>)가 승전의 노래 『滿韓鐵道唱歌』 곳곳에 박혀 있는 이유 역시 이와 무관치 않다. 그렇다면 병사, 곧 젊은 국민들이 전사한 ‘만주’는 승전의 기억과 기념이 존재하는 한 결코 이토(異土)나 ‘빼앗긴 땅’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림4] 203고지 (31면)

오히려 ‘만주’ 곳곳, 이를테면 ‘부두산’(歪頭山)이 “무훈의 명예”(38연)로, ‘태자하’(太子河)의 물소리가 “개신가”(40연)로 명명되는 현상에서 보듯이, ‘만주’는 일본의 영원한 승전지로, 따라서 충성과 감격이 울울한 충만한 영토로 자연화·심미화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sup>18)</sup> 4반세기 뒤 왕도낙토를 내세운

‘만주국’이 그것의 정치적 현현태라면, 현재 흔히 ‘만주의 추억’으로 불리는 회고의 감각은 그것의 심리적 반영물이라 할 만하다. ‘만주’가 일본 내지로 수렴되는 외지로 여전

16) 일본의 한 연구자는 러일전쟁기 전사자 처리와 묘지 조성 문제, 각종 위령탑과 충혼비 건립 문제 등을 ‘위령의 정치학’으로 명명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정략성과 이념성을 적절히 드러낸다.(原田敬一, 『慰靈の政治學』,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紀伊國屋書店,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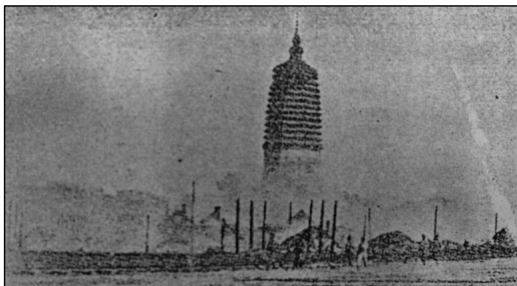
17) 비록 전사자가 문자 형식으로 거론될지라도 『滿韓鐵道唱歌』나 전쟁기념엽서에서는 전사자와 부상자, 패전 상황과 같은 비극적 장면은 거의 피로(披露)되지 않는다. 이것은 충격에 휩싸인 내지인들의 심리 상태를 고려한 조치일 것이다. 그럴 개연성은 중군기자의 사진집이나 화보에 아군과 적군, 스파이를 막론하고 참혹하게 죽은 자들의 사진이 적잖다는 점에서 충분히 확인된다.(井上祐子, 『日清・日露戦争と寫眞報道』, 吉川弘文館, 2012 곳곳 참조). 『滿韓鐵道唱歌』의 경우, 승전 기억과 기념을 위한 조치겠지만, 각종 전리품과 승전 후의 풍경([그림4] 203고지’ 참조), 진군 과정 및 공격준비상황 따위를 포착한 사진들이 다수 게재되었다. 이런 방식의 사진 촬영과 배치는 박진환(270~271면)의 지적처럼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은폐하며 그림으로써 전쟁에 대한 공포심과 거부감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자국에 대한 긍지와 충성심이 더욱 배가됨은 물론이다.

18) 이를 함축하는 명명이 “전적(戰跡)”이라는 테마파크”이다. 일제는 “일로전쟁, 대승리”라는 명분을 확장 심화하기 위해 대중매체, 교과서, 대중예술을 전적의 전파자로 끊임없이 소환했다. 또한 러일의 격전이 벌어진 만주 곳곳에 승전탑과 더불어 위령비, 충령탑 등을 건립했다. 먼 땅에 존재하는 승전의 기억과 기념, 전몰자의 애도를 위한 각종 장치들은 군·관 주도의 ‘만한’수화여행과 관광을 통해 ‘일본적인 것’의 절대성과 가능성을 확인시키고 내부화하는 계몽의 기획으로 성공리에 안착했다. 이상의 상황에 대해서는 川村濤, 「戰跡」というテーマパーク,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217~218면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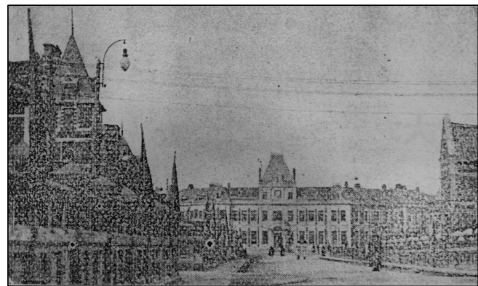


히 살아 있으며 또 그들의 시좌가 여순 203고지 점령 직후(‘[그림7] 203고지’)의 높이에 아직도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연유에서 말미암는다.

③ 우리가 보아온 것은 엄밀히 말해 전장 ‘만주’이지, 그곳 전통의 자연풍광과 문화적 풍물, 삶의 습속과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민낯의 공간 ‘만주’가 아니다. 만약 함선과 대포, 육군의 장총과 수병의 구명복만으로 가득한 ‘만주’라면, 그곳에 관한 경영지식과 지리·문화정보의 획득에서 궁핍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행’의 흥취와 이토에 대한 호기심을 채우고 제국(신민)의 우월성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내지(內地) 철도여행에서 경험한 풍속·문화 관광의 변형적 반복과 재현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강대국의 식민지나 약소국 관광은 그것들 고유의 원시성과 자연성을 발견하고 호흡하려는 욕망에서 기획되고 실현된다. 이런 이국정서에서의 지향과 충족은 그러나 언제나 저들을 야만과 무지의 토인(土人)들로 타자화하고 서열화하는, 간교하며 폭력적인 문명의 책략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그림5] 요양의 높은 탑 (24면)



[그림6] 대련시 (30면)

이와 같은 투어리즘의 이상한 역설을 꿰뚫기 위해 ‘토인’을 분석하고 지배하는 데 유용한 지식 장치 인종학·풍속학과는 비교적 무관한 두 사진을 주목해 보자. 『滿韓鐵道唱歌』 소재 풍경 사진들은 그와 관련된 공간/장소를 간단히 소개하는 노랫말과 함께 배치되곤 한다. 여행자에게 해당 공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인상 깊게 제공하려는 의도겠다.<sup>19)</sup> [그림9] 요양의 높은 탑’ 사진이 배치된, 요양(遼陽) 관련 가사는 앞서 제시한 41연 [오쿠, 노즈, 쿠로키 삼군이 (...) 요양 시가 여기저기에 (...)] 에 담겼다. 이 자리에 대련(大連) 관련 노랫말만 제시하는 까닭이다.

19) 이에 반해 인물 사진은 그 장소 연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인데, ‘토인’의 후진적 풍속과 삶을 일반화·전체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된다.

- |                                                                     |                                                               |
|---------------------------------------------------------------------|---------------------------------------------------------------|
| 51. 나아가기도 빨리 나아가는<br>기차의 창문 왼쪽에 보이는<br>매우 빼어난 풍경의 화상도<br>무역 변화한 대련만 | 52. 대련만 머리에<br>러시아 손으로 만들어진<br>규모 장대한 다루니(靑泥窪)는<br>지금은 대련 시가지 |
|---------------------------------------------------------------------|---------------------------------------------------------------|

—『滿韓鐵道唱歌』, 29 ~ 30면.

두 사진은 언뜻 보아 만주족 제 국가의 위상과 영화를 요양의 고탑(高塔)과 변화한 대련시를 통해 객관화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인상은 노랫말을 함께 읽을 순간 일종의 착시였음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우리에게는 요동(遼東)으로 익숙한 요양(遼陽) 광우사(廣佑寺) 백탑(白塔, [그림5]의 탑)은 물경 800년 전 금나라 때 건축된 전탑(塼塔)으로 높이가 71미터에 이르는 8각 13층탑이다. 수차례 중국과 한반도를 위협에 빠뜨린 만주족의 수준 높은 불교문화와 건축술을 보기 좋게 반영하는 유적인 것이다. 그러나 전쟁 후 여기저기 “적의 보루”만 남았다는 감개는 러시아와 일본에 정복된 요양의 굴욕을 충실히 환기한다. 그러니 요양 고탑은 여러 차례에 거친 만주족의 패배와 몰락은 물론, 시나브로 중국에 습합되어간 청(淸)의 영화와 굴욕을 함께 상징하는 잔여적 건축물인 것이다.

이런 관점과 해석은 변화한 대련 시가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러시아 조차지로 개방되어 근대문명의 성취에 한층 다가섰으나, 이제는 일본의 군사기지이자 휴양지로 식민화된 굴욕의 땅이 대련인 것이다. 더군다나 저 변화한 시가와 건축물은 문명의 러시아인에 의해 개발된 것이고 이후 일본에 의해 더욱 개량되고 확장될 운명의 것이었다. 이렇게 보면, 두 사진과 해당 가사는 ‘만주’의 호화로운 영화가 텅 빈 기표로 빠르게 점멸(漸滅)되어갈 것이며 그 몰락과 굴욕이 실질적 기의로 신속히 기입될 것임을 암시하는, 식민주의적 문자와 이미지의 조합으로 얼마든지 해석될 수 있다.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토인’으로 곧잘 멸시된 만주족을 향한 일제의 식민주의적 시선은 그들의 일상을 포착한 사진들에 뚜렷하다. 사진술과 그 복제술은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식민지의 야만성과 미개함을 사실로 포착하고 널리 선전하는 데 지나칠 정도로 효과적이었다. 연출 혐의마저 짙은 제국의 대(對) 식민지 만화경들, 이를테면 낙후한 식민지인의 인종적·풍속적·문화적 특질을 부감하는 사진들은 그 자체가 서구문명의 우월성과 권력성, 인종·민족차별과 식민 지배를 승인하고 강화하는 비극적 기제였다. 러일전쟁을 통해 서구의 말미에서 동양의 맹주로 올라선 일제의 사진술도 여기서 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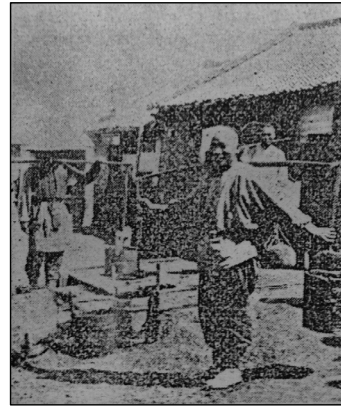
이를테면 [그림7]과 [그림8] 속의 만주인을 보라. 그들의 달콤한 휴식이나 재미난 놀이 모습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후줄근한 치파오(旗袍)를 걸치고 변발한 채 가을 걷이를 하거나 물통을 나르는 쿨리[苦力]들로 인지되고 포착될 뿐이다.<sup>20)</sup> 근대식 ‘하이



칼라(high collar)’에 위생품을 제대로 갖춘 수학여행단이나 관광객에게 이들은 인종적 야만성과 문화적 낙후성, 그로 인한 경멸감과 공포감을 동시에 던져주는 충격적 군상(群像)들이었을 것이다. 원인 모를 무서움을 감쇄하며 그들을 향한 멸시감과 자신의 우월함을 더욱 상승시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다. 제 땅의 주인들을 끊임없이 타자화시키며 변두리로 내모는 전략이 그것이다.



[그림7] 만주의 가을 (27면)



[그림8] 만주 풍속(1) (21면)

과연 오오와다는 방문자가 아니라 내지(內地) 여행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만주를 관통하고 있다. 예컨대 “오른쪽으로 갈라져 영구를/지나가면 요하 나루터 있어/북경으로 향하는 여행객은/여기서 타면 매우 편리하겠네”(44면)나 “고전(苦戰)했던 여순도 우리는 보네/평화로운 여순도 우리는 보네/이것을 여행 선물로/가져가 말하리 미처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57면)와 같은 구절을 보라. 이역(異域)을 유랑·관람하는 여행자의 감각과 동선을 전제한다 해도, 만주인의 구체는커녕 그림자조차 소거되어 있다. 만주인은 만주에 존재하되 타자에 의해 그 실체가 부인되는 헛헛한 유령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행객이 오히려 정주자를 만주에서 내쫓고 그곳을 제국의 내지로 아무렇잖게 재영토화하고 내면화하는 전도된 오리엔탈리즘이 차갑게 꿈틀대는 장면인 것이다.

20) 만주인이 전면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진 ‘만주 풍속(2)’(26면)에도 치파오 차림으로 변발한 채 서 있는 일가족(?)이 등장한다. 사진 중앙에 어른 셋, 아이 둘이 함께 서 있는 이들은 그 북색이 꽤 부유해 보인다. 조선인 역시 만주인의 처지를 벗어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무질서한 전통시장, 남루한 한복을 입고 촬영에 임한 후미진 촌락의 조선인들, 소가 끄는 달구지, 어떤 상자를 지게에 지고 나선 장사꾼. 이것이 『滿韓鐵道唱歌』가 제시한 조선인의 전부다. 물론 그들은 범어사(부산)나 광화문이나 선령당(평양)이니 하는 전통 건축물의 소개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일제의 자본과 기술을 통해 발전을 거듭하던 부산항과 인천항, 경부선 열차와 노량진철교(현재의 한강대교)에 비하면, 전통으로 가장된 후진성 폭로 기계의 하나였을 따름이다.

이후 일제는 ‘만주국’이 증명하듯이 ‘토인’들을 추방한 자리에 그들이 상상하고 조립해낸 허상의 새 국민들, 바꿔 말해 신체제 익찬을 삶의 목표로 재정위하고 실천하는 열혈 신민들을 채워 넣을 것이었다. 따라서 『滿韓鐵道唱歌』의 결구 “아아 청나라도 한국도/다 같이 친한 이웃나라/서로 가까이 지내며/풀어야 할 문제 무척 많네”(60연)라는 연대의 정서는, 그들의 ‘동양평화’라는 구호와 달리, 조선과 만주를 식민주의의 연찬에 올리기 위한 잘 꾸며진 말의 미끼에 불과한 것이었다.

### 3. 전쟁의 만주와 군가의 일본, 그 총력전의 정체

㉠ 군가는 군인들이 영내와 전장에서 충성·애국의 다짐과 전우애·전투력의 고양을 위해 가창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군가는 병사의 정서와 감각에 예민하며, 건전·용감한 군인상(像)창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군가는 언필칭 ‘사이’의 형식이기도 하다. 일과나 전투의 사이, 다시 말해 그 시작 전과 종결 후, 아니면 그 막간에 노래 불림을 떠올려보라. 그렇다면 전선총후의 총력전 상황에서 군가의 창출과 소비는 오히려 ‘총후’의 몫일 수 있다. 병사의 생탄과 훈육, 전쟁물자의 생산과 지원, 이른바 근로보국(勤勞報國)의 책임과 윤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장으로 호출, 소환되어야 한다.

총력전에의 선동과 전투의식의 고취는 각종 매체를 동원한 전쟁의 일상화와 승리의 필연성 강조에 의해 결정적으로 강화되기 마련이다. ‘전쟁’예술의 집중적 생산과 유통에 근거한 참전의 정당성 선전과 애국심의 양양은 국민들의 (위장된) 자발성 격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다. 사실 러일전쟁과 관련시킨다면, 1906년 발 『滿韓鐵道唱歌』는 전적(戰跡)의 기억과 기념을 핵심에 두지만, ‘만한경영’을 위한 지리정보 제공과 이국 여행의 흥취 충족 또한 염두에 둔 2차 기록물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각종 군가는 창작과 유통 시기, 그 내용과 형식에서 훨씬 직접적이며 전장의 현실에 충실하다.<sup>21)</sup> 군가란 본디 군인의 노래일 때 국민의 노래로 전유되는 법이니, 이 흐름을 충실히 포함하는 1차 텍스트의 성격이 필연적이다. 러일전쟁 당시의 군가가 보다 직접적인 감정 호소와 행동의 격발장치이며, 따라서 더욱 폭력적이며 무반성적 형식으로 소비되어간 연유 역시 이런 사실들과 관련된다.

21) 본장에서 다루는 『日露戰爭期軍歌集』 소개 15편의 군가는 1904년 12편, 1905년 2편(『旅順陷落祝捷歌』 『弔祭唱歌』), 1906년 1편(『凱旋第九聯隊』)이 발행, 유통되었다. 1904~06년은 러일전쟁 기간과 대체로 일치한다.

본장의 테마를 “전쟁의 만주와 군가의 일본”으로 압축한 것은 러일전쟁 시기의 군가가 전선 ‘만주’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총후의 내지에서 활발하게 생산·유통·소비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sup>22)</sup> 이런 현실은 병사는 전쟁의 실상을 얼마간이나마 객관화할 수 있지만, 각종 보도매체나 서신을 통해 전장 소식을 접하는 국민은 정보 조작과 왜곡에 활용되기 마련이며 또한 그런 현실에 거의 무감한 채 전쟁을 맞대면하게 된다는 공공연한 비밀을 환기한다.

여기 러일전쟁 때 널리 애창된 군가들을 모은 『日露戰爭期軍歌集』<sup>23)</sup>이 있다. 이들 군가는 형식상 장편과 단편, 서사 중심과 정서 중심으로, 내용상 전선과 총후, 병사와 국민(여성), 기념(승리)과 애도(죽음)를 다룬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때로는 서로 대립적인 양 항목을 관통하는 핵심어는 ‘정로(征露)’의 의지와 충군애국의 정서인바, 이를 통해 ‘전선’과 ‘총후’는 표면상 매끄럽게 통합된다. 따라서 『征露軍歌』 『日露戰爭大捷軍歌』 『日本陸軍』 『日本海軍』 등과 『軍神廣瀬中佐』 『弔祭唱歌』 『女子軍歌』 등을 따로 분별하는 일은 이들 군가의 성격 이해와 영향 분석에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본고는 군가들의 대 사회적 영향력과 효용성,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파시즘의 예술화 문제를 ‘읽는 군가’와 작사자 오오와다(大和田), 애도 및 여성 호출과 국민화의 틀로 함께 읽어본다.

② 창가는 ‘唱歌’가 지시하듯이 노래, 특히 다수의 가창을 목적한다. 그 원류의 하나로 ‘찬미가(讚美歌)’가 지목되는 것처럼 창가의 형식과 내용은 서구 근대음악의 영향이 지대했다. 다른 악보는 차치하고라도 『滿韓鐵道唱歌』의 기차가 내뿜는 연기가 오선지를 흐르는 음표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은가. 조선에서의 창가와 찬미가 역시 그 사이에 일본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빼고는 동일한 기원과 영향을 공유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대한제국의 멸망과 함께 희귀한 가창 형식으로 남게 되는 군가는 제국 일본에서는 어떤 기원을 갖는가. 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군가의 실질적 기원은 『新體詞選』(1886)의 편집자이자 일본소설의 문체 개량을 주장한 「言文一致論概略」의 필자 야마다 비묘(山田美妙)의 「敵は幾萬」이다. 해당 창가는 청일전쟁 당시 출정 병사를 환송하기 위해 활발히 불린 노래로 무엇보다 전의(戰意) 고양을 목표로했다. 한데 흥미롭게도

22) 이런 전제는 藤園主人 外, 『日露戰爭期軍歌集』(國文學研究資料館, 2009)에 수록된 수편의 군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군가집은 병사와 군대의 보편적 상황과 정서보다 러일전쟁의 사후적 보고와 기록, 그것의 전파와 내면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23) 이 책에 실린 군가들은 일본 고치(高知)현 소재 고치시민도서관 ‘近森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가집 말미에 수록본 15편에 대한 간단한 해제(285~292면)가 첨부되어 있다.

「敵は幾万」은 야마다의 장편 무훈시(신체시) 「戰景大和魂」(6행 7연)의 일부를 발췌, 창가로 작곡한 것으로, 『國民唱歌集』(1891)에 수록되면서 널리 가창·애송되기에 이른다.<sup>24)</sup>

이런 일본 군가의 기원과 유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신체시에서 발원한 만큼 그것은 노래뿐만 아니라 일종의 독물(讀物)로 읽혔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군가집 앞의 악보는 노래의 양식에, 7.5조의 정형률은 노래를 포함한 율격적 낭송에 적합했을 것이다. 그 내용의 계몽성과 그 효과로서 애국심·충성심의 발현은 개인의 묵독(默讀)보다는 집단적 가창이나 낭송에 의해 훨씬 고조되었을 것이다.<sup>25)</sup> 둘째, 일본의 대표적 창가를 모은 『國民唱歌集』의 제명(題名)은 단연코 이중적이다. 하나는 창가의 향유층은 귀족이나 식자층에 국한되지 않으며 노래에 흥미를 가진 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 있음을 지시한다. 다른 하나는 육일승천의 제국<sup>26)</sup> 일본을 구성하는 근대적 인민, 아니 천황의 신민들이 불러 마땅한 노래임을 고지한다. 뒤늦은 근대문명의 성취, 탈아입구(脫亞入歐)에의 야욕, 그 가운데서의 청일·러일전쟁은 국민의 각성과 일체화를 필연적으로 요구했을 것임을 감안하면, 이런 해석은 크게 지나치지 않다. 신체시에서 군가로의 전유가 보여주듯이, 새로운 국민(신민)의 형성과 그 제국적 확장은 개인 정서의 표출과 향유(신체시)를 집단적 열망의 발화와 확산(창가)으로 거리낌 없이 진화, 아니 퇴보시켜 나갔던 것이다.

일로전쟁 군가의 낭송 내지 독물(讀物)로서의 가능성은 어디서 어떻게 확인 가능할 것인가. 전쟁의 심미화와 신민의 병사화, 그를 통한 일본적 동일성과 제국의식의 확장을 보여주는 일례로서 아래의 군가집은 어떤가. 나리타 류이치(成田龍一)의 말을 빌리면, 이 군가집들에서 “국가를 위해 죽는 병사들이 출현하며 그 병사들의 심정과 일체화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해당 군가집을 통해 우리는 “그들(전몰자와 국민—인용자)은 함께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면서 신체와 소리, 감정을 공유하고 있는”<sup>27)</sup> 것이란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될 지도 모른다.

먼저 『日本海軍』이다. ‘국민창가’라는 노래의 성격은 그 대상과 향유의 주체를 병사 및 충후의 신민으로 함께 묶는다. 바다를 힘차게 가로지르는 함선의 위용은 전의(戰意)

24) 小川和佑, 『唱歌・讚美歌・軍歌の始源』, アーツアンドクラフツ, 2005, 81~84면.

25) 이즈음은 유성기나 축음기가 부재한 시대였으므로, 가창과 낭송은 눈앞의 발화자와 청취자를 전제로 이뤄졌음을 기억하라. 그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유력한 수단이 서책이나 신문 등 활자매체에 실린 창가였음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 창가와 군가의 가창과 낭송, 나아가 개인적 독물로서의 가능성이 놀랄 만큼 확대되었을 것임은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26) 『日露戰爭期軍歌集』은 그 표지를 藤園主人의 「征露軍歌」에서 취하는바, 거기에는 태양이 사방으로 널리 뻗치는 배경 아래 먹잇감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하강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다.

27) 成田龍一, 「「國民」の跛行的形成-日露戰爭と民衆運動」, 小森陽一 外, 『日露戰爭スタディーズ』, 120면.

와 애국심 고취, 승전의 필연성을 널리 감염시키기에 충분하다. ‘만한’ 철도가 그랬듯이, 함선은 단지 전투에서 멈추지 않고 제국 일본의 세계만방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격정적으로 내면화한다. 뒤쪽에 “용장활발(勇壯活潑)하게” 부를 것을 지시하는 2/4박자의 악보가 첨부되어 있지만 과연 집단의 가창으로만 그쳤을 것인가? 군가의 처음부터 ‘산에는 포대 바다에는 함선’하는 식으로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며 온갖 함선과 수병, 장성을 호명하고 그 전적(戰跡)을 서사화하는 방법은 잘 짜여진 이야기<sup>28)</sup>의 면모가 약여하다.



[그림9] 일본해군

게다가 함포 사격과 어뢰 폭발 등 한창 전투 중인 거친 바다를 육일승천기를 휘날리며 가로지르는 함선을 묘사한 전쟁화(2편)<sup>29)</sup>의 배치는 어떨까. 가창만을 목적한다면, 굳이 끔찍한 전투 장면을 호쾌하고 웅장한 진격 장면으로 변조왜곡하여 제시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가창을 전제 하되, 낭송하며 전쟁화를 감상하게끔 함으로써 천황제 중심의 국가주의를 마음껏 선전하고 구가하게 하는 전략이 엿보인다는 판단은 그래서 가능하다.<sup>30)</sup> 예컨대 『日本海軍』의 결사(結詞) “빛나는 국기를 꽂고서/해외만리 저편까지/진격하라 친보쿠(鎮北) 친쥬(鎮中)함/진격하라 친벤(鎮邊) 소코(操江)함”이 어디 해군만의 전망이자 목표이겠는가. 이것을 함께 노래하고 읽는 과정을 통해 일본인들은 천황에 열과 성을 다하는 충실한 ‘신민’으로, 국가의 사업과 발전 같은 공적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국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sup>31)</sup> 그것이 제국 확장과 지속의 굳건한 토대가 되었고, 러일

28) 오오와다 다케키가 함께 지은, 『日本海軍』의 쌍둥이 작품 『日本陸軍』은 아예 군가 가사를 ‘출진-척후-공병-포병-보병-기병(騎兵)-치중병(輜重兵)-위생병-개선-평화’라는 일련의 전투 과정으로 서사화하고 있다. 또한 제반 병사들의 역할과 임무를 적시하고 서술함으로써 그들의 자긍심 고취와 국민을 향한 정보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역시 치열한 전투 장면을 그린 전쟁화 2편이 수록되어 있는바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을 돌파하는 병사들의 고투가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29) 러일전쟁 시기 전쟁화는, 그 조작 가능성을 전제하더라도 사실성의 적시가 우세한 사진과 달리, 국가주의와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한편 전쟁의 참상을 은폐하고 승전의 영광을 부감하는 상상화의 성격이 다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용철, 「러일전쟁기 일본 전쟁화의 몇 가지 유형」, 『일본학연구』29, 단국대 일본연구소, 2010 이곳저곳 참조.

30) 15편의 군가집 말미에는 인쇄와 발행일, 저작자와 작곡자, 발매처(또는 출판사)와 발매자, 인지를 붙이는 판권소유란이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다. 군가 창작의 사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그 향유와 소비 주체를 강조하는 ‘국민창가’와 흥미롭게 대조된다.

31) 이런 관점에 설 때 가장 흥미로운 군가는 『征露の歌』(大阪新報社編)다. 이 군가집은 ‘대판신보사’가 독자에게 현상 모집한 와카(和歌), 한시, 군가, 속요 따위를 모아 편찬한 것이다. 정부와 대중매체 발 위로부터의 계몽과 선전에 더해, 국민들은 애국심과 배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의 자발적 내면화와 발화, 그리고 대외적 발표를 스스로 수행해 갔던 것이다.

전쟁 후 만한정복과 경영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또 다른 설명을 필요치 않는다.



[그림10] 군신히로세중좌

『軍神廣瀬中佐』는 군가인 동시에 추모가다. 9연에 거쳐 여순항 봉쇄작전 중 전사한 히로세 중좌의 멸사봉공 과정을 노래한 군가의 좌표와 목적은 다음 첫 소절에 뚜렷하다. “살아서는 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죽어서는 군신이 된 히로세 중좌의 공명(功名)은 무인(武人) 귀감의 꽃”. 이렇듯 숭고화된 히로세의 군인상(像)을 인상적으로 재현한 것이 [그림10]의 좌상이다. 이 사진은 구도와 인물 형상 모두에서 각종 관공서와 학교에 내걸릴 법한 공적 초상 내지 추모시설에 봉안되었음직한 영정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따라서 히로세의 영웅적 삶과 죽음을 아는 국민들은 그 누구라도 이 사진을 접하는 순간 정중한 애도와 존경심을 표하는 한편 그 멸사봉공의 정신을 새로운

제국 탄생에의 의지와 자발적 참여의 다짐으로 내면화하게 되었을 것이다.<sup>32)</sup>

가령 “쏟아지는 탄환 개의치 않고/침몰해가는 선교(船橋)로/잃어버린 칼 가지러 가는/중좌의 우뚝한 몸”은 이른바 ‘국민전쟁론’의 입장에서 보면 전선의 병사와 총후의 국민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군국(軍國)의 육체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군가집 『軍神廣瀬中佐』는 노래와 이미지, 율격과 문자, 서사와 감동을 모두 포괄하는 전체성의 형식으로 죽은 자와 산 자, 병사와 국민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쟁예술의 핵심목표를 어김없이 성취하고 있다. 여기에 날로 강화될 군국주의를 집단적으로 예술화하는 폭력적 내셔널리즘과 동아시아, 특히 만한의 제패와 지배를 향한 식민주의적 의식이 울울하게 꿈틀거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우리는 아직 이들 군가와 오오와다 다케키의 연관성을 말하지 않았다. 독자의 짐작대로, 『日本海軍』 『日本陸軍』 『軍神廣瀬中佐』 『弔祭唱歌』는 모두 오오와다가 작사한 군가다. 『弔祭唱歌』의 말미에는 “소년 제군이 가장 좋아하는 독물(讀み物)”이란 광고 제

32) 전몰자 일반을 위해 헌사된 창가 역시 창작되었는데, 오오와다 다케키가 지은 『弔祭唱歌』가 그것이다. 책 표지에는 청일러일전쟁 전몰자를 봉안한 야스쿠니(靖国)신사의 도리이(鳥居)와 ‘靖国神社’를 새긴 석탑, 일본육군의 창설자 오오무라 마사시로우(大村益次郎)의 동상을 찍은 사진 석 장이, 본문에는 봉안 및 추모 장면이 담긴 사진 네 장을 싣고 있다. 해당 군가는 “9.주검은 땅에 묻혔어도/머무른 영령은 아국(我國)을 지키는 신으로 추앙되어/하늘과 땅, 그리고 번성하는 천황의 세상으로” “10.살아서는 명예 죽어서는 영광/넘어가는 국위를 기념하여/지하에 영면하시라 용사여/산은 푸르고 물은 희구나”로 종결되고 있다. 서책 『弔祭唱歌』 한 권만으로도 러일전쟁 관련 전몰자들이 국가적 기억과 기념의 장(場)으로 공식 편입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어렵잖게 엿볼 수 있다.



호 아래 『軍神廣瀬中佐』 『弔祭唱歌』와 함께 『旅順大海戰』 『決死隊』 『地理教育 東京電車唱歌』가 나열되어 있다. 이 군가들과 철도창가의 집합과 결속이 얼마 뒤의 『滿韓鐵道唱歌』(1906)의 창작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음을 알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일본적 정체성과 제국 의식의 강화, 식민주의적 의식의 심화와 아동교육을 통한 그것의 미래화를 위해 창가와 군가를 국민 공유의 노래로 통합, 제공할 줄 아는 창가의 일인자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창가의 병사화, 바꿔 말해 창가와 신체시로 대표되는 근대시가의 전쟁 예술화 혹은 군가화가 오오와다에 의해서만 수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조중환의 변안소설 『장한몽』의 원본 『金色夜叉』의 저자 오자키 코요(尾崎紅葉)와 더불어 겐유샤(硯友社) 핵심 멤버로 활약한 야마다 비묘가 신체시에서 군가로의 변화를 개척한 인물이었음은 이미 지적했다. 겐유샤가 서구문화의 맹목적 추구에 반대하여 일본 고전문학의 전통을 새롭게 가치화한 국수주의적 경향의 문학 결사였음을 감안하면, 그들이 주요 저자였던 창가와 신체시, 군가의 파행적 결합은 예정된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근대시가의 파행적 행보는 그러나 성년의 국민을 넘어, 『滿韓鐵道唱歌』와 『弔祭唱歌』 광고 군가들이 예시하듯이, 아동용 지리 교재 및 음악 소비재로 공식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훨씬 문제적이었다. 과연 미래의 황군 육성은 아동문학가의 과제이기도 했으니, 일본 아동문학의 선구자 이와야 사자나미(嚴谷小波)의 군가 작사자로의 등장은 어쩌면 필연적이었다. 메이지 37년(1904) 기원절 아침에 작사했음을 표 나게 강조한 『征露軍歌 其一 旅順の海戰』의 존재가 그것이다. 이 작품에는 벌써 가미가제(神風)의 상상력과 그 믿음이 약여한바, 서두 “신께서 지키시는 일본의/적은 누구인가? 저 러시아!/참으로 러시아의 무례에는/신도 분노를 금치 못하는구나”라는 가사를 보라. 물론 이 한 편의 작품을 두고 이와야를 전쟁예술에 대한 적극적 참여자로 크게 비난할 일은 못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편집한 아동잡지 『少年世界』(1895년 창간)를 읽으면서 그가 아동을 위해 새로 개척한 ‘오토기바나시(お伽噺:옛이야기)’나 구연동화<sup>33)</sup>를 듣고 자라온 아이들에게 이와야의 군가는 교육적이기에 앞서 위험한 노래이자 문자였다. 그의 군가는 전쟁의 비극성과 폭력성을 은폐하고 맹목적 승전의식과 배타적 내셔널리티만을 고취시키는 편향된 노래가 아닐 수 없다. 그의 강력한 영향 아래 놓인 아동들과 부모들은 군가에 새겨

33) 이와야 사자나미의 『少年世界』는 육당 최남선의 『少年』에, 그 동화들은 방정환의 아동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인정된다. 그는 『少年世界』와 『세계오토기문고』(1912) 등에 조선의 옛이야기를 소개하는 한편 1910년대 조선과 만주로 구연(口演)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는 점에서도 유의할만한 인물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오타케 키요미(大竹聖美), 「두 사람의 소파(小波):이와야 사자나미(嚴谷小波)와 方定煥」, 『아동문학평론』 26권 1호, 한국아동문학연구원, 2001 참조.

진 침략주의적·식민주의적 의식에 관한 성찰의 겨를도 없이 그것을 미래의 세계관으로 아낌없이 내면화해 갔을 것이다. 대동아전쟁기 가미가제의 명령은 메이지 시대 아동, 다시 말해 ‘소국민’의 핏줄과 영혼을 타고 서서히 확산된 저 신국(神國) 의식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괴물화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판단은 이런 사정에서 말미암는다.

③ 국가를 수호하고 나라에 목숨을 바치는 총력전 아래의 ‘국민’ 서사, 그러니까 ‘총후’



의 표면과 심층을 파고들 때 아동/소년 이외의 문제적 대상을 꼽으라면 여성을 빼놓을 수 없다. 미해결의 장(場)에서 떠도는 중군위안부 문제라든가 점령된 국가/지역의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야수적 폭력은 우뚝 발기한 팔루스에 포획된 여성의 비극과 무력함을 표상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그 팔루스를 공유하고 있는 제국의 여성들은 어떤가? 그들 역시 제국의 ‘아동’과 마찬가지로 승리의 함성과 보국적 육체로의 지향이 기대되는 순응적 실존에 걸려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때 『女子軍歌』의 존재는 여러모로 유의미한 논의와 담론의 생산지로 귀착된다는 느낌을 준다.

[그림11] 여자군가

[그림11]은 『여자군가』의 표지인데, 그 가외(可畏)의 표제와 달리, 각종 이미지와 문자의 모양 및 배치가 꽤나 낭만적이다. 철선이 전투를 벌이는 마당에 범선은 무엇이며 또 ‘군가’에 단아한 꽃들의 장식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성용 노래임을 강조하기 위한 디자인이겠으나, 우리는 표지에서 벌써 여성의 어떤 역할과 처지가 심미화·낭만화될 것임을 언뜻 짐작한다.

『女子軍歌』는 그 편집과 내용에서 다른 군가와 확연히 구분되는 면모가 있다. 첫째, 권두언의 내용. “군국의 숙녀와 영양(令嬢)”에 주는 글로, “총군애국의 정(情)”과 “정의 무용(武勇)의 열혈”을 그녀들 역시 드높여야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女子軍歌』는 장편창가의 양식을 취하는바, “집은 우리가 지킨다” “우리도 나라를 위해” “간호부” “오늘의 국기” “상부련(想父戀)”의 순서로 그 내용이 전개된다. 그 정서와 서사가 서로 다른 각 장마다 독립적인 악보 5장을 따로 배치하여 색다른 효과를 자아내는 방법은 『女子軍歌』에만 보이는 미학적 특징이다. 어떤 군가들처럼 전쟁 사진과 전쟁화를 신는 대신 가집 중간중간에 종류별 전함 세 척을 자그맣게 점묘한 것도 돋보이는 미감이다.

각 장의 제목으로도 얼추 짐작이 가지만, 앞의 4편은 ‘가정’에서 ‘보국’으로 확장되는 여성의 의식과 역할을, 나머지 1편은 전장의 남편을 여윈 여성이 취할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요컨대 일상의 현모양처(賢母良妻)에서 군국(軍國)의 아내-딸로의 용감하고 지혜로운 변모가 서사의 핵심인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사 세 꼭지를 선택하여 그 실상과 의미를 함께 분석해보는 것은 어떨까.

몽매 아만의, 러시아를,	자자, 우리 자매끼리,
천하를 위해, 징벌하라는,	어머니 도움 받지 말고,
천황의, 분부 말씀	실을 짓고, 직물을 짜서,
나가세, 전진하세, 대장부여	만든 붕대와 방한포(防寒布),
집 지키는 일은, 우리들이라네	황군(皇軍)의 신승을,
—「집은 우리가 지킨다」 부분	알아차려, 우리도 나라를 위해.
	—「우리도 나라를 위해」 부분

앞 절에서는 ‘가정은 부인이, 바깥일은 남편이’라는 역할 구분이 분명하다. 러시아를 악의 축으로 몰며 그들과의 전쟁이 천황의 분부임을 뚜렷이 하는바, 이로써 전쟁의 명분과 윤리성은 그 타당성을 확보한다. 총후의 일차적 목표는 병사와 남자들을 대신하여 가정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가정의 안정과 평화가 국가의 그것이며 전장의 병사를 보위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의 확대와 급박성은 가정 지키기만을 여성의 책무로 한정시키지 못한다. 전선을 지원하는 ‘근로보국’이 여성의 몫으로 견인되었음을 「우리도 나라를 위해」는 또렷이 보여준다.

이것이 단순히 독려의 목소리가 아니었음은 ‘애국부인회’ ‘일본적십자사’(「간호부’가 이와 관련된다)의 적극적 활동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여성들은 근로지원 외에도 부상병 간호와 지원, 전몰자 가족을 위한 모금과 위문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총력전, 다시 말해 ‘국민전쟁’의 일익을 명랑하게 담당했던 것이다.<sup>34)</sup> 자국의 병사와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은 민족 감정의 지평에서나 일반적 박애의 관점에서 크게 문제될 것 없다. 진정한 문제는 군국주의(“천황의, 분부”)의 확장 속에서 ‘현모양처’라는 범속한 풍속과 이념이 변질되어 그녀들을 병사화·전체화하는 파행적 국민화의 회로 속에 가둬버렸다는 엄혹한 사실에 있다.

진작부터  
천황께 바친 이 목숨,  
돌아오길 기다리지 말라시던,  
아버지 말씀 잊을 수 없건만,

34) 飯田祐子, 「婆のカ-奥村五百子と愛國婦人會」, 小森陽一 外, 『日露戦争スタディーズ』, 133~135면.

섬멸하여, 러시아를,  
황군(皇軍)의 비단옷 입고,  
돌아올 봄은, 아버지의,  
기다릴 길 없는 귀환에 애석함만이.

—「想父戀」 부분

화자는 아내여도, 딸이어도 상관없겠다. 상황을 미루어 보건대 가장(家長)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듯하다. 천황을 위해 바친 목숨이니 오히려 명예이자 영광의 죽음인 셈이다. “황군의 비단옷”이 그것을 뜻하는바, 그러나 그것이 돌아올 수 없는 아버지의 영혼과 육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 물론 저 애석함은 죽음에 대한 원망이기보다 승전의 명예를 함께 나눌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해석해야 옳겠다. 당연히도 「想父戀」은 가장 친밀한 가족의 목소리를 빌려 전사자에 대한 숭배를 올리는 한편 그들의 희생이 제국의 승리와 총후 안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널리 알리는 노래인 것이다. 그러니 딸과 어머니 아마도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거기 바쳐진 국가의 정중한 애도와 이웃의 존경에 힘입어, 애국부인회나 적십자회의 단원으로 자기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군국의 아내와 딸의 이상적 지향점과 전후 현실에서 적극 권장되던 ‘현모양처’의 새로운 모델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몰자 가족의 현실이었는가? 내지(內地) 어딘가에 은밀하게 나돌던 반전(反戰)이나 비전(非戰)의 목소리는 차치하고라도, 전몰자 가족의 슬픔과 고통, 이른바 “과부의 눈물”은 과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는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전쟁은 부부의 은애(恩愛)를 끊고 가정을 파괴했다”는 것이다. 전쟁의 참화에 의한 가족의 파탄은 어떤 방식으로든 전후 국가의 안정과 회복, 번영에 장애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이들의 희생을 향한 국가의 애도와 각종 단체의 지원은 “애국의 하중”이 촉발한 현실의 불안과 고통, 미래를 향한 전망 부재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적 구원의 일종이 아닐 수 없다.<sup>35)</sup>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한다. 가족의 파탄과 비극은 패전국 러시아에서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들 역시 슬라브주의를 내세운 제국주의의 일환이었다는 점에서 일제 군국주의와 죽음과 비판의 몫을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 러일 양국 누구도 기억하지도 애도하지도 않았던, 조선과 만주의 ‘옥련’(청일전쟁 시 평양에서 줄지에 고아가 되었!)을 지속적으로 환기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러일에게 삶을 저당 잡힌 식민지의 ‘토인’들은 국가의 공식적 애도와 위령탑의 건립 하나 없이, 러일의 병사

35) 이상의 직접 인용은 大浜徹也, 『庶民のみた日清・日露戦争-帝國への歩み』, 212면.

들이 밟고 지나간 ‘버려진 땅’에 묻혔을 따름이다. 이들의 비탄과 눈물, 죽음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애도 없이는 “아아 청나라도 한국도/다 같이 친한 이웃나라/서로 가까이 지내며/풀어야 할 문제 무척 많네”라는 제국의 목소리는 채울 길 없는 텅 빈 기표로 ‘만한’을 어슬렁거리는 허언(虛言)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4. 글을 마치며

(추후 서술함)



# 재만주(국) 작가 안수길과 ‘얼되놈’의 자리

- 이념과잉 공간에서의 글쓰기와 작가의 윤리

정 주 아 (서울대)

- |                        |                      |
|------------------------|----------------------|
| 1. 서론_ 아는 것과 알고도 모르는 것 | 3. 자기응시와 자기보존의 긴장 관계 |
| 2. ‘얼되놈의 자리’와 작가의 윤리   | 4. 결론                |

## 1. 서론 \_ 아는 것과 알고도 모르는 것

안수길은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큰 산이다. 이때 큰 산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그가 해방 이전 창작집 『북원』(1944), 장편소설 『북향보』(1944-45), 해방 이후 『북간도』(1959-67)로 이어지는 만주 조선인의 역사에 대한 기록에 있어 뚜렷한 족적을 남긴 작가란 뜻이다. 또한 다른 하나는 해방 이전 『만선일보』의 기자로 일했던 안수길의 전력과 그에 따른 작품의 해석이라든가 문학 활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가 그 자체로 큰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원』에 수록된 소설을 두고 작가는 각기 발표된 작품이되 ‘시대적 연결’을 느낄 수 있으리라 장담하며 자선 대표작들을 순서대로 열거한다.<sup>1)</sup> 그러나 그의 추천대로 「새벽」(1935), 「새마을」(1942), 「벼」(1941), 「원각춘」(1941), 「토성」(1942), 「목축기」(1943) 등을 읽어 나가는 것은 분명 당황스러운 경험이다. 이들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1880년 전후 두만강 대안의 북간도 지역 주민의 ‘월경(越境)’문제가 정치적인 관심사가 된 이래,<sup>2)</sup> 만주국 성립 이전 이미 간도 땅을 개간하여 뿌리를 내린 조선 농민들의 사연을 다룬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텃세, 중국인 토호가 고용한 조선인 관리인의 농간, 마적의 침입 등

1) 안수길, 「後記」, 『북원』, 예문당, 1944.

(이하 이 글의 인용되는 안수길 단편의 인용 면수는 1944년 예문당 판본 『북원』의 표기 방식과 페이지수를 따르고, 본문에는 『북원』이라고만 명기한다. 대하소설 『북간도』는 1967년 삼중당 판본의 표기방식과 면수를 표기하기로 한다.)

2) 「간도」라는 명칭의 시대적 변화와 관련된 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박선영, 「간도 문제의 시대적 변화상, 17~21세기」, 『만주, 동아시아융합의 공간』, 한석정·노기식 편, 소명출판, 2008, 304~305면 참고. 이 시기에는 ‘조청 국경 담판 시기’로 두만강 건너의 간도 지역의 소유권이 본격적으로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실제로 이 시기는 안수길 『북간도』의 출발 지점이기도 하다.

을 겪으면서도 땅을 개간하고 수도를 만들어 황무지를 논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의 수난사와 생존 의지는 감동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적(史的) 기록으로서의 가치 또한 지닌다 할 것이다.

그러나 『북원』에는 이 창작집이 발표된 시대의 영향을 실감하도록 만드는 부분이 곳곳에 등장한다. 예컨대 소설 「벼」의 마지막 장면은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찬수는 물에 머리를 박은채 다시한번 흙속의 팔에 원힘을주어 흙과벼모를 안었다. 군중은 엎드린채 육군은 총뿌리를겨논채 안무런동요도없이 무시무시한 침묵이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중략...) 나까모도한테 갔든 사람들은 그때까지 오지않았다. 그러나 곳 오고야말것이다.<sup>3)</sup>

개척민을 내몰기 위해 육군까지 동원하는 중국 현성의 폭력성을 부각시킨 이 소설의 결말은, 북벌에 성공한 장개석 정부에서 내려 보낸 민족의식에 투철한 중국 현장에 의해 생겨난 사태이므로 적어도 1928년을 전후한 사실이 되는 것이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중국 정부를 개척민을 위협하는 배타적 집단으로, 대신 중국정부와 개척민의 대립을 해소하고 중재할 인물로 일본인을 내세운다. 주지하듯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일본 군부가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까지 만주를 포기하지 않은 결과물이 1932년에 설립된 만주국이며, 이른바 만주제국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중심으로 오족협화(五族協和)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일본을 조선인 부락을 구원할 존재로, 오족협화를 실천에 옮기는 존재로 그려낸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나아가 「토성」에 이르면 만주사변으로 비적에 의해 근거지를 잃은 가족이 만주국이 건국과 더불어 내놓은 농촌 갱생안인 ‘자작농창정’ 정책에 의해 다시 재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쯤 되면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안수길이 이들 소설에서 ‘시대적 연결’을 느낄 것이라고 장담할 때,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법천지의 만주가 국가로 상징되는 법제적인 질서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보라는 것인가, 아니면 만주국의 언론 검열을 의식하여 개입시킬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편향을 걷어내고 서사의 줄기를 이루는 재만 조선인의 고난의 역사를 보라는 것인가. “만주문예단에 보내는 개인창작집으로서 선편”<sup>4)</sup>, “만주 선계 문단에서 개인 창작집으로는 이것이 효시”라는<sup>5)</sup> 격려와 함께 야심차게 발간된 안수길의 창작집에 대해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사실상 재만 조선인 문학뿐만 아니라 대일 협력 문학의 평가 문제라는, 식민지 시대가

3) 안수길, 「벼」, 『북원』, 291면.

4) 염상섭, 「序」, 『북원』, 예문당, 1944, 3면.

5) 안수길, 「용정 · 신경시대」, 『안수길』, 연변대학교 조선문학연구소, 2006, 608면.

속명처럼 남겨 놓은 한국근대문학 연구의 과제와 또다시 마주치게 된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다. 안수길이 만주를 개척한 조선인의 서사를 쓰고 싶어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 어느 순간 무심코 내뱉은 '나의 용정'란 말의 어감에서 짐작하듯<sup>6)</sup> '간도'에는 그의 젊은 시절은 물론 그의 삶 전체가 걸려 있다는 것, 이러한 작업의 대부분이 만주국과 그 국책 선전지라 할 『만선일보』의 기자 생활, 만주국 산하 보도국의 통제를 받는 문단 활동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에서 출발했음에도 이 사실들은 서로 겹쳐져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실들을 만들어낸다. 그가 생각한 조선 작가란 어떤 존재였는가, 혹은 재만 작가란 어떤 존재였는가. 물론 이러한 질문은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작가의 윤리를 묻는 것이기에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면서도 모르는 사실에 직면하고 당황하게 되는 것은 소설 텍스트 자체가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표면에 명백히 드러난 사실 이외에 텍스트는 이른바 텍스트의 무의식이라 부를 만한, 작가 스스로 논리적 설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내적 균열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안수길의 소설에 대해 김윤식 교수는 '작가의 인격과 작품이 나란히 간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안수길은 '인생과 작가'의 유형에 든다고 평한 바 있다.<sup>7)</sup> 이는 체험이 없으면 작품을 쓰지 못했다는 특징을 염두에 둔 언급인데, 우리는 이러한 작가적 특성으로부터 적어도 안수길의 문학이 만주국 국책의 재현이라 비판 받아야 한다면 그가 도피한다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혼종적 공간'으로서의 '간도'를<sup>8)</sup> 온몸으로 체험한 이후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안수길이 만주에서 발행한 『북원』과 해방 이후 월남하여 집필한 『북간도』를 텍스트로 삼아, 국가 간의 민족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주국 체제 하에서 안수길이 놓여 있는 작가의 자리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2. '얼되놈의 자리'와 작가의 윤리

안수길의 중편소설 「벼」에는 응봉리에서 길림으로 이주한 개척민들이 최초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전(논)을 일구고 터를 잡고, 이 소문을 접한 고향 응봉리의 주민들이 잇달아

6) 위의 글, 612면.

7) 김윤식, 『안수길 연구』, 정음사, 1986, 273면.

8) 박진임, 「국경넘기와 이주의 시학」, 『한국현대문학연구』11, 2002.

국경을 넘어 간도에 당도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이는 『북간도』를 비롯하여 여러 소설에서 나오는 설정인데, 그 결과 간도에 세워진 마을은 땅이 바뀌었을 뿐 실상은 조선에 있던 낫익은 부락민들이 모여 사는 형국이 된다. 거친 환경을 이겨내면서 이들의 연대의식은 ‘조선인’이라는 이름 이외에 개척 촌락의 주민이라는 자격으로도 더욱 공고해지고, 간도에 자신들이 떠나는 고향을 옮겨 놓아 제2의 고향으로 만들겠다는 신념이 생겨난다. 이러한 정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벼」의 주민들이 학교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떠난 고향의 이름을 따 ‘응봉학교’라 붙이는 대목일 것이다. 낫선 땅이지만 후세대에겐 떠난 고향의 이름, 근원을 잊지 말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 보면 될 것이다.

이처럼 만주로 이주한 이주민들에게 한반도와 만주는 명쾌하게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었다. 떠나왔으며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 혹은 불가능한 의식적인 연대의 끈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가 안수길의 아무리 만주의 역사를 그려내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조선과의 연대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길의 작품이 전적으로 만주를 조선과 균질한 공간으로 보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가 그려낸 만주 개척의 서사와 재만 조선인의 역사는 그것이 조선과 분리된 독자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이에 안수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만주와 조선의 연대 관계를 대상화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이주한 조선인으로서 고향의 일족을 바라보는, 즉 만주를 거점으로 하여 조선을 대상화하여 서술하는 방식이다. 다음 『북간도』의 일절은 한 예가 될 것이다. 만주에서 태어난 조선인인 창윤은 조부의 고향인 함경도 종성부에 들어간다. 처음 보는 고향의 모습은 그를 가슴 설레게 만드는 것이었으나, 차츰 이들의 생활이 궁핍하고 그에 따라 인성이 각박하다는 것에 실망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부조가 일군 제2의 고향인 간도 비봉촌을 생각한다.

동복산 일족이나 청국 관헌한테 대한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었다. 얼되놈 최삼봉, 노덕심 같은 사람들이 심어 놓은 것, 주민 사이의 반목 같은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비봉촌처럼 살기 좋고 인심이 후한 곳은 없다고 창윤이는 생각하게 됐다. (...) 창윤의 눈은 점점 고국의 땅, 부조의 고향의 깊게 감춰 있는 데를 파고들었다. ‘고국 이구 고향 땅이구 벨 쉬 없어.’<sup>9)</sup>

이처럼 고국이란 끊을 수 없는 연민의 대상으로, 현재 삶의 수준을 가늠하는 비교 대

9) 안수길, 『북간도』上, 188면.



상으로 존재한다. 과연 만주에 정착했으되 그 정착이라는 결단이 과연 현명한 일이었는가를 판단할 때 고향은 비교 대상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이라는 점에서 향수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거꾸로 고향 일족의 시선에 동화하여 조선 이주민을 바라보는, 즉 자신이 만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거점으로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도 발견된다. 이 지점은 곧 간도인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서술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사실상 한반도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간도'의 의미를 자리매김하는 대목 모두에 해당된다. 가령 『북간도』에서 '광개토대왕비'의 발굴에서부터 그려낸 조상의 땅(고토회복)의 역사로서의 '사잇섬(간도)'으로의 진출이 이에 해당한다. 간도는 대대로 지사의 땅이며, 농민들이 일구어낸 새로운 개척지이다. 그리고 본토에서 독립운동의 길이 막혔을 때, 몰려든 청년들과 지사들이 혼란을 쌓고 때론 훗날을 도모하는 조선민족의 희망의 땅인 것이다. 조선의 일부로서 장차 조선의 미래가 준비되는 곳이다. 실제로 『북간도』의 서술부는 개척촌을 만드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농민들의 죽음에 대한 헌사에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죽어간 무명용사들에게 대한 예찬으로 바뀐다. 희생된 이들을 지배했던 시대적 조류와 그 속에서 운명처럼 죽어간 사람들의 역사는 『북간도』의 서사가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자 치열한 고증 속에 서술된 대목이다. 한반도와 간도는 서로 분리되지 않으며, 제각기 이민족의 횡포로부터 독립을 향한 오욕의 역사를 공유한 공간이다.

만주에서 조선을 대상화하는 방식, 이어서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 그리고 이러한 서술 원리의 마지막 항은,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시선을 경유하여 만주를 만주 자체와 대면시키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조금 복잡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하다. 앞서 살폈듯 만주라는 땅에는 풍문으로 전해진 많은 선입견과 기대가 존재한다. 가령 비옥한 토지에 대한 풍문이라든가, 낯선 이민족과의 대면에서 겪는 수난, 망명 지사의 전설이 전하는 땅 등이 그 예이다. 앞서 두 단계의 대상화 방식은 일방적인 편견을 자체적으로 내포한다. 때문에 그것은 이미 이의제기를 하기 힘든 민족주의적 결정론에 포섭된 자리이다. 즉 서사의 방향은 이미 작품이 쓰이기 이전부터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만주가 조선을 대상화하는 방식에는 고향이 그림지만 지금의 현재 땅 역시 고향이라는 애항론이 도출된다. 두 번째로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에는 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는 형상들이 등장하고 만주의 역사적인 위상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재만 조선인 안수길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에는, 당연히 비단 조선이 만주를 대상화하는 방식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 이것이 곧 체험의 영역이며, 다시 말해 조선과 만주를 아울러 자기 내부를 볼 수 있는 시선의 존재인 것이다.

만주와 만주가 대면하는 방식이란 달리 말하자면 외부인의 시선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 내적인 균열의 지점을 응시하는 시선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안수길의 특히 조선인 내부의 반-조선인 혹은 탈-조선인이라 지칭할 만한 인물 군상, 이른바 ‘얼되놈’이라 불리는 공동체 내부의 이질적 분자를 그려내는 데 탁월하다는 사실과 연결시키는 경우 그 해석은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일차적으로 이 ‘얼되놈’이란 조선인과 청인 사이에서 민족(혈족, 동족), 이웃 등의 정리를 외면하고 사리사욕을 좇는 군상의 전형이며, 악역인 만큼 단죄 받아야 마땅한 대상으로 설정된다. 마치 계급문학이 계급 간 수탈의 모순을 폭로하는 가운데,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자리 잡은 마름이라는 존재를 통해 오로지 사육과 처세에만 혈안이 된 기회주의적 인간을 비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소설은 당대 조선과 만주라는 공간의 교차에서 생겨나는 역사적 장의 단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두 공간의 경계에 발 딛고 선 작가의 시야에서 조망되는 내부 응시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안수길의 소설이 주로 만주 개척 세대의 체험담을 주축으로 하고 있음은 앞서 밝힌 바 있거니와, 이 개척 세대의 수난사에 생동감과 극적인 효과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 바로 ‘얼되놈’의 군상인 것이다. 안수길의 소설은 역사적인 사실의 고증과 전달에 비해 극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스토리의 형성에는 취약한 편인데,<sup>10)</sup> 『북간도』는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한복-이장손-이창윤-이정수의 네 세대를 아울러 총 5부로 구성된 이 소설은 후반부로 갈수록 단순히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 작중 인물을 해당 장소에 투입시킨다는 인상을 강하게 준다.<sup>11)</sup> 반면 제1부에서 제3부까지 소설의 전반부에서는 이한복 영감의 손자 이창윤이 조부가 일군 비봉촌을 떠나 용정으로 이사를 단행하는 대목까지는<sup>12)</sup> 인물 간의 갈등 구도에서 촉발된 긴장감의 밀도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이한복 영감의 가계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최철성 영감의 가계를 맞세워 놓았기 때문이다. ‘변발혹복’을 강요하는 청인의 요구 앞에 이한복 영감의

10) 안수길 소설이 문학사적 의의와는 별도로 서사적 형상화에는 취약하다는 평가는 주로 『북간도』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관련 논문으로는 윤재근, 「안수길론」, 『현대문학』, 1977.9-10.; 이주형, 「『북간도』와 북간도 민족사의 인식」, 『작가연구』2, 1996.10 참고. 특히 이주형은 『북간도』의 경우 작가가 ‘역사 강담사’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소설적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11) 『북간도』의 특징은 실제 안수길이 활동한 시기였던 만주국 설립 이후의 시대를 묘사하는 지점에 이르면 서사사기보다는 역사적 사실의 단속적 기록에 가까워진다는 점이다. 한수영은 『북간도』가 ‘만주국 건국 이후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가장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가장 잘 형상화할 수 있는 시간대의 만주체험을 고스란히 생략해버린 것’에서 ‘만주공간’에 대한 작가의 무의식과 의식 사이에서 생겨난 미묘한 길항을 읽을 수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한수영, 「만주 개척의 서사와 기억의 중층성」, 『북간도』 작품 해설, 글누림, 2013, 235면.

12) 대략 구한말에서 1909년 간도협약 제1차 세계대전 시기에 해당한다.

강경한 거부와는 달리 타협을 주장했던 최칠성 영감의 뜻에 따라, 최칠성의 아들 최삼봉은 ‘얼되놈’이 되어 악역을 담당한다. 『북간도』이외에 창작집 『복원』에서는 단편 「원각촌」, 「토성」, 「새벽」 등 비교적 완결된 이야기의 구조를 획득한<sup>13)</sup> 주요 단편이 곧 이러한 대립구도를 적용한 것들이다. 청국인 토호와 순경에게 아첨하며 그로부터 얻은 권세를 행사하는 조선인 ‘얼되놈’에 대해 주민들은 비웃거나 욕을 할 수는 있어도 반발할 수는 없다. 그들은 평화스러운 생활에 언제 재앙을 가져올지 모르는 존재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얼되놈’ 집단은 일단 국경 밖에서 암약하는 악종(惡種)들이며, 한반도의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만주의 조선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종자들로 비추어질 것이다.

그러나 안수길의 독특함은 이러한 동족, 혈족에 대한 배반자로 보는 시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데 있다.

“미안하지마는 어찌겠소. 기왕사 그렇게 된 바에야, 우리 동네를 위해서...”

지각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싫다고 양탈하는 노덕심이와 함께 최삼봉이의 앞머리를 면도로 뺄뺄밀어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처음 얼마 동안은 동네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었다. 비봉촌 주민의 청국 정부에 대한 사무적인 일을 정부 판공서와 싸워 가면서 잘 보아 주었다. (...) 〈최통스(통사)! 노통스!〉 벌써 얼되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 자연히 청국측에서 대우를 받고 또 주민들에게 「통스, 통스」로 떠받들리우는 위치에 놓이지 않을 수 없었다.

특권자! 이한복 영감이 예언한 대로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소작인의 위치에 놓이게 될 밖에 없었다. 주머니는 두툼해지고 교만심이 거기에 따랐다. 처음의 양심은 어디에 갔을까? 부끄러움은 어디에 갔을까? <sup>14)</sup>

최삼봉이 ‘흑복변발’을 하고 주민들을 대표하여 청인으로 입적하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서술이다. 이민족의 복색을 하고 청인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울면서 탄식했던 인물이 어느 순간인가 ‘얼되놈’으로 변모하기까지의 전후사정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 처음부터 ‘얼되놈’이었던 인물은 없으며, 해당 공간의 체제 속에 ‘얼되놈의 자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간 인물의 인성이 그 자리에 맞게 변해간다. ‘얼되놈’으로의 전이에는 특별한 계기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저 해당 공간에서 만들어진 자리에 놓이게 되는 순간이 그 전이가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다. 안수길이 포착한 이 장면에는 촌락 사람들이 그 ‘얼되놈의 자리’를 지탱하는 조건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방관자를 자처하며 침묵을 지킨다고 해도 이 사태에서 결백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침묵의

13) 이에 대해 염상섭은 “엽기적인 사건”을 활용한다고 하여 대립구도의 극화가 과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14) 안수길, 『북간도』(上), 삼중당, 1967, 97면.

형태로 사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얼되놈의 자리’란 요컨대 개인의 윤리를 시험하는 자리이다. 관념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대신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리는, 식민지 일제 협력의 공간에도, 한반도와 중국의 변경인 만주에도, 그리고 이 만주에 세워진 만주국이라는 체제 안에도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디에든 열려 있었던 만큼, ‘얼되놈의 자리’를 향한 욕망은 특정한 사람만 갖는 자질이 아니다. 이는 중일전쟁 이전까지 만주의 공간적 성격을 고려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안수길의 단편 「토성」에서 만주의 건설 경기를 타고 한 뭇을 잡아 보겠다며 아편 밀매를 마다하지 않는 학수나, 장편 『북간도』에서 농사가 아닌 장사로 성공해보겠다는 꿈을 꾸는 창덕의 일화 및 장현도 일가가 자리 잡은 용정의 변화함이 보여주듯, 중일전쟁 이전까지 만주 곳곳에는 꾸준한 도시화와 함께 자본의 유입이 이루어졌다.<sup>15)</sup> 동족의 의리, 촌락 주민 간의 정리 등은 비단 민족주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공동체의 차원에서 길러진 관습과 도덕관념과 연결되어 있다. 조선 이주민 앞에 펼쳐진 만주는 단순히 비옥한 땅의 주인이 되어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 이외에도, 대부분 변방의 가난한 소작농이었던 이들에게 계급적인 도약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굳이 땅을 일구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겨준 땅이었던 것이다. 안수길과 비슷한 시기 현경준은 『유맹』(1940)에서 만주로 흘러든 조선인들이 밀수업자, 도박상습범, 사기횡령범, 아편중독자 등이 되어 전전하는 모습을 그렸다.

“현재, 지금 누구니 누구니 하며 돈푼씩이나 지니구 뽐내는 그들 중, 자초부터 한 푼 두 푼씩 바른 노릇을 해서 모은 것을 가지구 부자라는 이름을 뽐낸 자가 그래 몇이나 됩니까? 전부가 일확천금을 한 것이라구 해두 틀리진 않겠지요. (...중략...) 그들의 사업은 전부가 밀수가 아니면 부로카 노릇이었지요. 그두 대낮에 공공연하게 한 축이랍니다!”<sup>16)</sup>

일확천금의 땅 만주를 꿈꾸며 흘러 다니다 범죄자가 된 군상들을 현경준은 만주국 산하 보도소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그려낸다. 그러나 작가의 의도는 만주국 국책에의 협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년 시절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아편중독자로 전락해버린 사상범을 비롯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퇴락한 조선인의 처지를 그려내는 데 있었다.

‘얼되놈의 자리’는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포기한 부류로 정의되지만, 그 맥락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 비단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민족주의의 범주에만 국

15) 만주 및 만주국의 도시화 및 자본주의화에 관해서는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개정판), 117-123면), 유지원 외,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동북아역사재단, 2007) 참고.

16) 현경준, 「유맹」, 지만지, 2008, 77면.

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단위가 고수해온 도덕적 전통과 관습, 이상적 가치, 인륜적 규범에의 방기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속물이 된다는 의미 이외에도 그것이 자신이 성장한 공동체의 가치관을 방기하는 태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민족주의적이면서도 민족주의라는 말로는 모두 포괄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공동체적 이상주의에의 배반이라 말해야 할 것이다.

훗날 안수길은 자신의 소설 인생을 두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냐”라는 물음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sup>17)</sup> 이 질문은 이미 윤리적인 차원과 소설 쓰기를 결부시켰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진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대목에서 만주국 산하 조선인 작가이자 『만선일보』의 기자였던 안수길에게 과연 그에게 올바른 삶을 위한 투쟁이란 어떤 형식이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좋을 것이다. 분명 만주국 산하에서 창작된 『북원』이나 『북향보』는 국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담고 있으며,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어떤 저항의 포즈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앞서 살펴본 내적 균열의 자리에 그 자신이 놓여 있는 형국이다. 말하자면, 만주국이라는 체제가 열어주었던 가능성의 자리에 놓여 있다. 만주국이 노골적이며 배타적인 이권 쟁탈전의 전면화된 형태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오족협화’를 표방하며 배타적인 장벽을 없애는 포즈를 취했다는 것, 이는 곧 기득권의 재분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말이다. 이 과정에서 안수길은 그 자신이 신중하게 그 발생 과정에 대해 고찰했던 ‘얼되놈의 자리’, 스스로 자신의 욕망을 시험 받는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 3. 자기응시와 자기보존의 긴장 관계

만주국의 독특성은 직접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은 한반도에 비해 독립국을 표방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sup>18)</sup> 중국 땅을 점유하고도 중국의 왕조적 정통성을 전유하고,

17) 안수길, 「나의 처녀작 시절」, 『명아주 한 포기』, 문예창작사, 1977, 239-240면.

18) 식민지 상태였던 조선과 독립국을 표방했으니 사실적으로는 식민지 상태였던 만주의 체제 차이를 김재용은 ‘공식적 식민지 대 비공식적 식민지’라 요약하고, 이런 차이가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 ‘저항은 하지 않았으니 그렇다고 협력한 것은 아닌’ ‘수동적 협력’의 상태를 변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일전쟁 이후 재일본 및 재만주 조선인 문학의 분화와 식민주의 협력』, 『재일본 및 재만주 친일문학의 논리』, 역락, 2004, 47면.) 조선과 만주국의 통치 체제가 다르다는 사실은 당대 재만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변수가 되는데, 가령 만주국의 국책을 옹호하는 내용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주국이 독립국가라는 기대에 걸려 있느냐 아니면 일본의 식민지 동원 정책을 추종하는 것이냐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이상경의 견해는 그

이민족을 포함하여 ‘오족협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 공간의 특징은 ‘이념 과잉’에 있다는 설명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단적으로 일본인들은 “패망 때까지 만주국 국적법을 제정하지 못했으므로 법률상 ‘국민’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만주국민이란 정체성을 붙여넣으려 애썼다는 것은 좋은 사례가 된다.<sup>19)</sup> 일차적으로 이때 ‘국민’이라는 이념은 최소한의 법적인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통치자에 의해 주입되는 환영(illusion)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허구적 환영이 실제 장치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현실의 무대에서 승인하는, 다시 말해 스스로 ‘국민되기’의 현장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념이란 일방적일 수 없고 통치권자와 피통치자가 같은 무대에서 현실적 환상(fantasy)을 용인하는 한 유지되는 것이기에 만주국이란 ‘이념적 공간’이며,<sup>20)</sup> 나아가 이 도저한 이념적 억압으로 인해 자기반성 내지 자기회의를 곧 생존 기반의 붕괴 내지 생명의 위기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념과잉’의 공간이라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이념과잉의 공간에서의 일반적인 삶이란 주어진 체제가 만들어낸 규범과 사고의 방식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만주국 하에서 안수길은 물론 조선 이주민 전체가 놓여 있던 이념적 포획 상태에 대한 가장 충실한 보고서는 아마도 단편 「원각촌」이 될 것이다. 조선인 마을인 원각촌에 돌연히 나타난 이상한 사내에 대한 묘사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이주민 집단을 지배하는 근본적 정서에 대해 통찰할 기회를 준다. 얼핏 평화로운 농촌처럼 보이는 원각촌의 유일한 골칫거리는 얼되놈 한익상이란 인물이다. 만주국의 적(籍)을 두고 있으며 만주어가 능통하다는 이유로 마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된다.

주민들은 그를 벌러지만도 못한 인간으로 역이었지만 그를 미우고는 하로도 안온히 살수없었고 그한테 속는줄안면서도 청하는돈푼을 내여주지않을수없었다. 그리고 한통쓰 한통쓰하고 치바뜨는 수밖에없었으며 그가 갈꺾하기전에 미리 닭마리나 음식같은것을 갖어다 받히고 그의 성미를 녹이는수단으로 겨우 미봉하여 왔었을 다름이었다.<sup>21)</sup>

주민들은 얼되놈 한익상의 만행을 알고도 묵인한다. 자신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알고도 속아주는 척 넘어가고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수길은 이 지점

---

사례 중 하나이다. (「‘야만’적 저항과 ‘문명’적 협력」, 앞의 책, 60면.)

19) 한석정, 앞의 책, 159면.

20) 이러한 설명은 슬라보예 지젝,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인간사랑, 2002)에서 시도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에 따른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사회적 존재의 ‘허위의식’이 아니라 존재가 ‘허위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한에서의 그 존재 자체이다.” “이데올로기적인 것은 그 본질에 대한 참여자들의 무지를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현실이다.”(48면)

21) 안수길, 「원각촌」, 『북원』, 43-44면.

에 만주의 산판을 전전한 끝에 원각촌에 불쑥 등장한 조선인 사내를 등장시킨다. 억쇠라 불리는 인물은 오로지 자신의 아내, 정확히 말하자면 성육의 지배를 받는 인물이다. 정착하지 못하는 유일한 원인은 만주의 사내들로부터 아내를 독점하기 위해서이다. 얼되놈 한익상은 억쇠의 아내를 넘보다 한익상의 손에 죽고, 억쇠는 아내를 데리고 다시 방랑에 나선다. 이 소설은 농촌 사회를 지탱해나가는 정착민의 생존 방식을 억쇠라는 방랑자(노마드)와 선명히 대조해 놓았다. 땅을 지키려는 농민의 본능은, 현실적 생존의 터전인 땅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참고 견디라 명령한다. 노동의 신성함과 명분을 초월한 맹목적 생존 의지는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다. '얼되놈'의 공적 체제에 합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익상을 포함한 원각촌의 주민들은 모두가 동질의 공간에 놓인 것이며, 어떻게 본다면 주민들 역시 세속적인 욕망에 봉사하는 '얼되놈'의 자질을 어느 정도 분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이념 과잉의 공간에서 열리는 '얼되놈의 자리', 즉 윤리적 시험대의 자리는 개인이 창출한다기보다는 체제에 의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이며 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안수길의 질문은, 생존을 위해 의도적으로 거부되어 있는 자기 응시를 환기시키는 파괴력을 갖는다. 다시 말해 도피하지도 외면하지도 않은 채(혹은 못한 채) '얼되놈의 자리'에 놓이고, 그 자리가 자기윤리의 시험대임을 매순간 확인하는 것이다.

만주국과 같은 이념과잉의 공간에서는 작가로서 창작을 한다는 것, 혹은 일상의 수행 자체가 윤리적 시험대에 놓이는 것이며, 그러므로 정치적인 결정일 수가 있다. 소설집 『북원』에 수록된 「사호실」(1940)은 당대 작가의 내면 풍경과 관련하여 읽을 때 흥미로운 작품이다. 만주를 배경으로 하지 않았기에 그간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한 작품이다. 원산 석왕사 부근 여관에 폐병으로 정양하러 온 사호실 손님 마준영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으로, 안수길의 소설로는 보기 드물게 인물 내면의 심리를 추적하고 있다. 22세 시골금융조합의 서기로 일하다가 설봉여관에 투숙한 '마'는 자신이 신경쇠약 환자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위궤양으로 정양을 온 동료 투숙객이자 그와 친근한 사이인 '박'을 비롯하여 투숙객들이 폐병 환자를 꺼리기 때문이다. 폐병 환자임을 숨기기 위해 마가 기울이는 노력은 눈물겹다. 그는 자신이 폐병 환자임을 숨기기 위해 여관을 찾아들어온 폐병 환자를 먼저 나서 쫓아내기도 한다. 힘에 부친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박과 무리한 등산을 하고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 보인다. 박의 권유로 폐병에는 도리어 해롭게 작용할 뜰을 뜨러 다닌다. 결국 한동안 잠잠하던 객혈이 터져 나온다. 이 블랙 코미디의 정수는 이런 비굴한 자신의 행동을 끊임없이 되씹고 매번 반성하면서도 다음날이면 결

국 또 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하는 마의 용렬함에 있다.

“뛰어가서 그의 빈약한억개를 덤석쥐고 여보 이거 웬일이요-하고 함께 울고 싶은 충동이 마의 가슴속에서 용소솟았다. 다음순간 마의 가슴에는 그가 아까 주인에게 한말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치바쳤다. 동시에 폐병환자는 이 세상에서 용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자기도 그런 환자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즉석에서 쪼겨난 사람과 똑같은 운명이 될것이 아니냐-그는 큰절벽에 다다른듯 앞이 캄캄하였다.”<sup>22)</sup>

마는 자신이 동일한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도리어 자신과 같은 부류를 배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 수동적이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호의적인 친구 박을 두려워한다. 박의 믿음을 깨지 않기 위해, 그로써 자신의 안위를 보존하기 위해 그는 결국 폐병이 악화되어 가는 지경에 이른다. 더불어 자기 환멸도 깊어간다. 1933년 안수길은 건강이 악화되어 실제로 석왕사에 정양했던 적이 있다. 「사호실」에는 이 시기 석왕사 여관의 경험과 1940년 무렵 자신의 내면이 교차되어 있을 것이다. 박의 시선이 마를 움죽 달짝 못하게 움아맬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마의 거짓말과 죄의식을 환기시키기 때문이다. 박의 시선이되 그것은 마가 자신을 투영하는 시선이다. 이러한 자기 응시로 인해 마는 자신이 놓여 있는 모양을, 그리고 자신의 용렬함을 확인한다.

이러한 원리가 민족의 서사로 편입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된다.

얼마 만에 보는 얼굴이었던가? 경관의 감시 밑에 대하는 얼굴이었으나, 무척 반가웠다. ( ‘살아 있었구나! ) 김경문이는 더욱 그런 모양이었다. 어린 정수를 무척 사랑했었기 때문일 게다. 반가움이 눈과 얼굴에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정수는 그런 김경문이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배반했다는 생각이 마음을 쥐어뜯었기 때문이었다.<sup>23)</sup>

소설 『북간도』 중에서 작가 안수길의 세대에 해당하는 인물인 한복영감의 증손자 이 정수가 등장하는 부분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3.1 운동과 때를 같이한 만세운동에 가담하고 흥변도 부대의 독립군으로 활동하던 그는 192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항쟁의 기개가 꺾이자 더 이상 ‘부정선인’으로 쫓기는 삶을 살 수 없어 자수한다. 조사과정에서 그는 왕년의 독립군 부대의 동지였던 김경문과 대질심문을 받고 있다. 반가워하는 김경문의 시선에 정수는 감히 눈을 맞추지 못한다. 나무라거나 힐난하는 눈빛이 아님에도

22) 안수길, 「사호실」, 『북원』, 174면.

23) 안수길, 『북간도』下, 269면.



상대의 시선을 도무지 마주치지 못하는 것은, 즉 상대의 눈빛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기 응시의 시선 때문이다. 정수는 실제로 일본에게 협력한 것은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고 일본의 체제하에 순응했다는 것을 의식한 데에서부터 이미 죄인이 된다.

자기응시는 양심과 윤리의식을 동요시키는 계기를 만든다. 이것이 ‘얼되놈의 자리’를 보류의 형태로 존속시키는 동력이다. 중요한 것은 ‘얼되놈’의 자리가 이념과잉의 공간 속에서 현실화되지 않되 유효한 하나의 가능성으로 인식되는 것, 그 가능성으로부터 생겨나는 위기의식을 잊지 않는 자의식의 유무이다.

#### 4. 결론

안수길의 소설은 소리 내어 저항을 말하지 않기에 그의 소설이 현실을 부정하는 방식을 읽어 내기는 쉽지 않다. 이에 그가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눈여겨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그의 소설에 중요한 갈등 장치로 등장하곤 하는 ‘얼되놈’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였다. 이로부터 당대 이념과잉의 공간 속에 놓인 작가의 위치를 이른바 ‘얼되놈의 자리’에서 글쓰기를 하는 형국이라 보았다. 이것은 당대 만주라는 공간을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은 채 창작 활동을 하며 머물렀다는 전제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이때 이른바 ‘얼되놈의 자리’에서 소설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얼되놈’의 자질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으로서 혹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가치를 배반하면서까지 당대 제도가 열어놓은 세속적 욕망의 자리에 자연스럽게 포섭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고, ‘얼되놈의 자리’에서 글쓰기란 이러한 자기소멸의 위기 앞에서 자기응시를 통해 현재 놓인 위치를 자각하는 것 자체라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글쓰기가 ‘얼되놈의 자리’가 현실화되어 현실적 권력을 행사하는 실제로 나타나는 것을 의식적 수준에서 보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재만 조선인 작가로서, 만주국 치하에서 작가 활동을 해야만 했던 안수길이 매순간 일상에서 직면해야 했던 윤리적 고민의 성격을 해명하고, 만주국이라는 공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학행위의 한 단면을 조명해보고자 하였다.



# 중국동북문학에 투영된 근대 만주의 화이관

김 창 호 (강원대)

- |                       |                   |
|-----------------------|-------------------|
| 1. 서론                 | 4. ‘華’와 타자로서의 ‘夷’ |
| 2. 동아시아 민족, 관동으로 뛰어들다 | 5. 결론             |
| 3. ‘華’의 “關關東”과 귀향의식   |                   |

## 1. 서론

최근 중국을 방문한 사람이라면 길거리에서 ‘중화민족 대가정’이라는 글자와 이와 관련된 민속화를 자주 보게 된다. 이는 중국정부가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각 민족 간의 융합과 단결을 통하여 민족갈등을 해소시키고, ‘대륙굴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은 중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따라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다’라는 개념이 표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그러나 중국정부가 민족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간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 주로 변강을 주요 활동지역으로 삼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해 소외받는 ‘타자(the Other)’로 고착시켜 갈등의 요소를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그 범위가 중국 영토에서 활동했거나 활동하는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국가와는 역사분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서부대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난 우루무치 지역의 유혈사태나 한중간의 역사전쟁으로까지 비약된 ‘동북공정’에서 예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족갈등에 대한 원형을 탐구하기 위해 근대시기, 특히 1920년대 만주지역을 배경으로 한 “동북작가군”<sup>2)</sup>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많은

- 
- 1) ‘중화민족 대가정’이란 주체 민족인 한족이 비 한족과의 장기간에 걸친 문화적·민족적 융합을 토대로 역사적인 통일과 분열의 대순환 속에서 형성된 거대한 ‘중화민족의 동반 가족’ 또는 ‘중화민족의 공동체’, 즉 ‘통일적 다민족 국가’인 ‘중국’을 의미한다. 윤휘탁,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2006. 20쪽.
- 2) ‘동북작가군(東北作家群)’이란 개념은 1946년 문학사가 孫仲濟가 편찬한 『中國抗戰文藝史』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는 1931년 만주사변(9·18사변)이후 일제의 탄압이 가중되자 만주를 떠나 관내를 유랑하면서 문학 활동을 전개한 蕭紅, 蕭軍, 端木蕻良, 舒群, 駱賓基 등 동북출신 작가를 가리킨다. 이들은 단지 지역 출신이 같다는 외적인 공통분모 이외에 고향상실의 비애, 일제의 착취와 동북인민의

학자들이 언급했듯이 근대 만주는 동아시아 “갈등의 요람”(Owen Lattimore)이었으며, “중국판 옐도라도”(한석정)<sup>3)</sup>이었고, “동아시아 변동의 진원지이자 교차지”(윤휘탁)였다. 특히, 1920년대는 만주를 민족의 성지로 삼고 있는 만주족이 지배계층으로 굳어진 청조가 멸망한 직후이며, 동시에 중화민국 건설의 주체인 한족이 이른바 “關關東”으로 만주의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시기였기 때문에 같은 중화민족 구성원 사이에서도 갈등이 첨예한 시기였다. 또한 이 시기 만주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패망한 백계 러시아인에게는 “구원의 공간”의 역할을 담당했고, 1919년 대규모 항일운동이 좌절당한 우리민족에게는 “망명 공간”, 혹은 “해방기지”가 되었으며, 러일전쟁 승리 후 관동주를 기반으로 만주에 대한 야욕을 들어낸 일본에게는 “대륙진출의 교두보”와 “제국주의 실험 대상의 땅”이었다.<sup>4)</sup> 이와 같이 근대시기 만주는 동아시아의 각 민족이 무주공산과 같은 하나의 공간에서 생존을 위해 각축을 벌인 동아시아의 축소판이었다.

본고에서는 만주사변 이전 만주에서 태어나 근대 만주의 환경과 사회를 체험한 이른바 “동북작가군”의 소설을 삼아 이 시기 만주에서의 민족갈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볼 것은 작가가 어느 민족이냐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만주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이 등장하는 작품을 선별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들 작품의 작가는 蕭軍, 駱賓基, 端木蕻良, 舒群 등이다. 그런데 端木蕻良을 제외한 작가가 모두 한족 출신으로 “關關東”의 후예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이들 한족 작가들의 시선에서 본 만주공간, 그리고 한족과 관계하는 만주의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중국의 전통적 민족관계가 ‘華夷觀’으로 귀결된다면, ‘華’를 담당하고 있는 한족 작가의 작품에는 ‘夷’가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봉건사회의 마지막 왕조인 청의 몰락 이후 새롭게 재편되는 중화민족의 새로운 질서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 방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작가의 한국인 인식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sup>5)</sup> 그런 의미에서 근대 만주의 민족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이 글은 기존 연구 영역의 외연을 확대한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아울러 만주지역에 대한 사회학적, 역사학적 논의에 참고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

저항, 고향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표현하였다는 문학적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들은 동일한 주제 의식을 가졌으나 동인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학사단과는 구별되며, 창작방법이나 문예사조가 유사한 문학유파를 형성하였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들은 일제침략과 동북출신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환경이 빚어낸 중국현대문단의 대표적 지역 작가군이다.

3)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개정판),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71쪽

4) 윤휘탁, 『신중화주의』, 푸른역사, 2006, 247-248쪽.

5) 김시준 등 『한반도와 중국동북3성의 역사문화』, 박재우,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發展趨勢考(1917-1949)」, 『외국문학연구』(1996, 제3집), 「中國現代小說속의 韓人形象과 社會文化狀況考(1917-1949)」, 『중국학연구』(1996, 12), 「中國現代韓人題材小說試探(1917-1949)」, 『중국연구』(1996, 12) 등.

## 2. 동아시아 민족, 관동으로 뛰어들다

청 왕조를 세운 누르하치 시기 심양을 중심으로 번영을 누린 만주지역은 산해관을 넘어 베이징으로 천도한 ‘입관(入關)’을 계기로 급격히 황폐해졌다. 당시 만주에서 봉천·요양·해성 등 3개 지역만 이전의 모습을 유지했을 뿐, 과거 명대에 번영을 누렸던 개주·봉황성·금주 등은 불과 수백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촌락으로 전락했다. 이후 청으로 국호를 정하고 베이징으로 천도한 후에는 그나마 농업과 개간이 이루어졌지만, 건륭 5년(1740)부터 이른바 만주족의 발생한 “성스러운 땅(龍興之地)”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봉금정책이 시행되면서 이 지역사회는 문화, 경제에 있어서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sup>6)</sup>

만주지역이 다시 역동성을 보이며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근세 이후에 이르러서다. 17세기 중엽이후 극동지역에서 북동향을 얻기 위해 남진정책을 표방한 제정 러시아는 당시 동아시아의 ‘무주공산’으로 전락한 만주지역으로 진출을 꾀하였다. 1689년 네츠친스크 조약 체결이후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면서 청조는 러시아 진출 대책의 일환으로 흑룡강 연안 일대에 아이훈, 무얼진, 치치하얼, 부여, 하이랄얼 등을 건설하고 그 수비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장둔전을 설치하였다. 이처럼 17세기 이후 러시아의 진출과 함께 활기를 띠게 된 만주지역은 1840년 아편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아편전쟁 이후 러시아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곤궁에 처한 청조를 압박하여 아이훈조약과 베이징조약을 맺고 각각 흑룡강 이북의 땅과 우수리강 이동의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이에 청조는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고, 국내적으로는 산동성과 허베이성 등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침체를 해소하고자 1860년대에 이르러 봉금정책을 완화하고 한족의 만주 이민을 장려하였다. 이른바 “關關東”<sup>7)</sup>의 물길이 열린 것이다. 그 결과 만주에는 한족 이민자 수가 증가하였고<sup>8)</sup>, 중원의 한족 문화가 전파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토착세력인 만주족이 차지하던 토지와 상권은 농경기술과 상업능력이 뛰어난 한족이 장악하게 되었다.<sup>9)</sup> 결국, 만주의 주도권을 둘러싼

6)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비옥한 토지를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동북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되는 “黑土地”라는 말은 바로 오랫동안 묵힌 비옥한 토지를 의미한다.

7) “關關東”은 산둥(山東)·허베이(河北) 일대의 사람이 관동(關東)땅으로 생계를 위해 떠난다는 뜻이나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며 살아간다는 비유로 쓰이기도 한다.

8) 특히, 배로 이동이 쉬운 산둥으로부터 요동반도로 한족이민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는데, 만주사변 이전 30년간 중국 각지에서 만주로 이동한 인구수는 1,500만~1,7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중 1,000만 명은 거주를 목적으로 완전 이주한 사람들이다. 曲晓范, 《近代东北城市的历史变迁》, 东北师范大学出版社, 2001, 224쪽.

만주족과 한족 두 민족의 갈등은 아편전쟁 이후 노출된 다수의 한족이 통치세력인 만주족에 대한 불신 위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한족이 관동으로 이주를 시작한 시기는 공교롭게도 우리 민족도 만주로 재진출한 때이다. 1860년대 함경도 지방의 기근과 수재로 인해 수많은 이주민이 발생한 것이 근대 한민족 만주이주사의 시작이나, 본격적인 이민은 일제 강점이 노골화된 20세기 벽두부터 진행되었다. 이 시기부터 3·1운동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본다면 3·1운동부터 만주사변까지 항일을 위한 정치적 목적과 농토 수탈로 인한 경제적 원인으로 만주를 선택한 기간은 두 번째 시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 시기인 만주사변이후부터 종전까지는 자발적 이주도 있었으나 대동아 전쟁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이주가 주를 이루었다. 반 백년의 이주사를 통하여 한반도를 벗어나 만주행을 택한 당시 한국인구 2,500만 명의 1/12에 해당하는 210만 명으로 오늘날 재중동포 수와 비슷한 수치이다.

한편, 러시아인의 만주진출은 “동청철도”의 건설로 촉진되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요동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던 일본의 야욕은 러시아가 유럽 열강과 연합하여 압력을 가함으로써 무산되었고, 이에 러시아는 그 공로의 대가로 만주지역을 관통하는 철로 부설권을 획득하였다. 1898년 3월 러시아는 여순과 대련 일대를 조차하고 하얼빈에서 대련에 이르는 남만주철도의 부설권도 얻었다. 철도 부설에는 설비뿐만 아니라 숙련된 기술자들이 필요하다. 러시아 당국은 동청철도를 부설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부터 다수의 기술자들을 데려오면서 러시아인의 만주 거주가 시작되었다. 하얼빈을 비롯한 흑룡강성 동부에는 러시아 이민자들이 늘어났고 그들이 가져온 건축 양식과 음식 및 복식문화 등이 전파되어 새로운 만주문화의 구성 요소가 되었다.

동청철도의 부설이 러시아인의 만주 이주가 시작된 사건이라면, 두 번째 사건은 러일 전쟁이다.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 군대는 군량을 비롯한 군수품이 필요하게 되었고, 하얼빈은 생산기지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하얼빈에는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유입되었고, 이들은 밀가루공장, 피혁가공 공장 등을 운영하였다.<sup>10)</sup> 만주에 러시아인이 급증한 세 번째 사건은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이다. 레닌에 의한 프로레타리아 혁명이 성공을 거두자 제정 러시아에서 부와 명예를 누렸던 관료와 군인, 귀족과 지식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백계 러시아인들이 혁명의 소용돌이를 피해 하얼빈 등지로 이주하였고, 이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던 러시아인들과 함께 문화를 선도하고 주류가 되었

9) 한석정, 앞의 책, 71쪽 ; 윤휘탁, 앞의 책, 246쪽,

10) 통계에 따르면 이 시기 하얼빈에 거주한 러시아인이 3만 명에 달했고, 1912년에는 4만 명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하얼빈 총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김장선, 「일제강점기 만주 러시아인 문학 연구」 『만주문학 연구』, 역락, 2009, 210쪽.

다. 1923년에는 하얼빈의 러시아인 인구가 23만 명까지 증가하였고, “동방의 모스크바”를 만들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만주 팽창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905년 러일전쟁의 결과로 만주의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갔다. 러일전쟁의 결과로 맺어진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장춘 이남의 남만주철도는 일본의 소유로 넘어갔다. 일본은 기존 러시아 세력 아래에 있던 대련과 여순 등을 점령하고 남만철도 부설권과 그 연선구역 및 역 주변 일대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만철부속지’를 중심으로 한 영토를 확보하였다. 특히 남만의 대련·영구·안산·요양·심양·무순·단동·사평·공주령 등의 만철부속지에는 기차역, 정차장을 중심으로 영주지가 건설되면서 일본인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만주에 이주한 일본인들은 초기 대부분 만철부속지를 중심으로 거주하였는데, 초기에 많이 거주한 사람들은 만철 종업원이었고 그 다음이 상업종사자, 기생이나 작부, 농업종사자 순이었다.<sup>11)</sup> 그러나 유입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1915년부터 1930년까지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일본인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은 없었다. 실례로 1906년 봉천거류민회가 창립될 때까지 봉천시의 일본인은 1,645명에 불과했으며, 1913년에는 2,152명이었다가 1930년에는 1,731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나 만주국이 수립되고 일본의 지배권이 확대되면서 만주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인구증가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1934년에 “만주국” 전역에 76,364명이 거주했으며, 이후 일본의 ‘초민간항(招民墾荒)’과 ‘이민실변(移民實邊)’과 같은 이주정책이 본격화 이후 1942년에는 1백만 명으로 증가하였다.<sup>12)</sup>

### 3. ‘華’의 “關關東”과 귀향의식

중국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와 인접한 중국의 가장 동쪽에 위치한 도시 훈춘에서 태어나서 만주사변 직후인 1933년 베이징(北平)으로 유망한 작가 뤼빈지(駱賓基 1917~1994)는 그의 어린 시절을 그린 자전적 소설 《혼돈(混沌)》에서 산둥성 출신의 한족의 관동 진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의 성함은 장칭산(姜靑山)이며, 산둥성 교주(膠州)반도 부근의 내주(萊州)관할의 염가(廉家)라는 시골 출신이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11대 할아버지 이전에 사천성에

11) 유지원 등, 『근대 만주 도시 역사지리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07, 67쪽.

12) 김경일 등, 『동아시아의 민족이산과 도시 -20세기 전반 만주의 조선인』, 역사비평사, 2004, 67쪽.

서 이주해와 처음에는 창읍(昌棼)현에서 살다가 그 후 가족 중 일부가 이 마을로 이사 와서 줄곧 살아왔다고 한다. 도광(道光1821~1850)연간에 창읍현의 강씨 집안에서 군관 장교가 나왔고, 재임기간에 가족 일부를 이끌고 장가구(河北 張家口)로 갔다. 그래서 창읍현의 장씨 집안에서 처음으로 관외(關外, 만리장성 북쪽)로 이주한 가족이 생겼다. 그리고 염가 집성촌의 장씨 집안사람들은 줄곧 풀을 베고 보리를 농사짓고 살았다. 아버지 대에 이르러 이미 2백여 명의 대가족을 이루었는데, 매 가족마다 단지 3~5묘의 보리밭을 가진 빈농이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성격이 호탕하였으며, 집안의 전통에 얽매이지 않았다. 호미자루를 잡지 않았지만, 사서를 읽을 때 하루 종일 긴 의자에 앉아야 하고 밖에 나가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서당에도 가지 않았다. 그래서 서당을 빠져나와 수숫대 더미로 만든 굴에 숨어들어 회초리를 든 할아버지에게 쫓겨났다. 결국 아버지는 본인의 소원대로 내양(萊陽)에 가서 과일 장사를 했다. 이때 아버지는 본인의 수입이 생겼고, 취미도 생겼다. 그것은 여자, 도박, 그리고 술이었다. 얼마 후 부친은 바다를 건너 여순(旅順)으로 가서 2년 후에 돌아왔는데, 부친은 건강하고 체격도 커졌고, 동전 두 꾸러미를 들고 왔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회초리로 아버지를 한바탕 때렸다. 아버지가 돈을 적게 벌어서도 아니고, 떠난던 날 할아버지께 도박 짓을 남겨서도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서 결정하고 작별도 고하지 않고 먼 곳으로 떠나서다. 엄마가 -나의 생모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엄마는 아빠의 첫째 부인이다 - 사전에 아버지의 소식을 조금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음날 또 사라졌다. 이번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셨다.

처음에는 도박장을 차렸고, 3년 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의 변화한 거리에서 잡화점을 개업했다. 게다가 황색인가증을 소유했고, 러시아 시베리아정부의 법규에 따라 2급 상인이 되었다. 또한 법정에 참석하여 배심원으로 활동하는 유력인사가 되었다. 같은 시기 원세개의 해외 보황당의 정치집단에 가입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예전의 장칭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13)</sup>

위의 서술은 주인공 집안의 내력과 삶의 방식, 그리고 산동인들이 당시 기회의 땅으로 인식된 관동으로 뛰어 든 이유와 그곳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 산동인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단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만 아니다. 아편전쟁이후 중국의 정국은 혼란에 빠졌으며, 크고 작은 농민들의 반란과 지역 군벌 사이의 싸움과 그들의 약탈도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고향소식을 묻는 아버지에게 ‘해남(海南-발해만 남쪽이라는 의미로, 만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산동사람들이 산동을 지칭하는 말)의 모든 마을마다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홍창회(紅槍會)를 만들고는 매일 남군, 북군이 들이닥쳐 결국 마을은 황폐해지고 어지럽게 되었다’고 알려준다.

13) 駱賓基, 《混沌》, 作家出版社, 1954, 67-68쪽.



다른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만주와 블라디보스토크로 들어와 장사로 돈을 번 아버지는 그 돈을 이용하여 변방의 황무지를 사들이고, 이를 월경한 조선농민이나 현지의 만주족, 혹은 고향인 산동에서 온 사람들에게 개간을 하게하고 소작을 주어 그 수입으로 다시 토지를 구입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한편, 자금을 이용하여 인삼, 차를 파는 상점을 개업하고 아울러 환전업을 겸하면서 재산을 늘린다.

그러나 만주로 이주한 산동인들은 만주를 단지 돈을 벌기위한 기회의 땅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산동은 ‘따뜻한 기후와 익숙한 풍속과 인정이 있는 곳’인 반면, 관동은 춥고 황량한 곳이다. 산동은 ‘華夏’의 중원이며, 중화민족의 정신적 근본이 되는 유교의 발상지로 전통예법을 중시하는 곳이다. 그들에게 만주는 ‘관외(關外)’이며, 예법을 모르고 미신을 숭배하는 오랑캐의 땅이다. 그래서 그들은 만주가 낯설게 느껴지며, 그럴 때마다 조상의 묘와 사당이 있는 고향을 잊지 못하고, 젊었을 때의 추억을 회상한다. 고향으로 그리워하며 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다짐한다.

